Public
우리 동네 PUB

PUB 펍

사진_ 스펑키엘 디자인랩 제공

공삶가
삶을 공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1
2017. 5

펍

공삶가 - 삶을 공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가며

개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물리적 정비부터 민간 주도의 복지 체계 수립 또는 주민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지원까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公共)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당신의 문화, 당신의 비전,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어느 대도시의 문화 플랜 수립 과정에서 내건 캠페인 문구처럼, 우리도 다방면의 정책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을 찾고 그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활동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자발적인 주민 주체들이 스스로 무엇을 지속 가능하게 일구리라는 바람은 이상적일 수도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Public)에 대해 찬찬히 천천히 들여다볼 시점입니다.

이 도시와 주변부 지역 구성체는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시대는 변했는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는 무엇인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살기 바쁜 요즘일수록 내적 동기를 갖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공공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소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을 스스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책임감은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즐겁게 풀어낸 사람들의 생각과 활동을 격려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펍(pub)은 퍼블릭(Public)의 약자이자 커뮤니티 펍에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공공성을 키워드로 누군가와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오픈 테이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미난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는데,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진 자료에 따르면 동네 술집(pub)을 자주 들르는 사람은 주로 도심 대형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 비해 인생에 대한 행복도와 삶에 대한 믿음·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삶터도 일터도 아닌 제3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레이 올덴버그는 동네의 정보 교류처 역할까지 하는 동네 이발소, 점원과 즐겁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네 서점 그리고 다른 손님 모두와 안면이 있는 동네 주점이야말로 'the great place', 갈 만한 장소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네 펍(pub)은 끈끈한 유대 관계로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펍(PUB)에서 다룰 공공(public)을 예술 영역에서 문화, 사회, 정치, 생태, 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그룹의 활동을 공유하며 공공성이 갖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펍(pub)의 이번 호 주제는 '공삶가'(삶+공상가), 삶을 공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웃과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주체. 지속 가능성을 꿈꾸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끄는 이 소중한 주체들은 언제나 자신을 넘어 공유의 가치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상합니다. 이들이 꿈꾸는 삶, 지향하는 가치들, 바람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받아 적어 지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섹션1 '생활의 발견자'에서는 지금 여기서 같이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을, 섹션2 '나의 애정 공간'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찾아낸 멋스런 공유, 대안 공간을 일구고 가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섹션3 '보통의 권리'에서는 누구나 일상에서 생태적 환경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이들을, 섹션4 '다른 색들'에서는 저마다 다른 미적 감각으로 예술을 통해 교류하는 우리 동네 예술가들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펍(PUB)이라는 멋스럽고 따듯한 공간에서, 다양한 빛깔의 향기를 내며 삶을 공상하는 사람들을 만나 왁자지껄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PUB

CONTENTS

002 들어가며

Section 01

생활의 발견자

008 **안산 월피동** | 리드어스 안용재 – 책으로 꿈을 읽는 청년들

018 **안양 관양동** | 스펑키엘 디자인랩 윤경숙, 차주협 – 생활의 문화를 짓는 건축가들

030 **수원 행궁동** | 피큐알(PQR) 천인우 – 생활권을 재생하는 디자인

Section 02

나의 애정 공간

044 **판교 테크노밸리** | 커먼뮤직+커먼키친 황규석 – 판교에 흐르는 맛있는 음악

054 **용인 고기동** | '그냥, 가게',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 – 따뜻하고 이상한 이 동네의 '법칙'

064 **오산 오색시장** | 살롱드공공 주조양 – 공유는 삶을 잘 '살아내는' 비결

Section 03

보통의 권리

076 **안산 고잔동** | 식물공방PLANT+PLANT 정성희, 김지연 – 식물과 함께 사는 '보통의 권리'를 위해

086 **용인** | 아홉색깔농부 김봉기, 장정근 – 꾸러미에 담긴 파릇파릇한 '우리의 삶'

096 **수원 지동** |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 재생할 수 있는 노동, 그리고 여성의 시간

106 **의왕** | 담쟁이자연학교 이연숙, 이경선 – 자연의 재생력을 배우는 학교

Section 04

다른 색들

118 **성남 분당구 수내동** | 우당탕탕 예술놀이단 이지은– 덩더쿵이 꿈꾸는 목적 없는 놀이

128 **부천 심곡본동** | 카페·독립출판 서점 오키로미터 김병철 – 독립출판에는 '엉뚱한 날것'의 매력이 있다

138 **부천 소사본동** | 도예그룹 토인즈 – 흙과 불로 빚어낸 일상의 꿈

150 필자·프로젝트 소개

| Section |

01

생활의 발견자

지금 여기서 같이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

안산 월피동 | 리드어스 안용재 - **책으로 꿈을 읽는 청년들**
안양 관양동 | 스펑키엘 디자인랩 윤경숙, 차주협 - **생활의 문화를 짓는 건축가들**
수원 행궁동 | 피큐알(PQR) 천인우 - **생활권을 재생하는 디자인**

#S1-01 | 안산 월피동 리드어스 안용재

책으로 꿈을 읽는 청년들

| **이정화** 독립 에디터

▲ 리드어스 안용재대표가책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안산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가장 먼저 생긴 도시다. 특히 부모들이 자금을 출자해 협동조합 형태로, 공동육아 어린이집, 초중등 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자녀의 교육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마을이 많다. 안산에 사는 필자 역시 자녀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키웠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집중 피해 지역(고잔 2동, 와동, 선부 3동)을 중심으로 생존 학생 및 피해 유가족에게 힘을 주기 위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재생활동이 두드러졌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전시 및 공연, 프로젝트 등을 시연했으며, 치유공간이웃, 4.16공방, 소금버스협동조합 등의 단체들이 유가족 및 지역민들의 마음을 보살피려 힘을 쏟고 있다.

문화적 토대도 잘 다져진 편이다. 2004년에 개관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의 예술 감성을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안산문화재단이 매년 준비하는 '안산거리극축제'는 올해 13년째로, 해마다 전 세계 예술인들이 안산을 방문해 환상적인 거리극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축제가 가능한 동인은 안산을 둥지 삼아 활동하는 크고 작은 문화예술 단체들, 생활문화 개선을 위해 애쓰는 활동가들의 열정이다. 그에 비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지원 센터,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그룹들은 적은 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개관한 청년큐브, 청담 등의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청년 그룹들이 자립적으로 꿈을 펼치기 위해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반갑다. 청년큐브는 안산시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공간이다. 공실 상가 등을 임차해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서울예대의 IT, 문화예술 콘텐츠 등 각 대학의 특성화된 역량을 연계해 공간을 특화하면서 양 대학 인근에 청년큐브 예대캠프(월피동 광덕시장), 한양캠프(사3동 한양타운)를 마련했다. 이 캠프에는 전체 30실에 30팀 총 102명이 입주해 교육, 컨설팅, 공동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다. 특별한 선물을 제작하는 아비엔토(글림), 디자인, 출판 등의 창작 활동으로 창업을 꿈꾸는 meet&er(미트너), 연극과 예술교육을 준비하는 연극과 마을, 공연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봉사하는 한훈식노트 등이 대표 단체다.

청담은 안산YMCA에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인큐베이팅 공간이다. 안산 YMCA 사무실을 개축해 공용공간을 마련한 다음 청년 예술인들에게 무상으로 지원, 현재 디자인, 사진 등 청년예술인 6팀이 월세나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고 각자 작업도 하고, 지역 활동도 이끌며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리드어스도 청담과 인연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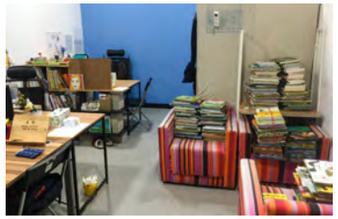
한 권의 책이 한 명의 생각을 살립니다

2015년 7월에 설립하고 12월에 출범식을 가진 리드어스는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딱 1년 된 신생 청년 창업 팀이다. 중고책을 기부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재판매한 뒤, 판매 수익금을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복지에 사용한다. 이들의 슬로건은 '한 권의 책이 한 명의 생각을 살립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전도사 사역의 일환으로 YFC(십 대 선교회, Youth for Christ) 선교 단체에서 청소년 간사로 6년간 활동한 안용재 대표는 가정이 깨어져 그룹홈에 거주하게 된 청소년들을 보다 '깊이' 돕고 싶었다. 상처가 많은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은 '꿈'을 찾아 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특히 책을 통한 교육 활동이 그 꿈에 다가갈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리드어스(Read Us)'를 창업했다. 리드어스는 지난해 9월까지 청담에 입주해 있다가, 10월에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광덕산안길 20 3층, 이곳에 청년큐브 예대 캠프도 있다.) 입주 자격을 얻어 새 사무실을 꾸렸고, 올해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내실을 다지려 한다. (이하 일문일답)

최근 안산에서 젊은 창업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언제부터 창업을 계획했나요?

(안용재, 이하 안)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가치관이 심어졌고, 그런 단체를 만들고 싶은 꿈이 생겼죠. 그래서 시작된 게 리드어스예요. 교육을 하고 싶다거나 책을 팔아 보고 싶은 동기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죠.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니, 꿈이 없더라고요. 옷을 준다거나 음식을 주는 식의 물질적 후원은 많은데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움직임은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시작했고, 콘텐츠를 구상하다 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봉사 차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계기가 있었나요. 안 신학을 전공하고 전도사 사역을 지금껏 해 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안산 YFC에 참여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신앙, 리더십 교육, 상담 등의 봉사를 도왔는데,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곳에도 도움의 빈부차가 있어서 도움이 꼭 가야 될 곳인데 소외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죠.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웃음) 무지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당연히 후회는 안 합니다.



▶ 작년 10월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로 새로 입주한 리드어스 사무실 모습. 한 켠에 기부받은 책이 잔뜩 쌓여 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목적실에 마련된 기부 책 보관실, 현재 3천여 권이 보관 중이다. 그룹홈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순서대로)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 우리는 직원들을 간사라 칭해요. 대표인 나는 간사님들 코칭해 주고 가치관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죠. 업무는 크게 책 판매와 기부 파트로 나뉘어요. 판매 파트는 조송현 간사가 맡고 있고, 이분이 기부 도서 관리와 소비자 판매 전략을 짜죠. 또 유통을 맡아 수익금을 냅니다. 기부 파트는 이명주 간사가 맡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나누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아요. 디자인도 직접 하고, 조송현 간사는 내가 교회 청년부 전도사일 때 제자였는데, 가치관도 좋고 일찍 철이 들었어요. (웃음) 변화에 갈증을 느끼는 청년이어서 같이 해보자 했죠. 둘이 하다 자원봉사자로 이명주 간사가 워킹 홀리데이를 막 마치고 나서 지원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청담에 입주했다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사무실을 옮겼어요.

안 원래 직원이 네 명이었는데, 넷이 쓰기엔 좁아서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책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했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지원 경쟁률이 꽤 셌어요. 면접도 보고 PT도 해서 어렵게 붙었죠. 입주하고 보니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센터장이 다목적실을 내주어 멤버끼리 나누어 관리하던 책을 한 곳에 보관하게 되었어요. 현재 3천여 권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딱 1년 됐네요. **안** 아직 배울 것도, 할 것도 너무 많아요.

오래전부터 봉사에 관심을 가졌나요.

안 나도 몰랐는데, 지나온 시절을 돌이켜 보니 학창 시절부터 다른 이의 감정에 잘 공감했어요. 불쌍한 것을 외면하지 못했죠. 마음이 여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이더라고요. (웃음) 고등학교 때 꿈이 없는 친구들 상담을 곧잘 해주었어요. 어릴 때는 꿈이 직업이니까, 너는 이런 직업이 어울려, 말해 주곤 했어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쌓여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나 봐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계기는 뚜렷이 없는데, 남들과 공감하고 꿈 찾아주는 일을 즐거워했어요. 부모님이 창업을 지지하시나요. **안** 70퍼센트는 지지해 주셔요. 하지만 아무래도 걱정이나 염려는 늘 있으시죠. 올해 결혼도 해야 해서. (웃음) 돈은 많이 못 벌어서 걱정하시지만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며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나이 대면 대개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 생활하고 월급 받아야 하는데, 봉사 단체 대표다 보니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죠. 사실 신학 쪽으로 가는 것도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부모님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 청담에서 발표하는 모습, 책 기부 증정 장면과 증정받은 책들(순서대로)

한 권의 책이 한 명의 생각을 살립니다

'같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콘텐츠

안산에서 활동 기반을 닦은 이유는?

안 2001년부터 안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죠. 어땠나요? 지금 그룹홈이라는 단체를 돕고 있어요. 가정형 그룹홈인데, 최대 일곱 명의 고아들이 같이 모여 살아요. 안산에 꽤 오래 살았는데, 그룹홈이란 단어를 들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리드어스 활동을 하면서 그룹홈을 알게 되었고, 안산이 전국에서 그룹홈이 제일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죠. 청담에 입주하기 전에는 우리 집을 사무실처럼 써서 우리끼리만 어울렸어요. 그런데 청담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을 만났고, 아, 생각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깨어 있는 청년이 정말 많구나 실감했어요. 사실 소망이 있을까 생각한 적도 많은데, 청담에서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청년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문과인간들, 홍차부부사진관 팀과 친하게 지내요. 이 팀들과는 자주 교류하고, 홍차부부 팀과는 워크숍도 같이 갔어요. 청담이 물리적인 공간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죠. 많이 배웠습니다.

중고책이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 일단 내가 중고책을 사랑하는 고객이라 평소 관심이 많았어요. 최근 들어 중고책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어요. 일인가구 증가나 도서 정가제 등 사회적 제도가 중고책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사업으로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웃음) 사람들에게 막연히 구두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우리의 가치를 텍스트로만 전달하면 대개 무관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품에 우리의 가치를 포함시켜서 소개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그때 중고책이 떠올랐어요. 또 독서 지도를 하다 보니 책과 연관 있고, 책을 사는 분에게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았어요. 사실 중고책 기부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아니었어요. 중고책을 애용하는 분들은 책을 모으지 않고 읽고 되파는 경우가 많아요. 책을 되팔면 헐값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헐값 받을 바에는 의미 있는 곳에 책을 기부해 주세요.'라고. 감사하게도 많이 기부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부 받았나요. **안** 1만여 건 정도. 일부는 분당재생병원 환우와 어린이들, 그룹홈에 기부하고 일부는 판매했어요. 현재 남은 재고가 3천여 건 정도 돼요. 리드어스 중고책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워낙 인지도가 없어서 지금은 유명 중고책 사이트에 미니 숍으로 들어가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어요.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네 곳의 인터넷 중고책방에서 책을 판매 중입니다. 네 곳에 같은 책을 올리고 한 곳에서 팔리면 세 곳에 품절 통보를 하죠. 우리의 꿈은 안산에서 우리들만의 책방을 온, 오프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자금 0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재정이 없어요. (웃음) 엄청 고생했겠어요. **안** 지금도 인건비가 교통비보다 조금 더 주는 정도죠. 최저임금도 못 줘요. 활동가로 함께 봉사하고 있어서 운영이 가능한 거죠.

올해 목표는?

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이 활동을 꾸준히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도전하고 싶어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면 인건비나 사업비 지원이 되니까 이 사업을 좀 더 멀리, 오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 같아요. 2016년에는 공모전에 많이 나갔어요. 경험도 해보고 네트워킹도 많이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의 본연 업무인 기부와 판매 쪽 일에 소홀했어요. 올해는 본질로 돌아가 일에 충실하자는 생각이에요. 프로세스를 탄탄히 하고, 살림에 더 많이 신경 쓰려 해요.

봉사와 사업은 상반되는 것도 같아요. 어려운 프로젝트 같고요.

안 사업을 하려면 냉정하고 결단력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웃음)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영리와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죠. 사업가는 봉사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공식, 영리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깨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업가들은 돈을 좇기보다 사회적 가치에 더 방점을 두었죠. **안** 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돈과 지위에 더 가치를 두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더 도전할 만한 가치인 것 같기도 해요. 어디서 중고책 기부를 해 주나요. **안** 대체로 개인이 많이 기부하고, 단체를 뽑자면 독서 모임과 교회예요. 올해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전국의 독서 모임들이 봄이니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것, 또 독서 모임과 교회를 연계해서 우리의 가치를 나누며 책이나 재정 등의 기부를 받자. 그래서 요즘은 독서 모임과 교회를 자주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공감하며 선뜻 기부에 응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문화는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구, 수단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이웃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도구, 너와 내가 '같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우선 실제적인 경영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의 문제, 리더십의 어려움, 인력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멘토링이 필요해요.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사실 뜬구름 잡는 교육들이 많아요. 보다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동가들이 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비가 필요해요. 현재 지원하는 재정은 대부분 사업개발비, 홍보비 등이고,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개인이 지원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잘 분별하고 심사하여 해결하면 되죠. 실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비가 꼭 필요합니다.

문화재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안산 YMCA의 문화학교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는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구, 수단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이웃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생, 문화는 너와 내가 '같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책이라 함은 나의 지적 갈급도 채워 주지만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 리드어스 사무실 한 켠에 기증받은 책들이 쌓여 있다.
이제껏 1만여 권 정도 기증을 받았고, 그중 3천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가치를 정리할 때면, 약한 자가 함께 설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겠구나 생각하죠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가치를 정리할 때면, 약한 자가 함께 설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겠구나 생각하죠. 그룹홈 아이들 중에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성폭행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상처인 줄도 모르는데, 상처에 기인하는 이상 행동을 보일 때 가슴이 아파요.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상처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설에도 세뱃돈도 못 받고, 친척집도 가지 못하고… 그런 날에는 먹을 것 사서 찾아가서 놀아 줘요. 봉사활동을 하면 참 힘든데 그것이 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죠. 꿈이 없거나 왜 사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 웃으며 함께 살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웃음)

고백건대, 리드어스 안용재 대표를 만나기 전과 후의 마음이 달라졌다.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기에는 지금 사회가 잿빛 일색이기에, 힘든 이야기나 푸념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이들은 훨씬 더 멋지게 열정을 바치는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그것에 대한 한계와 가능성을 자립적으로 '구성'하며 긍정적으로 대비하고 있었다. 청년, 이렇게 근사하구나. 새삼 느끼며 그들을 만난 뒤 집으로 가는 발걸음에 리듬이 맞춰지고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초심은 이런 거구나. 또한 함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힘이 생기는구나. 리드어스의 장점을 꼽자면, 이웃과 함께 누리고 나누고 돕는 삶을 사업의 중심축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현실의 이익과 실리보다 '가치'를 활동의 원천에 놓고,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중고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각을 살리려는 리드어스, 올해는 살림살이가 훨 나아지기를 힘껏 응원하고 지지한다.

리드어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http://readus.co.kr

#S1-02 안양 관양동 스펑키엘 디자인랩
윤경숙, 차주협

생활의 문화를 짓는 건축가들

| 김진주 시각 작가

▲ 스펑키엘 디자인랩 전경과 윤경숙, 차주협 공동 소장의 인터뷰 모습. 통 유리창 옆으로 테이블을 놓아 대화를 나누면서 골목 풍경을 관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

최근 우리는 한 도시, 어떤 동네에서 잊히고 버려진 장소를 재구성해 공동체적 활동을 모색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어렵지 않게 목격한다. 이러할 때 건축, 건축가는 인과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서로 밀착한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활력을 잃은 곳을 예술가, 문화 기획자, 주민들이 활동할 만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을 고치거나 다시 짓는 일이 먼저고, 그렇게 바뀐 건축적 환경을 바탕으로 그 후에 벌어질 문화·예술 활동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된 그곳이 다시 문을 여는 순간, 정작 건축가들을 만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 동네 사람들 만나길 즐기는 건축가들이 있다. 안양시 관양동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골목, 그것도 길에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되는 1층에 문방구 쇼윈도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통유리창 사무실, 스펑키엘 디자인랩의 윤경숙, 차주협 소장을 만났다. '변화무쌍한 코끼리'라는 뜻의 'Spunky Elephant(스펑키 엘리펀트)'를 줄인 사무실 이름답게 이들과의 대화 또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상력의 활기가 가득했다.

건축가들이 만들고 싶은 문화적인, 예술적인, 삶의 이벤트

지역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건축가는 만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낙후 지역 재개발 혹은 유휴 공간 레노베이션 같은 큰 도시 계획도 많고, 인간 활동의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건축은 중요하죠. 이에 비해 건축가는 저 벽 너머, 저 방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펑키엘 디자인랩은 너무 잘 보이는 1층에 있네요. (웃음) 건축가로서 '동네'라는 공동체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차주협, 이하 차) 건축가들이 1층에 잘 안 계세요. 비싸니까. 저희는 작정하고 1층만 찾아다녔죠. (웃음) **(윤경숙, 이하 윤)** 1층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 스펑키엘? 여기는 뭐 하는 데야?" 궁금해하고, 애들은 와서 저희가 걸어 놓은 패널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차** 시장처럼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고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는 곳에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윤**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독립하면서 스펑키엘 디자인랩을 운영하게 됐어요. 2012년부터 진행한 안양 구도심 답사 때문에 마치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막 시작이에요. 어떤 문화 기획을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 것도 아니었고요. 우연한 기회였어요. 서울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쉬면서 안양, 내가 사는 이 도시는 어떤 곳일까 생각했어요. 전 어려서부터 안양에 살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얽혀 있기도 하고요. 안양의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인 덕천마을이 통째로 사라진다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답사를 하자!' 해서 구도심 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서울과 많이 다른 안양의 모습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스펑키엘 디자인랩은 건축, 인테리어, 도시 연구, 전시 기획 등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공간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삶의 터전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건축적 제안을 하며, 그 공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 스펑키엘 디자인랩 블로그 소개글에서

▲ 통유리창 옆으로 테이블을 놓아 대화를 나누면서 골목 풍경을 관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

서로 다른 관점이 교환되는 도시 탐사, 동네 답사

두 분 뵙기 전에 스펑키엘 디자인랩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답사가 건축가로서의 태도를 보여 주고, 또 거의 모든 활동에 도시 답사/탐사가 기초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어요. 서울은 수백 년 도읍지라는 긴 역사가 있지만, 안양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도시는 답사할 만한 매력을 찾기 어렵지는 않았나요?

윤 당시 한창 주거학, 역사학 관련 책을 읽을 때였는데 모든 기록이 서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안양 건물은 서울과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덕천마을은 60~70년대 노동자들이 정착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한옥에서 아파트로 가기 전의 다양한 주거 형태가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마치 근대 주거 건축 박물관 같았어요.

답사에 참여한 분들의 성격이나 배경도 각자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나요?

윤 경로를 미리 체크해서 정하고 지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돌아다니는데, 지역에 대한 기록물이 많지 않아 내용 검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사적 기록이라는 전제로 기록을 해요. **차** 한번은 나무를 주제로 답사를 했어요. 어떤 신도시를 봐도 녹지가 건물을 그냥 둘러싸고 있거나, 녹지 앞에 바리케이트가 쳐 있거나, 관상용이에요. 여태까지 도시 계획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건물이나 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예요. 자기가 뭔가를 가꾸고 싶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가꾸거든요. 녹지가 없어도 고무 통 화분을 수십 개 놓죠. 답사하면서 건축가들이 생각했던 게 오만하고 인위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동네 문화를 즐기고 싶은, 동네를 향해 열려 있는 건축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 장사, 인테리어 업자는 만나기 쉬운 반면, 건축가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두 분은 '동네 건축가'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차 건축 행위는 집을 짓는 거 말고도 많아요. 이 벽에 문을 내고 싶은데 이 문을 낼 수 있는 건지, 내면 어떤 모양으로 내고 싶은지. 작은 고민들을 같이 하는 것도 건축가의 일이죠. **윤**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사무실 독립해서 처음에는 자본금이 많지 않고 시간도 절약해야 하니까 집에서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동네에 정착한 거죠. 그리고 저는 '스스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무실 전에, 2012년에 같은 이름으로 동네에 갤러리 카페를 먼저 열었어요. 카페에서 업무를 보고 전시를 하면서 여러 작가들과 돈독해지고 작품 판매도 했어요. 자주 오시는 손님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동네엔 이런 갤러리 카페가 있어!" 하고 자랑하세요. 그림이 안 바뀌면 물어보는 단골도 생기고요. 예술을 같이 누리는 게 좋았어요. 저희가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문화적 욕구는 큰데 그걸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 스스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카페 스펑키엘을 통해 동네에서 문화예술 즐기기를 현실화할 수 있었고 동네 건축가로서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었어요.

▲ 스펑키엘 디자인랩 블로그 중 관양동 도시 답사 게시물. 스펑키엘 디자인랩의 주축인 두 건축가와 안양에서 활동하는 시민기자, 문화 기획자, 구술 채록가, 예술가 등이 함께 모여 도시 답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이 동네, 우리의 건축적 문제

건축가로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건축(가)의 '우리'는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라는 획일적 공동체 규정에 반대할 수도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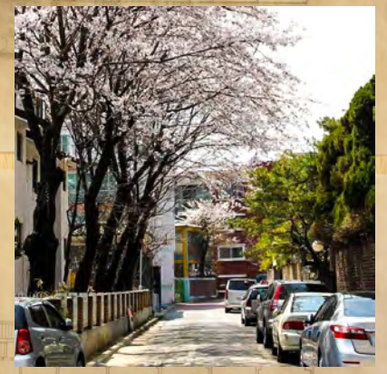
윤 저만 해도 물론 건축이 직업이긴 하지만 예술, 영화, 만화도 좋아하고, 관심사가 다양하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걸 공유하진 않더라도 각자 가진 다양한 관심사의 접점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접점의 관계를, 공동체를 만들려면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 활동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나?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덧 단단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우리' 속에서는 어떤 건축적 문제가 벌어지고 있나요?

윤 문제요? 문제 엄청 많죠! **차** 일단은 저 길가에 주차된 차량도 문제고요. 저 코너! 이런 것도 다 건축적 문제인 거 같아요. 30년 전의 건물은 당시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겠죠. **차** 이 도시, 안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획일화예요. 덕천마을도 사라지고 아파트가 됐고, 안양에 매각된 큰 부지들이 몇 개 있는데 다 아파트가 될 예정이에요. 답사를 하면서 봤던 구도심이 갖고 있는 삶의 다양한 형상들은 이제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아파트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시에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섞여 살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 동네에서 자랐는데, 단독주택도 있었고, 단칸방에 세 들어 사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파트에 사는 부자 아이들과도 친구를 하고 그렇게 커뮤니티를 이해하면서 자랐거든요. 똑같이 획일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받는 게 개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건축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의 건축적 문제에 관해 건축(가)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동체가 건축(가)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건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윤 건축가들과 함께하면 집 고치기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잘못됐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과 잘 맞는 건축가와 만나 자기 공간을 바꿔 나가면 어떨까요?



▶ 〈길에서 놀자!〉 프로젝트를 하며 찍은 사진들. 관양동 일대에서 진행됐던 〈길에서 놀자!〉 프로젝트는 아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들이 예술가와 생태 전문가와 도시를 답사하며 나무들에 관해 배우고 놀이터와 마을을 상상해 보는 작업이었다. 이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동네 길가에 등나무를 시작으로 쉬나무, 가이즈카 향나무, 주홍날개꽃매미가 좋아하는 가죽나무, 하늘하늘 이태리 포플러, 벽오동, 목련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중국단풍, 홍단풍, 청단풍, 공룡시대부터 살았다는 메타세콰이어, 올릉도 출신 섬잣나무, 튤립나무 등 너무나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리고 마을 사람에 의해 죽거나 형태가 변형된 나무들도 많이 눈에 띄더라는 성찰을 하기도 했다.

▼ 사무실 벽면 한쪽 자리에 〈중전뺏데리골목〉 프로젝트 당시 그렸던 명학시장의 건물 도면이 걸려 있다. 〈중전뺏데리골목〉은 카센터, 노래방, 술집, 작은 도서관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의 한 구석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과 나무와 살아온 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골목길을 찾아 그려 보고, 함께 읽고 생각할 거리를 꺼내 보는 작업이었다.

골목길에서 놀자,
놀이터에서 놀자,
도시에서 놀자

〈길에서 놀자!〉 프로젝트를 보면 주로 아이들이 참여자였고, 마을 풍경 관찰하기, 장소/지도 읽고 만들기, 생태/자연환경에 관한 지식 구하기 등의 활동에 중점을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찾으려 한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윤 건물 밖, 도시를 돌아다녀 보니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공간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해요. 건물 밖에 나와서 골목을 누비면서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술가들이랑 하면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차** 키즈 카페도 그렇고, 노래방, 찜질방. 우리나라가 사실 방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윤 소장님이 체재하던 뉴욕에는 사람들이 도시를 접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더라고요. 집 밖에 문 열고 한 블록만 나가면 갤러리가 있고, 뮤지엄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 공원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나 있을까요? 관양동에 놀이터가 열 몇 군데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활용이 안 돼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윤 동네 소규모 부지에 만들어진 이런 놀이터를 저희는 '포켓 놀이터'라고 해서 지도 위에 빨간색 점으로 표시했어요. 도시 계획에서는 놀이터로 지정돼 있었겠지만,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어요. '다보람 놀이터'만 빼고는 다 기성품 가져다놓은 똑같은 놀이터예요. **차** 놀이터의 구조나 위치도 문제예요. 놀이터가 불법 주차된 차들로 둘러 있어요. 테두리에 나무들을 너무 빽빽이 심어서 안이 보이지도 않아요. 놀이터까지 시선이 확장돼서 들어갈 수 있는 이상적인 놀이터가 없었어요. **윤** 아이들이 어떤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지 부모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상상하는 놀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 "20년 후에 내가 이 동네 놀이터를 바꿔 보겠다."는 아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 〈길에서 놀자!〉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만든 관양동 놀이터 지도. 넓지 않은 동네에 모양새가 비슷비슷한 놀이터 수십 개가 있다고 한다.

골목길에서 함께 충전하기

〈길에서 놀자!〉 프로젝트는 다른 기획자, 예술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누구는 꼭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 텐데, 서로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윤 저희 단체 이름이 '골목길'이에요. 함께한 예술가 분들은 대부분 동네 친구들이에요. 종이모형작가 장형순, 사진작가 김준, 임진세, 그리고 김동민 작가는 지역 예술가 분들이에요. 나무 전문가 김학송 선생님은 〈충전 빳데리 골목 프로젝트〉의 인연으로 〈길에서 놀자!〉에도 참여해 주셨고요. 판을 짜는 일은 제가 하고 작가 분들은 살을 더해 주었어요. 이전에 함께 답사했던 경험이 있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홍보 부분도 동네 친구가 맡아 참가자를 금방 모을 수 있었고요. 무슨 일이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길에서 놀자!〉 이전에 사적인 친밀도가 있어서 함께 신나게 길에서 놀 수 있었죠. 힘든 부분은 지원 사업이라 정산 작업이 어렵긴 했죠.

차 제가 볼 때는 불을 지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뭔가 재미있을 거 같아."라고 하면 또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윤** 사실 고통스러워요. 결과물에 대해 저희는 비전문가가 하는 걸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작업을 하든 개인적 성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랑 이걸 해서 좋아.' 이런 것보다는 '이걸 하면 조금은 힘들 거야.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겠지.'라는, '시작점이면 끝점은 다르다.'는 믿음, 그런 건 있을 거 같아요.

> **'문화예술단체 골목길'은**
> **지역에 대한 애정과**
> **도시 연구를 바탕으로**
> **문화예술을 통해 사라져 가는**
> **골목 문화를 활성화하고**
> **이웃을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 **예술가 모임입니다.**
> - 골목길 소개글에서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

〈충전빳데리골목〉은 어떤 동네에서 펼쳐졌나요? 카센터가 즐비하고, 사이사이 노래방이 있는 곳이죠? 주민들 반응도 궁금하고요.

윤 굉장히 재미있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이야기너머'가 주관을 했어요. '밧데리 골목'으로 불리다가 이제는 카센터가 사라지고 '바-골목'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도서관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흥미로워요. 동네 사람들 인터뷰해 보면서 마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다는 면에서 구술 채록을 중시하는 이야기너머를 굉장히 존경해요. 간소하지만 전시 오픈 때에는 이야기너머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지체장애아들, 학부모들이 공연을 해 주셨어요. 주민 분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 사람 알아, 여기는 우리 옆집이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니 좋았어요.

▶ 〈충전빳데리골목〉 전시 소책자에 실린 전지 작가가 그린 명학시장.

최근 스펑키엘 디자인랩 활동 중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 관한 작업이 두드러진다. 사십 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와 유치원생 아이, 그리고 육아와 살림을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모인 가족을 위한 아파트 내부 공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순환하는 집'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젊은 부부와 자녀와 할머니가 함께 살 단독 주택을 짓는 작업에는 '온기 있는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온기 있는 집'의 단면 모형 뒤로 공간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고민을 담은 다른 작업들의 스케치도 보인다.

다시 찾을 공유 마당

〈충전빳데리골목〉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침체되어 보이는 한 동네에 환경과 생태, 생활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공동의 움직임을 모색한 활동이었지요. 프로젝트의 주된 배경인 명학시장은 어떻게 찾게 되었나요?

차 명학시장은 저희가 안양에서 찾은 보물 중 하나예요. 주민들과 독서 모임을 하고 마을 답사도 하면서 그곳에서 명학시장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건물을 발견한 거죠. 명학시장이야말로 주상복합이에요. 아파트 3층 대문 앞에 마당이 있어요. 앞마당에서 장도 담그고 김장도 하고 식물도 키우고. 1980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나 공동 주거를 짓게 되면 명학시장처럼 디자인해야겠구나 싶었어요. 당시만 해도 집에 당연히 마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파트에 투영된 거죠.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는 옆집과 굉장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데, 문을 열면 마당이 보이고 앞집에 누가 사는지 볼 기회가 없잖아요. 만약 그런 일들이, 그런 이벤트들이, 공유 마당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다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공동체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윤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공동체가 강했던 주거 환경에서 공동체가 거의 만들어질 수 없는 주거 환경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또다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자본을 퍼붓고 있잖아요. 신도시 계획에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집과 다른 공간을 단절하는 거예요. 어딘 학원만 있고, 식당만 있고, 펜스도 쳐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상상을 하죠. 저기를 허물어서, 길을 내서, 저기 저층부는 다 상가를 만들고, 그리고 위에 털고, 날리고!

◀ 건축가들은 새로운 공간을 앞서 상상하고 계획한다. 도시라는 큰 범위나 공공적 공간을 염두에 둔 건축 계획은 일부러 긴 시간을 두고 디자인과 실행을 숙고해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스펑키엘 디자인랩은 안양교 인근에 공공 화장실과 쉼터를 제안했다. 이러한 건축가의 제안은 계획만으로도 공동체에 어떤 화두를 던져 준다.

건축가로서
짓고 싶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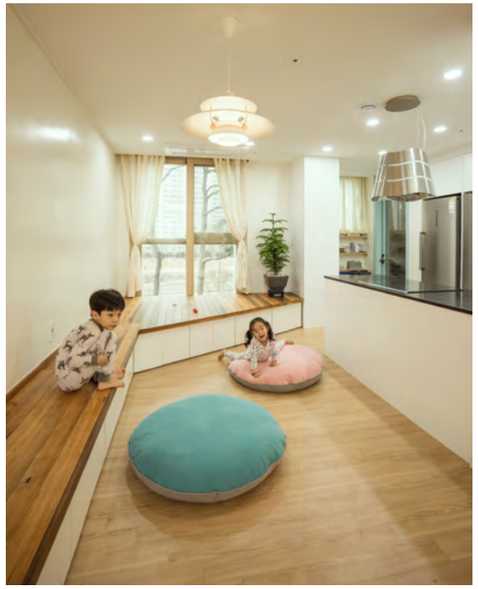
이전의 프로젝트에서 문화 기획자에 더 가깝게 활동했다면, 스펑키엘 디자인랩 이름을 걸고 '건축가로서' 공동체의 문화,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고 실행하려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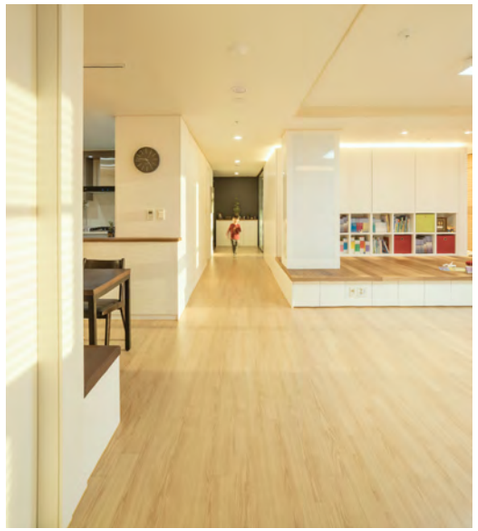
윤 우리 건축가들이 상위 1퍼센트를 위한 건축이 아니라 좀 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내 친구들, 서민들, 중산층, 그런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어요. 개인 주거든 공공 건물이든 생활이 단순히 그냥 편해지는 게 아니라 생활이, 일상이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고,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건축이 중요해요. **차**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예전에 들었으면 굉장히 싫어했을 텐데, 이젠 동네 건축가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건축적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윤 하고 싶은 활동 중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시작도 못 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집을 통한 자서전'이에요.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면 업적 위주로 쓰잖아요. 저는 사람의 인생을 집이라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과 얽힌 자기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공간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다 집으로 갔잖아요. 친구 집으로, 누구 집으로. 집이라는 공간은 손님이 오면 저절로 가꾸게 돼요.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본인들의 개성을 잘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이 마치 그 사람 같죠. 그렇게 집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와 추억을 담고 싶어요.

건축가로서 미래의 결속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차 오프라인 관계라 할 수 있는 결속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스마트폰이 눈 속으로 들어오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 같아요. 앞으로 결속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모르는 정말 뭐 상상도 못 할 방법이나 차원으로 올 수 있어요. 좀 만화적인가요? **윤** 너무 멀리 갔어. (웃음) 건축가적 상상이네요. 공학적이에요. (웃음) **윤**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상호작용이 결속을 만들고, 그것들이 교차하면서 또 다른 결속이 생기죠. 이런 결속이 일어날 수 있는 판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마을에서, 나와 이웃의 집에서 삶의 이벤트를 짓는 스펑키엘 디자인랩의 건축 프로젝트 이미지. 사진은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집'(상, 중), '순환하는 집'(오른쪽)

#S1-03 수원 행궁동 피큐알(PQR) 천인우

생활권을 재생하는 디자인

| 김진주 시각 작가

피큐알(PQR) 공간 전경.

수원이라는 도시는 오래된 성곽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곳을 '역사 도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꽤 나이든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곽은 한국전쟁 이후로 새로 보수된 부분이 많다. 성곽의 옛 돌을 받치고 있는 새 돌처럼 이 도시에도 청년들이 꽤 많다. 대학 캠퍼스도 많고 이들을 위한 문화 활동도 적극적으로 유치된다. 경기청년네트워크, 따복공동체, 청년몰 등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을 찾는 제도적 프로그램이 최근 수원을 주 무대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을 부르는 공공적 움직임은 생활 속에 잠자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살려 내는 활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방치되었던 공간을 재구성한 곳을 작업장으로 삼아 그림도 그리고, 물건이나 책도 만들고, 탐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주로 '청년'이 호명되기 때문이다. 여기엔 아무래도 노년보다는 청년을 생동하는 상태로 손쉽게 규정하는 탓도 있다.

도시는 왜 젊은 활력을 필요로 할까? 지금은 보살핌 없는 노년도 문제이지만, 좌절하는 청년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에게 도시 재생이 또 다른 책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청년의 발언으로 전해 보려 한다. 수원의 청년들을 만났던 때는 겨울이었다. 겨울을 죽음의 은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시기 숨을 고르고 자신을 찾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 겨울처럼 재생을 위해 필요한 시간, 즉 완성된 모습보다는 준비하는 상태, 긴장과 휴식 속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섣부르지 않는 태도를 청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수원 행궁동에 자리한 작은 책방이자 디자이너들의 창작 공간 '피큐알(PQR)'의 천인우 아트 디렉터를 만났다.

천인우 디렉터는 이런 인터뷰가 오랜만이라고 했다. 그는 서점 '피큐알북스(PQRBOOKS)'를 작년(2016년) 봄 오픈하고 나서는, 지역 신문, 문광부 웹진에서도 취재를 오고, 찾아 주시는 분이 많다가 겨울이 되니까 아무도 안 찾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수원 행궁동에서 책방을 하는 이유, 독립출판에 대한 시각, 디자인 활동 이력, 소소한 에피소드에 관한 궁금증은 그가 이미 나눴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참고로 독자들은 생소한 철자로 구성된 이름의 의미를 가장 먼저 알고 싶을 텐데, 이 인터뷰들에 따르면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파벳 O, P, Q, R, S, T, U 중에 세 가지를 골랐을 뿐이라고 한다. * 별 뜻이 없다고 하니 더 궁금해진다. 인터뷰 말미에 흔하게 등장하는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에 '문화는 여러 생물종처럼 다양한 성향의 창작자들이 살아가는 정글 생태계'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천인우 디렉터의 생각을 더 들어 보고 싶어진다.

* PQR에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소통하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한다. 박찬학, 『우리동네: PQR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우학교 역사교사, 당시 이우고등학교 2학년 안혜림, 류호림, 최지수 학생이 쓴 고2 수업 '사회체험: 도시재생' 프로젝트. 2016. 8. 29. https://brunch.co.kr. 다른 인터뷰들 출처는 다음과 같다. 천한얼, 『이곳에 우리의 모험과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피큐알북스(PQRBOOKS)』, 인문306°, 2016. 10. 17. http://inmun360.culture.go.kr. 김지수, 독립 디자인컨퍼니&책방, PQR 인터뷰, 알럽인디, 2017. 2. 27. http://iloveindi.com.

헬로, 피큐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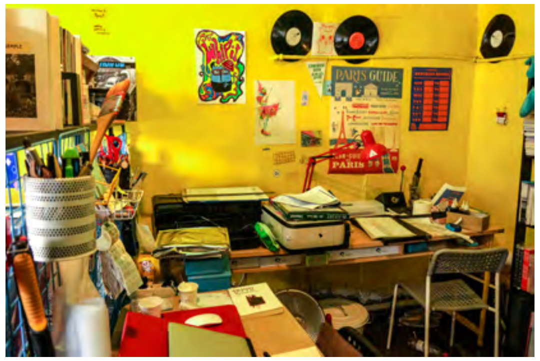
피큐알은 수원에 있는 독립출판사이자 서점이자 디자이너 스튜디오로 꽤 알려졌지요? 명함에는 '피큐알' 옆에 '크리에이터스 라벨(creators label)'이라 썼네요. 새로움을 좇는 창작자로서 한 자리를 늘 지키는 서점 주인 역할이 답답하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 피큐알은 즐거운 상상으로
> 변화하는 세상을 디자인하는
> 크리에이티브 컴퍼니입니다.
> 반갑습니다.
> 우리의 모험과 당신의 이야기.
> -피큐알 블로그 소개글에서

(천인우, 이하 천) 수원에서는 터줏대감 같아 보이지만, 독립출판계에서는 갓난쟁이죠. 수원에 오기 전에 서울 신사동에 3년 정도 있었고, 짧게 외국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저희 멤버들은 대체로 박혀 있는 걸 좋아하죠.

천 피큐알에서 저는 주로 기획을 맡고 있고, 일러스트레이터인 요코, 그리고 디자이너 박가희 씨와 함께 일해요. 원래는 이 공간 전체를 서가로 썼는데 지금은 작업 공간과 서점 공간을 나눴어요. 작업 공간은 비밀 공간이에요. 집중해야 하니까요. 제가 저희 활동을 밖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지만, 에너지가 넘치게 뛰어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실은 내향적이라서(웃음) 추진력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저희가 좋아하고 바라는 태도는 유형의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정에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비록 서툴지라도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에요. 보통 디자인 회사에서 기대하는 그래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등의 전공자가 없어요. 저는 패션을 전공했고, 요코도 섬유디자인과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정체성이 저희 장점일 수 있어요. 컴퓨터 밖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죠. 제 아내이기도 한 요코를 처음에는 클라이언트로 만났어요. 명함을 파 달라고 하면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오더라고요. 고등어에 반짝이 붙이고, 자기 이름도 펠트로 잘라서 붙이고,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제가 기존에 생각 못 했던 것이었죠. 요코의 제안이 제 사고를 모니터 밖으로 전환시켰어요. 컴퓨터를 조금 만질 줄 아는 저와 아날로그 작업만 하는 이 친구가 만나서 협업을 하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피큐알이 시작됐죠.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오픈 페스티벌 일환이었던 〈비밀의 숲 원정대〉 포스터 원안도 요코가 펠트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 피큐알(PQR) 공간 내부.



▲ "저는 문지방에 올라와 있는 경계인이에요!" 피큐알의 또 다른 멤버 디자이너 박가희 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진에서 보이는 서가 칸막이 너머 자리가 그녀의 자리다. 작업 사무실에서 진득하게 작업에 열중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반대로 밖에 나가 활동하기를 즐긴다는 뜻이다. 짧지만 단단한 자기 발언만큼 반가운 인사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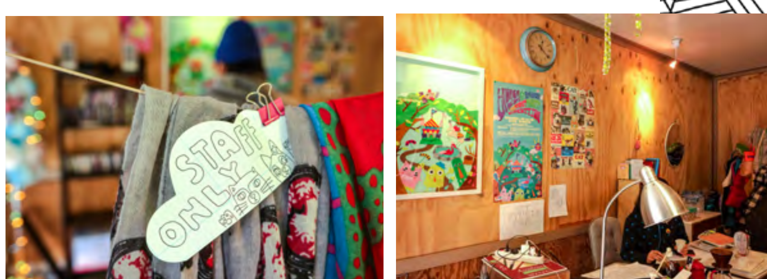
디자이너는 주로 클라이언트의 용도와 개성을 반영해서 작업을 하죠. 그런데 피큐알의 작업물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남한테 맞춘다기보다 자기 발언을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줘요. 시각적 특징이 정보를 배치한 레이아웃이 아닌, 개성 강한 한 사람의 머릿속 세계를 전해 주는 이야기 같아요.

천 저희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저는 그걸 끄집어내서 좀 더 정제된 모양으로 내보이는 거죠. 피큐알북스 바깥 벽 색깔이 핑크인데, 그게 저희의 정체성이자 요코의 세계관이에요. 요코와는 대략 5년 이상을 같이 작업했으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가죠. 작업을 수정해 달라 할 때도 많은데, 그때는 작업물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사랑받으려면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제를 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 '나는 너의 작업이 정말 좋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니까 가능한 거죠. 내부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강해요. 그게 깨지면 끝나요. 제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꿈은 거창해요. 그런데 몽상가죠. 그렇다면 또 다른 행동력, 강하고 추진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꼼꼼하다든가 장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밖에서 뭔가를 긁어 오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실패를 해도 내가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일과 개성

서로 의지가 되겠어요.

천 그걸로 버티는 거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어요. 책방 수입으로 운영되진 않지만,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요. 책 판매로 수입이 나려면 늘 여기 두세 명은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처럼 겨울에는 손님이 하루에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손님들도 가끔 오는데, 대부분은 작정하고 찾아오는 분들이에요. 블로그 활동을 하긴 하지만, 아직 정제되진 못했어요. 저희가 약한 부분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홍보 회사와도 함께 일해 봤고, 어떤 톤의 매너로 일하는지도 아는데, 저희 것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원하는 걸 좀 내려놔야 할 거 같고,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럴 시간에 다른 사람의 마케팅을 만져 주고 있죠. 그 말은 피큐알에 대한 일, 그러니까 자기 일의 비중이 많아지길 바라는 건가요? **천** 그렇죠! 클라이언트도 우리 일을 존중해 주길 바라고요. 그중 〈비밀의 숲 원정대〉 디자인은 가장 훌륭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잘해서라기보다도 우리의 개성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 작업실 쪽 입구에 형형색색의 천이 드리워 있다. '직원 전용(staff only)'이라는 문구에 귀여운 고양이 그림을 덧붙여 위화감보다는 친근함이 든다. 이곳에서는 피큐알의 마지막 세 번째 멤버 일러트스레이터 요코가 주로 작업한다. 공간 내부 한쪽 벽면에는 〈비밀의 숲 원정대〉 펠트 일러스트 작품이 걸려 있다.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캐릭터들의 얼굴 속에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여 보인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데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일은 어떤가요? 클라이언트 중에 수원에서 사업하는 청년들은 얼마나 되나요?

천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이 저희 주 고객이죠. 최근에 '존앤진'이라는 피자펍의 브랜딩을 맡았어요. 오픈한 지 며칠 안 돼서 계속 꾸미고 있죠.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지만 재미있어요. 이 일 하면서 수원에 요식업 공간들을 너무 프랜차이즈화하지 않고 디자인 센스가 있는, 각자의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거리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에서는 프로젝트를 해도 억지스럽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목적은 관광지 조성 프로젝트인데 '청년' 이슈를 끼워 넣는 식이죠. 청년들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인력 지원 등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 청년 클라이언트들이 피큐알의 친구, 동료인가요? 디자인 일의 매력이 고객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명함이나 홍보 전단은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알아주는, 말 통하는 디자이너를 찾게 되죠. **천** 친구보다는 더 강한, 동지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생각하는 가치에 동의해 주고 브랜드를 맡기니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프랜차이즈 하나 확장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친구들은 사람들이 뭐 하나를

▲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오픈 페스티벌의 〈비밀의 숲 원정대〉 포스터.

▲ 두 고양이의 모험을 담은 그림책 『풋 더 캣 다운』의 작업 과정과 일러스트. 아쉽게도 제작비 지원을 위한 텀블벅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길 바라본다.

▲ 피큐알이 디자인과 브랜딩 작업을 맡은 존앤진 피자펍의 로고.

사더라도 이 지역에서 구매하도록 이끄는 가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원에서 여기 화성행궁 동네가 '블루오션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수원에 오고 나서 다른 디자인 회사와도 협업해 봤고, 멘토링도 해 봤는데 저희와 생각이 달랐어요. 아직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을 만지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판단하더라고요. 교육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세대가 다른, 나이 든 디자이너들이었나요? **천** 젊은 사람도 그래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취업 위주의 교육을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디자이너라는 칭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오퍼레이터로 그냥 손과 발이 되어 주는 거죠. 선 하나를 2픽셀만 옮겨 달라는 주문을 실행하는 사람이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러고 있죠.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저조차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경계가 애매해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전시나 프로젝트 기획자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혼재돼 있어요.

생활 속 문화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지자체에서 '청년' 이슈를 끼워 넣기 하듯이, 공동체와 관계 맺는 여러 문화 정책들에도 '청년'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천 피큐알북스에서 운영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에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일정 부분 진행에 필요한 걸 보조하는 정도였지 공공사업으로 돈을 벌려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저희 본질은 크리에이티브죠! 저희 일은 콘텐츠를 만들어 대중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 활동, 지역 연계,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할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지역에 공헌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들어, 특히 존앤진 피자펍 작업을 하면서 지역 공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여기가 좀 더 매력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예를 들면, 이 책방은 집이고 동네에 나머지 다른 곳은 정원 같은 느낌이에요.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방법으로 꾸밀 수 있구나!' 싶은 거예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지속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요. 그 답이 '망하지 않는 맛집'이어도 나쁘지 않아요. 단순히 피자집이 아니라 테마와 콘셉트를 잡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배지나 티셔츠도 만들고, 온라인 판매 공간도 운영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게 하는 거죠. 브랜드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를 생각해요. 이 동네에 각자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겠다!' 원하는 분들이 오면 저도 편하게 맞이하고 편하게 상담해 드려요. 존앤진 피자펍 이후로 다른 문의도 오고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공간을 컨설팅 해주는 건데, 그게 오히려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청년들이 사랑하는 공간들이 늘어나면 다른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유입이 돼요. 노년들, 장년들의 공간이 되면 유입이 안 되죠. 늙은 분들을 너무 고립시키는 것 아닐까요? **천** 아니에요. 같이 있어 주면 좋다는 거죠. 어르신들 오는 공간도 매력이 있다면 다른 세대들도 같이 올 수 있죠. 유럽을 보면 100년 200년 된 빵집에 노인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가 오래됐건 아니건 간에 브랜드 정체성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죠. 여기는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 그게 가장 아쉬웠어요. 정체성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내고 싶어요. 상담할 때 늘 인테리어에 돈 쓰지 말라고 해요. 거기 다 돈 다 써 놓고 운영비 없어서 몇 달 못 버티고 가게 접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존앤진은 본인들이 페인트칠, 목공도 직접 하고 최대한 인테리어에 돈 안 쓰면서 했어요. 목공 같은 거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제가 공구들 빌려 주고 같이 톱질하고, 이러면서 비용을 많이 줄였죠. 그 비용으로 최소한 몇 달이라도 더 버틸 수 있잖아요? "돈 쓰지 마라!?" 급진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상대방도 먹고살 수 있을까요? **천** 그저 업자의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공간의 개성이나 정체성도 못 지켜 줄 인테리어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비슷한 여러 개 중 하나일 뿐이에요. '정체성이 딴 데랑 섞일 바에는 우리가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보자.'고 얘기한 거죠. 이게 옳다 그

▼ 출근길 표정이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피큐알북스를 찾은 손님의 미소 뒤로 보이는 책 선반 맨 위에 놓인 사진 액자는 먼저 기르다 하늘나라로 간 고양이를 기억하려고 놓은 것이다. 지금은 동네 할머니가 임시보호해서 마당에서 키우시던 두 마리 고양이를 몇 달 전에 입양해 책방에서 기르고 있다.

수원이라는 장소의 이유

일과 생활권이 합쳐지는 게 좋은 거죠. 서울 중심의 구도도 깰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입장을 밝히기에 불편한 측면도 있어요. 서울에 일하러 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집을 서울에 가지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하고요. 일을 수원에서 해도 놀 만한 데가 마땅치 않을 수 있고요. 또 규모의 문제도 있죠. 피큐알의 생활권도 이 동네와 일치되나요?

천 저는 1년쯤 전에 이 동네로 이사 했어요. 피큐알에서 걸어서 2분 거리예요. 아직까지 차가 없는데, 밤에 일하다 보면 차도 끊기니까요. 최근에 행궁동은 1층은 매물도 없다고 하는데 2층은 공실률이 꽤 돼요. 공방거리 쪽은 가게들이 새로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는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 비해 여기는 외딴 섬 같아요. 옆에 큰 교회도 있고, 사람들은 미술관의 '뒷면'이라고 인식하고요. 규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봐요. 수원은 인구로 따지면 거의 광역시급이거든요. 서울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됐어요. 저도 밀려난 사례죠.(웃음) 원래는 서울에서 파주로 갔어요. 파주는 너무 한적해서 일 년 동안 정신수양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너무 저기하지 말고 내려와라." 하셨죠. 여기는 할 일도 있고 제 고향이다 보니 이곳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알잖아요. 변한 모습에 대해 아쉬움도 있고, 예를 들어, 여기 광장을 만들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설렁탕집이 없어졌던 아쉬움이 있고, 그 아쉬움들이 남아 있으니까 정이 가요. 이 동네가.

"추억, 기억들도 있고, 활동하기에 수원이라는 사이즈 적당하다." 이렇게 정의하시는군요?

천 수원 사람들은 서울이 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서울 사람들은 수원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죠. 수원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서울에 가는 거죠. '이태원 경리단 길에서 뭘 봤다더라.' 하는 우월감을 SNS를 통해 표출하는데, 사실은 좀 슬픈 거죠. '이렇게 좋은 도시에 왜 모두들 특별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야 할까? 그나마 아닌 사람들은 인계동과 수원역으로 불리는 프랜차이즈화된 곳으로 꼭 가야 할까?' 형식적, 맞춰진 틀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소비 주권이 사라진 거죠. 행궁동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사전에 인구 유입 조사를 해서 위험 부담이 적은 곳을 찾는데, 그들이 들어오기엔 부적합하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더라도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늘어나면 그걸 알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저희 손님들은 어떻게 알고 다 존앤진을 찾아가요. 저희 손님들이 책 다 보고 "어디 갈 데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 "저희 책방 단골인 카페 원모어 가세요. 잘 데 없으면 공존공간 가세요."라고 말하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요. 연대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스크럼을 짜 놓고 여기 우리가 있다는 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서로 문화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연결하는 이런 공간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주변에 망한 공간은 없지만, 조금만 더 버텨 줬으면 좋겠어요. 공존공간은 더 확장하고 있고, 여기 어느 카페 사장님은 3년 전보다 매출이 세 배 늘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매년 100퍼센트 성장은 가능하겠다고 예측해요.

성장과 멈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디자이너라는 칭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 하나를 2픽셀만 옮겨 달라는 주문을 실행하는 사람이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성장하는 게 좋을까요?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되려면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천 그건 저희가 결정할 수 없으니, 희망할 순 있겠죠. 카페 원모어도 그렇고 존앤진 피자도 하루에 팔 양을 정해 놓고 운영하는데, 그런 공간도 있고요. 또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대기업이나 상업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사가 예측만큼 안 되면 거대 자본도 정리가 되겠죠. 그런 부침을 겪으면서 안 되면 안 된 만큼 소수의 인원이 사랑해 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공간들끼리 모였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여기가 반드시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웃음) 제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3년 있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될 시점에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유명한 디자이너 숍들이 새로수길이란 곳으로 빠지고 H&M 같은 대형 의류 판매점이 들어오고 나갈 때쯤에 그곳이 매력을 잃기 시작했죠. 그리고 월세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제도적으로 월 매출 얼마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못 들어오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규제는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라 시에서 못할 거예요.

규제는 어려워도 지역 당사자들이 일상적 정치 활동을 펼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인터뷰나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만들어 달라, 지원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 정책적 요구사항도 좋지만, 경제적 생태계에 관한 정치 토론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단순히 거대 상업 자본 '반대'가 아니라 자율적인 '자치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천 아직은 여기 그런 현상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약 프랜차이즈인 '새마을 식당'이 들어온다면 해볼 수 있겠죠. 마침 수원청년지원센터라는 곳이 생겼잖아요. 청년 소상공인 기반의 연대로 요구를 하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저희 세대가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저희는 경제 권력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 나이 때 아파트 사서 가족 꾸리고 애 둘 낳고 차도 한 대 굴리셨지요. 그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세대였다면, 제 주변엔 독신들이 더 많고 빚도 많아요. 기회를 차단당한, 유리 천장 같은 거죠. 못 올라가는데 올라오려면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암울하군요. 이 책들은 보면 좀 기운이 날까요? 책 선별이 좀 남달라 보이긴 해요. 진(zine)이나 아티스트북 위주인 것 같고요. 그래픽 노블도 눈에 띄네요. 이 우울한 시대를 날려 보낼 수 있는 책 한 권 추천하신다면요?

천 현재 우리나라에 독립 출판하는 곳이 3천 군데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 서점에 들어오는 게 200여 곳 정도예요. 저희가 좋아하는 시선의 책들은 사입 도매처에서 물건을 사오는 행위. 사업자가 직접 사입을 하기도 하고, 업체에서 사입만 위탁 받아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고, 직접 수입도 해요. 서점 운영 초기에는 저희가 여러 군데 입점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은 입점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선별을 하죠. 작게 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계간 홀로』라는 책을 추천해 드려요. "전방위. 무정형. 비연애인구 전용잡지. 연애하지 않을 자유."라는 책 표제가 마음에 드네요.(웃음) **천** 취재, 편집, 디자인 다 한 분이 하는 책이에요. 내는 것도 본인이 내키는 대로. 편집도 한글 워드 프로그램으로 했대요.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귀한 겁니다.(웃음) 여기 책들이 다 그래요.

1월의 어느 날 오전, 인터뷰 마무리 즈음 손님 한 분이 들어온다. "출근길에 들렀다."고 한다. 이 손님은 고양이 사진도 찍고 책도 사 가며 이렇게 하루를 연다. 아마도 그녀의 퇴근길이 피큐알의 천인우 대표가 말한 대로 그의 동료들이 운영하는 공간에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그렇게 이 청년들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출근과 퇴근으로 소진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생할 수 있지 않을까?

크리에이터스 라벨 피큐알(PQ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24
http://blog.naver.com/hellopqr

| Section |

02

나의 애정 공간

우리 동네에서 찾아낸
멋스런, 대안공간

판교 테크노밸리 | 커먼뮤직+커먼키친 황규석- **판교에 흐르는 맛있는 음악**
용인 고기동 | '그냥.. 가게',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 - **따뜻하고 이상한 이 동네의 '법칙'**
오산 오색시장 | 살롱드공공 주조양 - **공유는 삶을 잘 '살아내는' 비결**

#S2-01 | 판교 테크노밸리 커먼뮤직+커먼키친 황규석

판교에 흐르는 맛있는 음악

| 민하늬 미술비평가

▲ 황규석 대표가 수집한 LP판들

판교 테크노밸리의 풍경은 유난히 젊다. 아마도 국내 유수의 IT기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하러 오는 젊은 회사원들로 시끌벅적한 이 공간은 밤이나 주말이 되면 빈 공간으로 변하는 '공동화 현상*'을 보인다. 또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머무르는 이곳에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 인접한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이 음악, 미술, 연극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홍대, 이태원, 한남, 강남 등지로 이동해야만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서울의 치솟는 집값을 피해 꾸준히 경기도로 이주해 왔다. 그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근래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서울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 거주하는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 물론 문화 인프라를 형성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또는 경기도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가 절실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거점 공간들을 중심으로 작은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 활동들이 점차 주변부로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의 문화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물론 주변부로의 확산, 그 기저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다. 이 현상은 분명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징후이기에, 우리 스스로 저항의 방식들을 다양화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근래 들어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문화 양상들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한 개인이나 그룹이 주체가 되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은 피부로 느낄 수 없을지라도,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꿈틀꿈틀 재미있는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 필자는 그 주인공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커먼뮤직+커먼키친을 운영하고 있는 황규석 대표를 만나 보았다.

* 도심 지역 내에서의 지가 급등 및 각종 공해로 주택들이 도시 외곽으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택은 줄고 결국 공공기관, 상업기관만 남게 된다. 이리하여 도심은 텅 비어 공동화되고 외곽 지역은 밀집되는데 이것이 도넛과 같다고 해서 생긴 명칭이다.(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연구소, 2006.4.7.미래와경영 참조)

이곳에서 저곳으로,
홍대에서 판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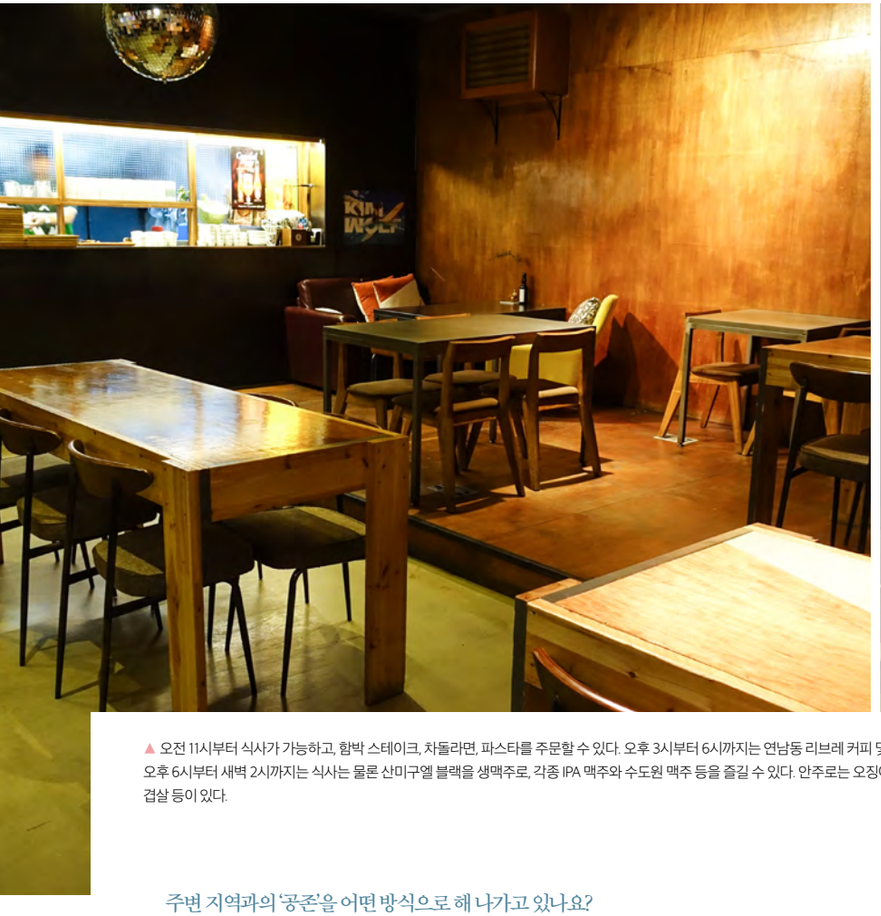
2017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황규석 대표와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테크노밸리 한가운데 레스토랑 겸 음악 공연장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거칠게 말해 과학과 예술이라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한 공간에 공존한다는 사실 때문이리라. 아니 어쩌면 '커먼(common)'이라는 단어가 지닌 '공동의, 공통의, 흔한'이라는 의미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필자에게 '커먼뮤직은 '공동 혹은 공통의 음악을 위한 공간'이라고 읽혔고, 공동이나 공통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에 대한 생각은 연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되었기에,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부터 괜히 어깨가 들썩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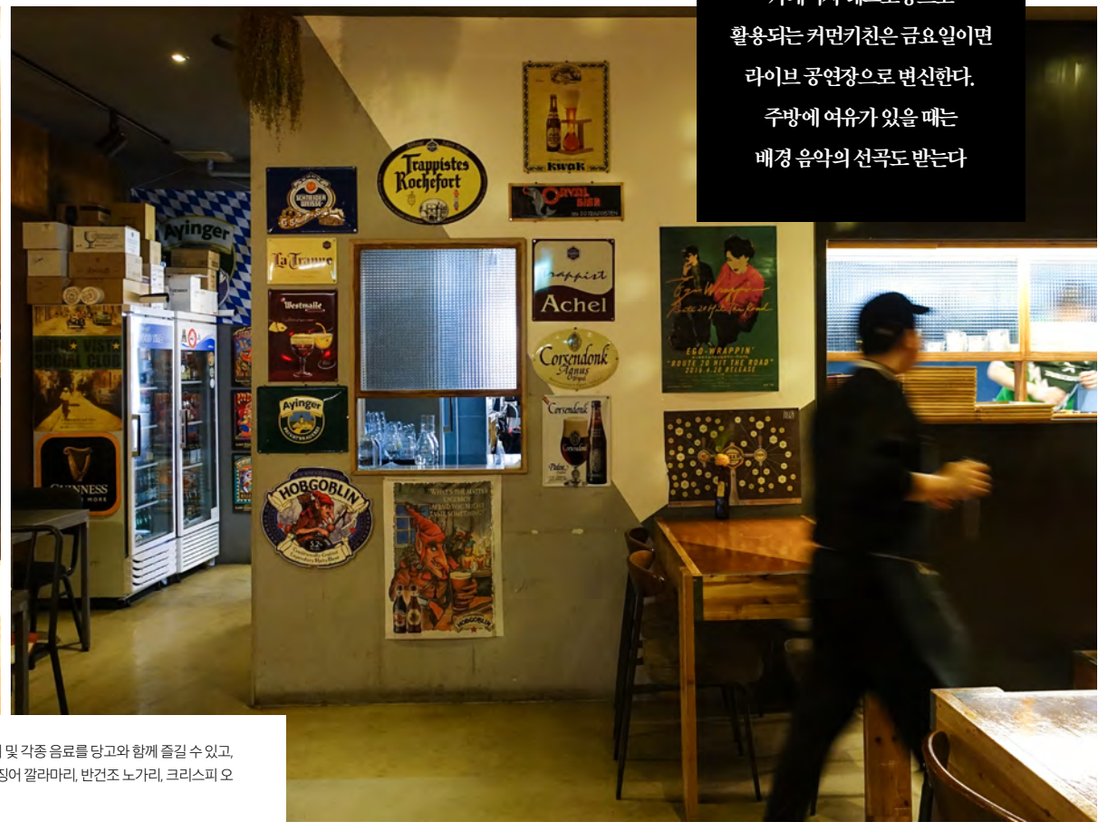
판교 테크노밸리 한가운데에 인디 음악 공연장이라니,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커먼키친'은 어떤 공간인가요? 소개 부탁드려요.

(황규석 이하 황) 커먼키친은 카페, 레스토랑 겸 음악 공연을 하는 공간이에요. 이곳을 거점 삼아 '커먼뮤직'이라는 음악 레이블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커먼뮤직은 원래 음반을 기획·제작·유통하는 독립 레이블이고, 소속 밴드로는 아시안체어샷, 블락스, 아톰리턴즈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레이블의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음원 유통, 음악 공연 기획과 내한 공연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교로 오기 전에 오랫동안 홍대 앞에서 음악 레이블을 운영했다고 들었어요. 음악 레이블을 언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판교로 오게 되었나요?

황 음악 레이블을 시작한 것은 2011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대학 때는 밴드의 보컬을 했었고, '타운홀 레코드'를 운영하면서 음반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일도 했죠. 음악과 관련한 일들은 거의 다 해봤어요. 하지만 음악 작업만으로는 레이블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 가기가 어려워서 2011년에 '카페커먼'이라는 공간을 홍대에 만들게 되었죠.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디 밴드 공연을 기획하거나 이 밴드들의 음반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실험들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카페커먼과 같은 복합문화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 공간이 활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듬해 가을 건물주에 의해 쫓겨나듯 공간을 옮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2013년 초에 독립적으로 운영했던 음악 레이블과 카페를 '커먼뮤직+카페커먼'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게 됐습니다. 이후 홍대에는 인디 밴드를 위한 공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인디 음악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외곽으로 공간을 옮기는 패턴이 홍대 곳곳에서 반복되었죠. 3년 동안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홍대 인근의 인디 음악 공간은 반으로 줄었고, 한 곳에 모여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인디계의 문화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리니지, 한게임, 나사 출신의 투자자들과 매니아DB의 류형규 씨의 도움으로 2015년 3월 판교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카페이자 레스토랑으로
활용되는 커먼키친은 금요일이면
라이브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주방에 여유가 있을 때는
배경 음악의 선곡도 받는다

▲ 오전 11시부터 식사가 가능하고, 함박 스테이크, 차돌라면, 파스타를 주문할 수 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연남동 리브레 커피 및 각종 음료를 당고와 함께 즐길 수 있고,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식사는 물론 산미구엘 블랙을 생맥주로, 각종 IPA 맥주와 수도원 맥주 등을 즐길 수 있다. 안주로는 오징어 깔라마리, 반건조 노가리, 크리스피 오겹살 등이 있다.

▲ 커먼뮤직이 기획한 라이브 공연 포스터들과 구석에 놓인 통기타, 음악 관련 서적들, 오래된 LP판에서 황규석 대표의 음악 사랑이 느껴진다.(순서대로)

주변 지역과의 '공존'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나요?

황 지역 사회와의 어울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금요일마다 열리는 음악 공연이고요, 다른 하나는 판교 IT기업 내 음악 동아리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커먼키친을 개방하는 것이죠.

우선 음악 공연의 경우, 홍대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뮤지션들과 정기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분당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이 인디 밴드의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저녁 시간을 활용해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는 문화도 만들 수 있고요. 올해부터는 판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남 시민들이 저희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토요일 공연도 구상 중이에요.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말 음악 공연과 함께 독립영화를 상영하거나 쉽게 접할 수 없는 콘텐츠를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판교 IT기업 안에 다양한 음악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연장이 근처에 없어서 그동안 주로 이태원에서 공연했다고 해요.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하면 재미있을까 고민하다가 커먼키친에서 공연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미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 넥슨(NEXON)의 DJ 동호회가 이곳에서 파티를 열었고요, 앞으로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씩 판교의 음악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웃음)

커피와 식재료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황 커먼키친의 시그니처 메뉴에 들어가는 식자재는 모두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커피 원두도 국제 블랜딩 대회에서 1위를 수상했던 '커피 리브레'를 사용하고요. 저는 홍대에서 카페커먼을 운영할 때부터 이 원두를 고집했는데, 이유는 원두의 질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연남동에서 시작한 브랜드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좋아하는 일을 해 나가는 지역 사람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아요. 더욱이 오랜 시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어 왔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서로 잘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요.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비슷한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하는 이들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게 된 단단함과 여유는 아마 평생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미래를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 그의 모토고, 그때그때 닥치는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며 버텨 온 것이 지금의 커먼키친+커먼뮤직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는 '지금' 당면한 상황 안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하는 우리 세대에게 황규석 대표가 삶을 마주하는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남시나 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황 우선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어요. 혹은 분야가 다르더라도 공간을 운용 방식이나 공통 관심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마련하는 일을 재단이나 기관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금이나 법과 관련해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경우 직접 해외 뮤지션들의 공연을 기획하고 초청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수반되는 법적인 절차나 세금 문제로 간혹 곤혹을 치를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재단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좀 더 자율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또 자금 운용을 평가하는 기준들 역시 다양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황 커먼뮤직+커먼키친이라는 공간이 누구든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러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잘 하면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문화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음악, 미술, 공연과 같은 '예술' 행위를 떠올린다. 예술이 대표적인 문화 활동임에는 틀림없지만, 문화를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지평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만약 문화를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만들어 내는 행위 전반'으로 확장시켜 본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재미있는 상상력을 동원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현상들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작은 움직임들을 새로운 문화라고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약간의 희망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터뷰를 마치며, 나의 색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에 대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유독 '나'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우리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꼬리표들이 있고, 그것을 떨쳐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십 대에는 공부와 대학 입시, 이십 대에는 졸업과 취업, 삼십 대에는 취업과 결혼, 그리고 육아, 사십 대에는 육아와 일 등등. 이 꼬리표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개인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요소들로 작동한다.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꿈틀거릴 때 혹은 그것에 저항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온갖 종류의 불안과 강박이 생겨난다.

그런데 모순적인 것은 사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 온 친구들 역시 언제 해직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주말을 위해 나머지 날들을 버티고, 그나마 법정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쉬는 날을 꿈꾸며 산다. 삶이 아무리 노동이라지만, 너무 슬프지 않은가. 그래서 젊은이들은 고민이 많다. 나만의 꿈을 꾸면서 불안한 젊은 날들을 버텨 내느냐, 아니면 안정감을 선택해 주말을 꿈꾸며 살아가느냐, 아! 그것이 문제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자리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또 한 번의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 번뿐인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황규석 대표와의 인터뷰는 필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다.

지역 사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새로운 방식의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 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앞으로 닥칠 풍파를 버텨 낼 수 있는 감정의 근육들을 단단하게 장착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우리의 숙제는 나와 다른 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진실한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좋다. 그리고 옳다.'

커먼뮤직 + 커먼키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H스퀘어 N동 B107,
https://www.facebook.com/common.kitchen.pangyo

▲ 커먼뮤직 + 커먼키친 황규석 대표

▼그냥 가게.. 카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

02 용인 고기동 '그냥.. 가게',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

뜻하고 냉한 동네의 '법칙'

채널e 방송작가

입이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고급 전원주택 해졌다. 자연히 땅값이 치솟았고, 고즈넉하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 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 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면 마을에서 오 의 논리가 지배하는 삶의 터전에서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원주민들이 많아

전히 고기동에는 이 마을이 '뜨기 전'부터 이어온 지역의 삶과 문화가 있다. 그 고, 함께한다.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커피를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냥.. 가게', 는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 함께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ㅇ. 래목공 공간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법칙이 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공간 는 점, 마을 주민들 스스로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는 점이다.

하 공동체가 가능했던 것일까. 비밀은 바로 이 공간들의 운영 주체에 있다. 공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떤 종교적 강요도 없다. 실제로 공간을 이용하는 대다수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은 지지만 주민들에게 종교를 비롯한 어떤 의무도 강

* 도심에 가까운 낙후 지역에 고급 상업 및 주거 지역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의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상.

경계 없고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

그냥.. 가게,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 ㅇ.래목공방 등을 둘러보니 무척 자유롭고 따뜻한 공동체란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 주체가 고기 교회입니다. 정말 '종교적인 색채'는 없는 건가요?

(김준표 고기 교회 부목사, 이하 김준표 부목사) 일단은 이곳이 교회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의 주체인 것이 사실이고요. 종교적인 색이 많이 보일 거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만 다녀 보면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고기 교회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위한 공간이고, 나머지 카페나 도서관 같은 다른 공간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신학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경계 없고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이 공간들을 주체적으로 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쉬는 '그냥.. 가게'

안홍택 목사는 27년 전, 고기 교회에 부임했다. 당시 고기동은 버스가 하루에 두 번밖에 다니지 않는 시골 마을이었고, 교인들은 20~30명 정도에 불과했다. 시골 목사는 난초를 직접 재배했다. 교회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난을 키운 수익으로 교회도 운영하고, 아이들 성경 학교도 열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왔다. 난초 재배를 약 10년 정도 해오다가, 중국에서 난이 대량 수입되면서 수익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모였다. 처음부터 카페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늘 생태적인 삶을 지향해 오던 안홍택 목사는 자원의 순환적 측면에서 '재활용 장터'를 기획했다. 그러다가 재활용 가게 왔다가 커피도 마시면 좋겠다 싶어 가게 한쪽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난을 재배할 때나 지금이나 이곳의 기본 성격은 동일하다. '지역 주민을 위한 곳, 돈이나 종교로 턱을 만들지 않는 곳'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게 이름 그대로 '그냥' 이용한다. '그냥.. 가게'를 취재하는 동안 주민들은 '그냥' 와서 '그냥' 커피를 마시고, '그냥' 재활용품들을 사갔다. 자신의 공간처럼 부담 없이 가게를 들락날락거리며 쉬다 놀다 가는 동네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롭고 당당했다. 무엇보다 '그냥.. 가게'에는 다른 가게와는 다른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다. 바로 커피가 '그냥'(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 '그냥.. 가게' 벽면에 걸린 시와 재활용품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냥.. 가게'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재활용 가게의 이용이 매우 활발한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커피가 무료로 제공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자본주의의 논리에 길들여진 저에게는 좀 생소한데요.

(김준표 부목사) 저도 처음에는 '커피 무료 제공'이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제가 2015년에 이곳으로 부임해 왔는데 그전에 2년 동안 인도에서 NGO 활동을 하다 왔거든요. 그곳에서 인도 현지인들 자립을 돕는 일을 하다 왔는데요. 그때 공짜로 뭘 해주는 것보다는 현지인들에게 일정 정도 부담을 줘야 책임감과 주체의식이 생긴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부목사로 오기 전에 한번 둘러보러 왔죠. 그리고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얼마예요?' 했더니, '그냥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천 원 씩이라도 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가 자본의 논리에 잠식되고 있지 않느냐. 뭘 하더라도 가치를 창출해야 하고, 주면 다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예전 공동체 문화는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어 왔다. 내가 가진 걸 나누고,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선물이 많이 오갈 때, 그 마을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그냥.. 카페'와 '재활용 센터'라는 이 공간이 활성화되는 데는 커피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큰 것 같아요. 대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선물'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냥 커피가 아니라, 정말 좋은 커피거든요. 여기서 먹다 보니 제가 다른 데 가서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여기 원두가 고급이라, 커피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카페'와 지역 주민들은 서로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되었죠. 그게 참 놀랄 만큼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 **'그냥..가게'는**
> **'그냥 가게'가 아니다.**
> **점 두 개(..)를 반드시 찍는 게 중요하다.**
> **'그냥'과 '가게' 사이에 찍힌 점 두 개(..)는**
>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며 찾는**
> **반짝이는 시간을**
> **기호로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가 없는 선물 경제'의 기반은 공짜 커피만이 아니다. '수, 목, 일' 일주일에 3일 문을 여는 '그냥.. 카페'의 운영진은 모두 다섯 명이다. 이들은 모두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내서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재활용 가게에서 팔리는 물품들도 같은 맥락이다.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올 때 기부할 물건들을 한 아름 안고 오는 경우가 많다. 아낌없이 가져오는 기부 물품이 넘치기 때문에 자연히 좋은 물건이 많고, 상품의 회전율도 높다. 일요일처럼 쉬는 날에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인다. 문을 열지 않는 평일에도 '그냥.. 가게'의 '대가 없는 선물 경제의 원리'는 작동된다. 상업적이지 않은 마을 모임이나 행사가 있으면 기꺼이 장소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냥.. 가게'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기분 좋고 넉넉하게 이익을 나눠 가진다. 이 같은 마법은 단순히 '그냥.. 가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도 퍼져 나간다. 연말이면 '그냥.. 가게'는 수익을 사회에 기부한다. NGO 단체나 어려운 이웃,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 등 수많은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눠 왔다. 마법의 선순환인 것이다.

▶ '그냥.. 가게' 입구 풍경

▲ 책과 책 사이를 지나다 보면 작은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인형극을 위한 소품들이 보인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도서관을 즐긴다

주민들의 삶이 토실토실 살찌는 공간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

'그냥.. 가게'에서 예배당 방향으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오래된 양옥이 하나 보인다.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이다. 안홍택 목사가 처음 부임했을 당시 이곳은 문화 불모지에 가까웠다. 동네에 고기초등학교가 있었지만, 학교 안에조차 도서관이 없었다. 안홍택 목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했다. 꼭 책을 읽지 않아도 좋았다. 동네 아이들이 갈 곳이 있고,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다. 그래서 안홍택 목사는 자신의 사택을 내놓아 '도서관'을 만들었다. 300여 권의 기증받은 책으로 시작했던 작은 도서관은 이제 1만 권이 넘는 책으로 가득 찼다. 도서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시에서 6시까지 운영되고 주말에도 운영한다. 20여 명의 자원 활동가들 중 교인은 서너 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그야말로 순수한 지역 주민들이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도서관에 온다. 책을 읽기도 하고 뒹굴뒹굴 굴러다니며 놀기도 한다. 도서관은 곳곳에 숨을 곳이 많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 아이들은 구석에 자리 잡고 지친 하루의 숨고르기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아이들은 도서관에 가방을 던져 놓고 나가서 논다.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이곳은 사방이 놀잇감이고 놀이터다. 여기저기 뛰어놀다가 심심해지거나 너무 지치면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돌아온다. 책을 읽기도 하지만 미술 도구를 찾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한다.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의 진정한 매력은 도서관의 중심이 책이 아니라는 '이상한 법칙'에 있다.

'그냥.. 가게'와 마찬가지로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 역시 그 누구도 이 공간이 교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은 언제나 역동적으로 살아 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혹은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도서관을 중심으로 금방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고 좋은 노래를 찾아 듣다 보니 음악회가 되었다. 또 함께 글을 읽고 쓰고 나누다 보니 백일장이 열렸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하다 보니 인형극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때그때 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도서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다가 또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사라진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열린 공간인 것이다.

▲ 어스름이 질 무렵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의 모습.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오헌경,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 자원봉사자, 고기초 학부모) 이곳은 아이들 수만큼 엄마들이 와요. 그래서 다른 도서관보다 많이 시끄럽죠. (웃음) 아파트촌에 살다가 고기동에 2013년에 이사 왔어요.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은 고기 교회가 공간을 내주고, 책임 운영을 하지만 절대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고기초 학부모들이 운영하고 있죠. 사실 고기동에 이런 공간이 잘 없어요. 학교에서도 놀 곳이 없거든요. 무엇보다 요즘 고기동이 계속 개발이 되어서 차도 많아지다 보니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교회 도서관의 주위 환경은 그대로잖아요. 사방 어디나 나무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물론 예전보다 휑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도서관에서는 차가 안 보이고, 나무만 보여요. 교회가 이곳을 지켜 주니까, 이곳에서 내 아이가 와서 놀면 너무 안심이 돼요. 정말 안전한 공간이에요. 더불어 책이 있으니 좋죠. 사실 이 도서관은 책이 주가 아니에요. (웃음) 놀다가 정 심심하면 와서, '한번 볼까.' 이러고 읽는 게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떠드는 것도 당연시하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당하지 않으니까.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은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다.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지
나만의 공간을 찾아
숨어들어 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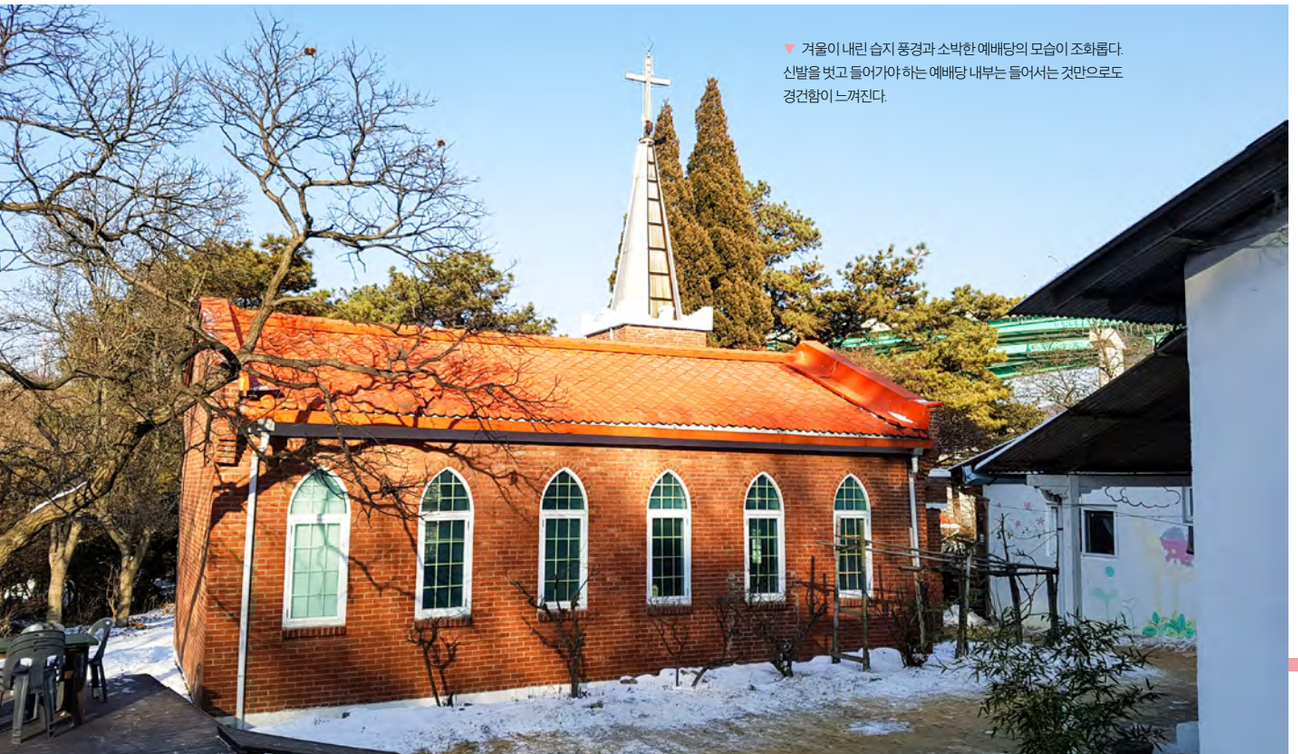
거실에서 왁자지껄
함께 장난치던 아이들은
어느덧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낸다.
책과 책 사이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넓은 우주를 만난다

자연과 주민과 더불어 꽃피는 마을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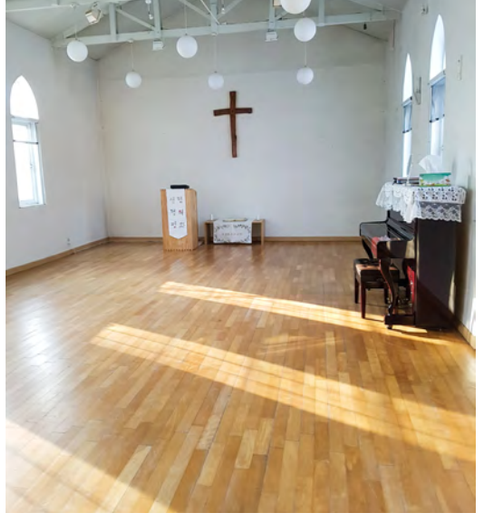
고기 교회를 둘러싼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예배당 뒤 겨울의 습지에는 눈이 내려서 자연스럽게 미끄럼틀이 된다. 볼 빨간 아이들은 종이 박스를 들고 나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썰매를 신나게 탄다. 봄이 되어 얼음이 녹으면 '처음자리 생태교실'도 문을 연다. '처음자리'는 고기(古基)의 순수 우리말이다. 고기 교회에서는 예배당 뒤를 생태 습지로 남겨 뒀다. 그곳에서 매년 7세부터 3학년까지 30~40명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자연의 사계절을 함께한다. 아이들은 생태교실에서 도롱뇽 알도 만나고 수생식물도 관찰한다. 또 직접 벼농사를 짓고, 텃밭도 가꾼다. 가을이면 수확을 해서 그것으로 찹쌀떡도 해 먹고 고구마도 쪄 먹으며 논다. 그렇게 아이들은 사계절의 변화와 생명이 커 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배운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곳의 사계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준표 부목사) 네. 저희는 이 자연 공간들을 굳이 더 개발하거나 교회를 위해 건물을 짓거나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예배당은 70~80명이 들어오면 꽉 찹니다. 에어컨도 없고, 예배 의자도 없어요. 그래서 한여름 2, 3주 정도는 정말 버겁긴 합니다. 땀 냄새 발 냄새에 다들 바닥에 앉아 있으니, 어휴 힘들긴 하죠.(웃음) 그래서 저희는 농담처럼 절대 교인을 늘리지 말자고 서로 이야기합니다.(웃음) 어떤 분들은 뒤에 빈 터가 많은데 그곳에 새로운 예배당을 왜 짓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처음자리 동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잘 지켜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사람들과는 종교적인 경계를 넘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모두가 이 자연을, 우리 마을을 지켜 내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는 고기 주민들을 위해 그대로 보존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겨울이 내린 습지 풍경과 소박한 예배당의 모습이 조화롭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예배당 내부는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경건함이 느껴진다.



▲ 예배당 내부 모습, 그리고 예배당 뒤 습지 풍경.

고기 교회를 둘러싼 고기동에는 이상한 '법칙'이 지배한다. 들어오는 이 누구나 '그냥'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다. 마을 주민 누구나 나서서 품을 판다. 도서관은 '책'보다는 '노는 게' 주가 된다. 습지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도롱뇽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의 논리로 보면 한없이 이상한 이곳의 법칙은 이곳에서는 '상식'이고 '문화'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법칙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라는 건 각자 디디고 서 있는 위에서 각자가 꽃피우는 것이다. 삶의 가치를 어떻게 두고, 누구와 만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문화는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고기동의 상황 역시 좋지 않다. 당장 예배당 뒷산은 개발 위험에 직면해 있고, 공유 공간을 조금만 벗어나도 각종 상업 시설들이 즐비하다. 우리를 지배해 온 '세상의 법칙'은 지금까지 지켜 온 고기동의 문화를 위협한다. 그럼에도 고기동이 오랫동안 품어 오고 발전시켜 온 지역 문화는 여전히 단단하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 각자는 서로서로를 보듬으며, 자신이 발 디디고 있는 터전 위에서 지역 문화를 하나씩 꽃피워 왔다. 설사 고기동의 외부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단단한 뿌리를 가진 고기동의 '남다른 동네 문화'는 또 새로운 꽃을 피워 낼 것이다.

고기동에는 다시 봄이 올 것이고, 아이들은 다시 생태교실에 모일 것이다. 그리고 놀다 지쳐 쉬고 싶을 때는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에 들어갈 것이다. 어른들은 '그냥..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것이다. 'ㅇ. 래목공방'에서는 내 손으로 만드는 꼭 필요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물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연은 언제나 고기동을 따뜻하게 품어 줄 것이다. 그렇게 고기동의 사계는 제 속도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따뜻하고 이상한 이 동네의 법칙'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묵묵히 계속될 것이다.

고기동 '그냥.. 가게' &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http://www.gogi.or.kr

#S2-03 오산 오색시장 살롱드공공 주조양

공유는 삶을 잘 '살아내는' 비결

| 이정화 독립 에디터

▼ 전통시장인 오색시장 내에 자리한 살롱드공공 전경

인구 22만의 소도시 오산. 최근 인접 도시인 수원, 화성, 용인 등지와 함께 청년층이 대거 이사 오면서 도시 내 평균 나이(37세)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가 되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로 이주한 젊은 세대들은 무엇보다 편리한 상권, 질 높은 교육과 문화를 원한다. 오산은 전통시장인 오색시장, 오산대, 시청 주변으로 주요 상권이 형성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 및 문화예술 공간 및 단체들이 생겨나는 중이다. 오산의 유일한 도시농업 단체인 오산텃밭지기들,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단체인 빙고믹스, 오늘 소개할 주인공 살롱드공공 등이 대표적이다. 오산은 특히 시장이 '젊은' 곳이다. 정확히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젊어졌다. 그전까지 오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오산중앙시장은 여느 시장과 별 차이가 없었다. 정감 있는 상인들에게 싸고 좋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살 수 있으나 방문객의 연령대가 높고, 명절 등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산한 시장의 이미지. 무엇보다 오산시장만의 개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2015년에 중소기업청과 시장상인회가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단을 꾸렸다. (오산오색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단장 신미라) 이름도 '오산오색시장'으로 오색찬란해졌다. 또한 이전 시장 터인 '오매장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단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예술가 입주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 최근 오색시장이 젊어지고 있다. 매주 금토 밤에 열리는 '오색야시장'은 자체 개발한 수제맥주와 다양한 퓨전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모인 오산 지역민들로 들썩인다. 가을에 열린 '야맥축제'도 화제다.

오색시장 사업단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에 집중한 듯하다. 젊음과 개성 찾기. 사업단에서 주력한 프로젝트의 첫 성과는 오색시장에서 매달 3일과 8일 밤에 열리던 '38야시장'을 매주 금, 토 밤에 열리는 '오색야시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전의 38야시장은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와 일렬로 놓인 테이블에 앉아, 퇴근길 어르신들이 들러 소주에 시장 안주를 곁들이는 예스런 포장마차 분위기였다. 이용객은 주로 중년의 어르신들. 이것을 매주 불금과 토요일에 가족, 연인, 젊은 친구들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밝고 흥겨운 펍 분위기의 야시장으로 변모시켰다. 사업단은 오산오색시장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줄 청년상인 인턴십을 모집했다. 인턴십은 창업 의지가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3기를 모집했다. 이들이 야시장의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며, 야시장에 직접 참여해 자신만의 메뉴를 개발하도록 했다. 패기 있는 청년들의 기획과 열정이 반영되어 시장 분위기는 한결 세련되고 밝아졌다. 또한 시장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이구공'이라는 공간을 시장 내에 마련했다.

이구공은 오색시장에서 장을 본 재료로 맛있는 요리법을 배우고, 이웃과 함께 나눠 마실 수 있는 수제맥주 제조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기능했다. 이 공간에서 '밥상살림연구소'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요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오색시장의 상인들과 전문가들이 2개월간에 걸쳐 직접 개발한 크래프트 맥주 제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오색시장만의 전매특허인 크래프트 맥주는 오로라와 까마귀브로잉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특히 오색시장에서 개발한 수제맥주는 시장만의 개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맥주와 곁들일 만한 다양한 먹거리까지 함께 초대하여 축제에 어울릴 만한 풍미를 살려준다. 지난해 가을에는 오색시장 야시장 골목에서 '야맥축제'(10월 14~15일)를 열었는데, 12팀의 뮤지션들이 공연을 펼치는 가운데 26개의 크래프트 맥주가 소개되었다. 단 이틀 열린 축제에 많은 이들이 참여해 시장 안을 가득 채우며 축제를 즐겼으며, 여러 매체에 소개되며 야시장을 전국구로 알렸다. 홍보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평균 10~15퍼센트 상승했으니, 일석이조로 성공한 축제인 셈이다.

▶ 오색시장 상인들과 전문가들이 자체 개발한 수제맥주 까마귀브로잉과 오로라.

* 오로라는 망고와 자몽 향 등 다섯 가지 향이 나 청량감과 목 넘김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까마귀브로잉은 커피 향과 초콜릿 향을 느낄 수 있어 여성 고객들이 좋아할 만하다.

매주 금, 토 야시장에 불이 밝게 켜지면 오쉑버거, 큐브스테이크, 오징어구이, 양꼬치 등 열 가지가 넘는 퓨전 요리가 준비된 수레마차가 등장하고, 어디 내놓아도 그 맛이 뒤지지 않는 크래프트 맥주가 거품과 함께 한 잔 그득하다. 시장 내 상인들이 연일 판매 중인 맛있는 시장 반찬, 찬거리, 먹을거리가 어우러진다. 이어 삼삼오오 오산의 젊은 친구들, 가족들이 저녁 마을돌이를 하러 오색시장에 놀러 온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는 상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자체 라디오 방송인 '토요뮤직광장'이 온에어 되어, 상인들의 구수한 사연들이 소개되거나 오색시장을 더욱 잘 즐길 수 있는 팁을 소개해 준다. 축제 기간에는 시장에서 산 맛있는 먹거리와 수제맥주를 들고, 진짜 펍(?)에 가서 놀 수도 있다. 그것이 가능한 공간이 바로 청년몰 살롱드공공이다. 그래피티가 그려진 셔터마저 통통 튀는 가게 입구. 문을 열면 주조양 대표와 공공의 멤버들이 재활용을 활용하여 손수 멋지게 꾸민 아기자기한 가게 풍경에 기분이 들썩인다. 공간 분위기를 돋우는 음악과 청년들이 개발한 큐브스테이크 등의 안주, 주말에는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지는 '오픈 마이크' 행사가, 또 오색시장 이구공에서 직접 만든 까마귀브로잉을 한 잔 마시며 오산의 젊은 밤을 보낸다.

청년들을 위한 '핫'한 살롱!

지난 2016년 1월 9일, 오색시장 6구역 1층에 아주 색다른 공유공간인 '살롱드공공'이 문을 열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인 (주)공유공간플랫폼공공이 운영하는 살롱드공공은 장사를 꿈꾸는 지역의 청년들이 낮에는 브런치 카페로, 밤에는 커뮤니티 펍으로 운영하는 공유 공간이다. 이 펍에서 청년들이 만든 다양한 음식들과 이구공에서 빚은 수제맥주 까마귀브로잉을 맛볼 수 있다. 살롱드공공은 오색시장의 축제 기간에는 푸드 코트와 같은 기능을 하고, 평소에는 청년 인턴들의 실험장이자 예술가들의 열린 무대로 기능한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함께 모여 창업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도모하고 있으며, 오색시장 사업단과 상인회와 협력하여 시장의 전통을 잇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우수기업 사례에 선정되었다.) 시장 한 터에 방치된 유휴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청년들을 위한 멋진 공간으로 기능하게 한 사연, 그것을 만든 주체가 궁금했다. 그래서 공공의 전 대표이자 살롱드공공의 운영자인 주조양 씨를 만나 지난 2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하 일문일답)

▲ 살롱드공공의 전경과 주조양 대표

살롱드공공의 '공공'은
공유 공간의 약자입니다.
활용되지 못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
청년이나 창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 살롱드공공의 식구들(청년 인턴인 달팽, 밍고, 배찌와 하얀나무, 네오(주조양 대표), 로)

▲ 오색시장 자체 방송 '토요뮤직광장' 진행 모습, '야맥 축제' 때 시민들이 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살롱드공공에서 먹고 있다. 살롱드공공에서 매달 3, 4주차 토, 일에 열리는 '오픈 마이크'에서 뮤지션이 공연하는 모습.(순서대로)

먼저 '공유공간플랫폼 공공'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주조양, 이하 주) 공유공간플랫폼 공공은 공유공간 플랫폼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지역에서 대안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면서 공유경제와 주식회사 공유공간플랫폼공공(이하 공공)을 설립하게 되었지요. '공유공간'이라는 아이디어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5기로 선발되어 교육과 지원을 받아 2015년 9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멤버가 모두 닉네임을 쓰는데 저는 네오라고 합니다.(대표이사 하얀나무, 이사 전자영, 매니저 로, (전)대표이사, 주주 네오) 공공의 첫 사업으로 용인시 유휴 공간에 30~40개의 팀이 모여 각자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얻는 공간을 만들고, 프리마켓 '공장'을 열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매주가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실내 공유 공간을 만들어, 대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 공간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오산시 오색시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단에서 시장에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취지도 좋고 공간도 마음에 들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열심히 준비해서 지난해 1월 살롱드공공을 오픈했습니다.

'살롱드공공'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주 살롱드공공의 '공공'은 공유 공간의 약자입니다. 활용되지 못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 청년이나 창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현재 하얀나무, 로, 네오인 나, 그리고 청년 인턴인 달팽, 밍고, 배찌가 낮에는 카페, 밤에는 펍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롱드공공에서는 지역의 상인 및 창작자들에게 매대를 빌려주고 있으며, 매달 3, 4주차 금, 토요일에는 지역 뮤지션들에게 무대를 마련해 주는 '오픈 마이크'도 진행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오픈마이크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모집하면 아마추어 밴드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주로 초기에 활동하는 분들이 와요. 취미생활이지만 실력이 좋은 팀도 오고, 뮤지션들에게는 교통비, 식비, 테이블에 팁박스를 놓고 모금된 돈을 드립니다. 또한 오색시장에서 열리는 야시장과도 협력해서 이곳을 푸드 코트처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먹거리를 사서 이곳에서 드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청년들의 창업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인턴으로 뽑아서 메뉴도 함께 개발하고 매장도 운영하며,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유'에 대한 생각은 언제부터?

주 원래 대안적인 삶이나 경제활동 방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역에 정주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죠. 지역에서 살려면 경제적인 수입과 지속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시장을 만들고, 우리도 참여해서 기틀을 다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켓을 만들었습니다. 공공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주 그전에는 백혈병소아암 환우를 돕는 엔지오 단체에서 팀장으로 일했어요. 그중에서도 소아암이 완치된 친구들의 자립과 창업을 돕는 사업을 했어요.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지만 큰 방향은 좋은 삶,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었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사회적경제, 대안경제, 공유경제도 공부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재원은?

주 지역 미술가인 민애리 작가와 내가 두 달간 모든 인테리어를 직접 꾸몄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의자도 주워 오고, 고기 굽는 불판을 떼어내서 상판도 만들고, 벽도 직접 칠했죠. 공간 꾸밀 때 고생하면서 제대로 배워서 지금 다시 하라면 더 낮은 비용 들여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지금 살롱드공공 2호점을 기획 중인데, 그때는 공간 인테리어 등 창업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생각이에요. 초기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필요 자금의 일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았고, 일부는 법인인 공공의 자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살롱드공공의 보증금은 오색시장 상인회에서 지원했고, 월세 및 나머지 유지비는 우리가 운영을 통해 마련하고 있죠.

▶▲ 살롱드공공에서 자체 개발한 큐브스테이크. 살롱드공공을 이끄는 청년 인턴들이 오색야시장에서 큐브스테이크를 판매 중이다. (순서대로)

청년 인턴이 궁금합니다.

주 오색시장 사업단에서 모집하는 청년 인턴십인데, 창업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이 현재 3기까지 모였어요. 인턴 1기의 경우 총 네 명이었는데 두 명은 수료 후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본래 푸드트럭 운영을 계획했던 로는 매니저로 살롱드공공에 남아 가게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요. 달팽이는 토요일마다 시장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죠. 인턴 2기인 배찌와 밍고는 과정 중 개발한 메뉴로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가 큐브스테이크죠. 큐브스테이크는 야시장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안산 등의 지역문화축제에도 초대받아 수제맥주와 같이 판매했지요. 얼마 전에는 살롱드공공이 강호동이 진행하는 JTBC 프로그램인 '천하장사'에도 소개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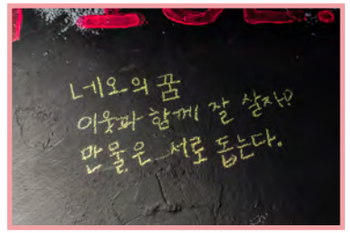
오산은 오색시장을 중심으로 상인회 및 여타의 지역 단체들이 함께 문화 영역을 넓혀 가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주 시장 사업단과 별개인 우리도 그렇고, 다른 팀들도 함께 연계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맥주 축제 때는 부스 참여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야시장이 열릴 때는 푸드코트처럼 지원하기도 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야시장은 특히 오산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보람 있어요. 38야시장이 열릴 때에는 주로 중년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분위기여서 젊은 여성들끼리 오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바꾸니 매출도 오르고, 시장의 역동이 상인들의 욕구를 많이 충족시킨 것 같아요. 작은 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층이 불금, 불토를 즐기러 시장에 오고, 또 소주에서 수제맥주로 펍문화가 시장에 들어와 색깔을 바꾼 것 같아요. **주** 실제로 그런 계기가 되었고 색깔을 바꾸었죠. 아직 해결할 과제가 많지만 여러 면에서 의미 있었어요. 매체에도 소개되고 오산시 성과 사업으로 선정되어 발표도 했죠. 시장이 연령대가 높고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젊은 사람들 활동들도 늘어났어요. 주말에 살롱드공공에서 하는 '오픈 마이큰' 공연도 그런 시장 분위기와 어우러져 새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지역 기반으로, 또 공공의 문화적 자산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한 모험 같기도 합니다.

주 모험이죠. (웃음) 기질적으로 모험을 선호하는 편이고, 겁이 없어요. 지역에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을 때, 내 경우는 그것이 가능한 외적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데 생각이 미쳤어요. 결국 혼자서 잘 사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와 동료, 지역과 연대하면서 사는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결국 사람,
문화재생은 잊힌 놀이와
유희 되살리는 것!



살롱드공공에서 한, 특히 기억나는 행사가 있는지요?

주 지난해 경기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생 리서치 작업을 진행했는데, 살롱드공공에서 참여자 워크숍을 열었어요. 그때 같이 모인 멤버들 사이에서 T.I.G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죠. (T.I.G는 'This Is Gyeonggiculture!'의 줄임말) 청년들이 교류하고 놀 수 있는 장소들이 대개 서울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경기도에도 이런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 공연하고 레크리에이션과 게임도 진행하고, 이야기 나누며 네트워킹 파티를 진행했어요. 첫 회라 매끄럽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참여자 대부분 만족스러워해 보람 있었어요. 호응과 반응이 높으니, 회가 진행될수록 점점 구성도 매끄러울 듯해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살롱드공공을 운영하면서 느낀 보람은 무엇인가요?

주 우리나라에 시장도 많고 상권도 많잖아요. 시장에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살롱드공공이 시장의 활력소 베이스캠프가 되어 주었어요. 어려운 점은? **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성과의 기준이 돈을 버는 데 있는 경우, 나보다 청년들이 상처받을 때 힘들죠. 결국은 그것 역시 사람과의 스킨십으로 풀어야 하는데 일대일 대응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살롱드공공과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이 주변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 우리끼리 커뮤니티 만들어서 대응하고, 운영 노하우도 공유하고 싶어요. 결국은 사람인데, 그런 걸 함께할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숙제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활동비와 생계 유지를 위한 대책이 없으면 활동가는 지쳐서 포기하게 되죠. 사람에게 어떻게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쇼카펠로우**나 뷰티플펠로우*** 등이 좋은 선례라고 생각해요. 변화는 사람이 만듭니다.

문화 활동가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요.

주 물량과 시장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삶을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예요. 프리마켓도 해보고 지원과 투자를 위해 애쓰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정량들만 남는 것 같아 아쉬웠어요. 가끔 최종 목적지는 여기인데 다들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깊이 고민하고 진정 가치 있는 길, 대안적인 삶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표현의 방식은 달라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풀어 나가, 깊이 있게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 아쇼카 펠로우(Ashoka Fellow Program)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뛰어난 사회 혁신가들을 선정하여 생활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펠로우 제도. 2013년 3월 아쇼카 한국 출범 이후, 7명의 한국 아쇼카 펠로우가 선정되었다

*** 뷰티플펠로우는 아름다운가게의 사회적 기업가 발굴 프로젝트로, 세상을 건강하게 할 유망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매달 15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해외 연수와 멘토링 등의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다.

문화재생은 무엇인 것 같아요?

주 살롱드공공에서 진행하는 '오픈 마이크'를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은 같이 노래도 듣고, 떼창(?)도 하고 잔치 같거든요. 원래 우리 생활문화에서는 유희가 중요했어요. 장날 장터에서는 풍물패가 공연했고 놀이거리도 많았죠. 유희와 놀이의 방식은 예전과 달라졌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같아요. 1970~1980년대의 이삼십 대와 오늘날의 이삼십 대 역시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욕구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표현 방식을 담아내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재생이고, 지역의 생활문화에 녹아들면 그것 또한 지역재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네마다 살롱드공공 같은 아지트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같이 와서 휴식하고 빙고게임도 하고. 재생은 결국 회복이 아닐까요. 과거에 우리가 향유했던 것들을 다시 향유하게 만드는 것. 공간을 운영하며 그런 의미로 문화재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과거의 것들 중에는 돌아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다시 향유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요. 그중 하나가 공연예술, 문화예술입니다. 살롱드공공이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계속 마련하고 싶어요. T.I.G도 그중 하나죠. (웃음) 유럽의 살롱이 연상돼요. **주** 맞아요. 유럽 문화에서 살롱이 큰 역할을 했죠. 우리도 그런 살롱으로서 기능하고 싶어요. 다들 미용실인 줄 알지만. (웃음)

▲ T.I.G행사 모습. T.I.G는 'This Is Gyeonggiculture!'의 줄임말이다.

물량과 시장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삶을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예요.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표현의 방식은 달라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조양 대표는 좋은 삶,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가 원하는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 형편을 살펴 내적 환경을 강건히 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외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도록 '만드는' 작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값지고 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혼자서 잘 사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잊힌 유희와 놀이를 되살려 신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애쓰는 살롱드공공 멤버들의 모습이 듬직해 보인다. 좋은 날 모여 향기로운 차와 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예술을 즐기고 각자의 삶을 논의하는 장소. 살롱이 본래 그렇게 기능했을 테니, 오산이 아니라 어느 동네든 살롱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마음 지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웃고 싶을 때, 혹은 조용히 음악 들으며 맥주 마시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찾는 단골 가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살롱드공공

오산시 오산로 252
http://gonggong2015.modoo.at/

| Section |

03

보통의 권리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보통의 권리

안산 고잔동 | 식물공방PLANT+PLANT 정성희, 김지연 - **식물과 함께 사는 '보통의 권리'를 위해**
용인 | 아홉색깔농부 김봉기, 장정근 - **꾸러미에 담긴 파릇파릇한 '우리의 삶'**
수원 지동 |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 **재생할 수 있는 노동, 그리고 여성의 시간**
의왕 | 담쟁이자연학교 이연숙, 이경선- **자연의 재생력을 배우는 학교**

#S3-01 | 안산 고잔동 식물공방PLANT+PLANT
정성희, 김지연

식물과 함께 사는 ‘보통의 권리’를 위해

| 이정화 독립 에디터

▼ 적절한캡션

안산은 녹지가 많은 편이다. 서울에 비해 농터나 농원이 많고 조경 사업을 위해 산림을 가꾸기도 하며, 몇 해 전부터는 도시 농부를 위한 주말농장이 성행 중이다.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고, 공업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의 정책이 반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 말하기는 주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민의 삶이 ‘생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후죽순 솟는 아파트와 빌라 단지 주변에는 인위적 느낌의 가공된 산책로, 인공 분수, 체육 시설, 감흥 없는 장식용 꽃이나 방치된 식물 정도 보인다. 자연과 가까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전기를 써서 물을 거꾸로 솟게 하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 고무 재질의 화단을 놓는 전경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에너지 낭비 없이 순환하는 가운데, 스스로 해를 거듭할수록 재생하고 푸릇해지는 풍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마을과 도시의 차가움을 감싸줄 감수성, 재원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련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다. 최근에는 전시용 조경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조금 가까이 가는,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는 생태 환경 개선 프로젝트나, 마을의 길, 공간 만들기 움직임이 소소히 보인다. 그중 눈에 띄는 젊은 집단이 이번에 소개할 식물공방PLANT+PLANT다.

▼ 김지연, 정성희 대표

2016년에 설립한 식물공방Plant×Plant는 대학에서 공간디자인과 생태 조경을 전공하고 도시조경연구실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정성희와 도자공예를 전공한 김지연이 식물에 대한 관심과 공예적 요소에 대한 관심을 합쳐 꾸린 신생 디자인 엑티비티 그룹이다. 두 사람은 평소 도시 공간의 녹색 공간 확대, 포켓 정원 확보, 정원의 대중화에 대해 고민하며, 학업을 마치고 당차게 의기투합하여 안산에 내려와 도시 공간을 재생하고 가드닝을 꾸미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앞서 소개한 리드어스에 이어 안산YMCA에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인큐베이팅 공간인 청담에 입주한 이 팀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시에서 녹지를 누리고 커뮤니티 공간을 누리는 '보통의 권리'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 '식물(Plant)'과 함께 식물을 '제작하는(Plant)'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이하 일문일답)

두 분은 어떻게 만났나요?

(정성희, 이하 정)입시 동기예요. 둘 다 미대를 준비했죠. 이전까지는 각자 공부했나요? **정** 도시 답사와 가드닝 자원봉사를 꾸준히 같이 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 보육원과 장애지원센터에 가든 만들기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때 지연 씨도 같이 했어요. 둘 다 도시에 관심이 많아 대학생 때 도시 답사를 자주 다녔어요. 지연 씨는 대학생 때 영상 동아리 활동을 해서 도시 관련한 영상과 사진을 많이 찍어 두었죠. 그렇게 같이 관심을 공유하다가 졸업 후 청담에 입주하면서 같이 안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담에 입주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정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했는데, 먼저 안산시 도시문화재생 사업에 참여했어요. 고잔동 쪽이었는데, 빌라들이 오래되고 낙후되다 보니 놀이터가 방치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놀이터를 도시의 작은 정원으로 돌려주자는 취지로 1년간 재생 사업을 진행했어요.(1, 2분기 열네 장소씩) 우리 팀은 하반기에 합류해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놀이터를 디자인했어요. 또 안산문화재단에서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축제를 기획했는데 우리도 참여했죠. 안산 중앙동 주차장에서 하루 동안 주차장을 비우고 청년예술인네트워크 단체 사람들과 '앙동 파티'라는 이름의 지역축제를 했어요. 우리는 전시 팀으로 참여해 문과인간들 팀과 협업해서 '도시 안의 정원'이란 콘셉트로 팝업 정원을 설계해서 시공했죠. 그리고 안산 YMCA에서 '청춘예찬'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중앙동에서 진행했어요. 우리도 참여해 프리마켓도 하고 드라이플라워로 작은 공예품 만드는 워크숍도 진행했죠. 마지막으로 안산시 외곽에 농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길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서울대 환경대학교 연구생들과 안산시 도시재생팀이 기획한 것인데, 우리 팀은 어떠한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면 농촌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위험 도로 공간을 정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제안했어요. 짧은 기간에 활동을 많이 했네요. **정** 안산에 청년 단체와 디자인 단체가 많지 않아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어요.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정 둘이 같이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해요. 그런데 나는 식물에 대한 지식이 있고, 지연 씨는 공예에 대한 지식이 많아 각자의 장점을 교환하죠. 안산 YMCA에서 추진한 '청춘예찬' 축제는 가드닝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는데, 지연 씨가 공예적 기지를 발휘해 잘 진행할 수 있었어요. **(김지연, 이하 김)** 도자기 작업을 하다 보면 화분, 화병, 찻잔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돼요. 언니가 프로젝트 제안을 할 때 그런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최근 식물로 작업하는 팀이 늘었고, 식물을 이용한 도시 재생에도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정 도시에 녹지를 포함시키기, 즉 조경적으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아이디어가 2009년부터 유행했어요. 식물을 위한 도시 재생이 지금으로선 도시적 차원보다 커뮤니티 차원에 보다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없어서 포켓 가든 위주로 작업하다 보니, 아무래도 맵으로 놓고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작업이 지역 생활민이나 오가는 사람들. 즉 소규모 커뮤니티 단위에 활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잔동 도시 가드닝 프로젝트는 어땠나요. **정** 상반기에 시공이 완료된 열네 공간 답사를 갔는데, 확실히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공간 조성 외에도 주민들에게 가드닝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민들이 참여해 가드닝을 같이 하면서 작은 취미활동이자 힐링이 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과정이 의미 있어 보였어요. 우리는 빌라 어르신들이 좋은 것, 바라는 것 등의 얘기를 듣고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디자인했죠. 그랬더니 반응도 좋고 활용도도 높더라고요. 특히 주민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좋았어요. 의외로 다들 관심이 많아서 공간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재료도 구체적으로 요구했어요. 연립주택 아주머니들이 꽃도 심고 화분도 심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들었죠. 인상이 좋아 지역 분들과 교류할 때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데 전문가 맞느냐고.(일동 웃음)

▲ 지난해 9월에 입주한 청담 사무실 벽에 놓인 작업 이미지들, 청담 청년들과 함께 사업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순서대로)

▲ 안산 중앙동에서 청년예술인네트워크 '앙동파티'에 참여해 팝업 정원을 설치한 모습. 프리마켓에서 드라이플라워로 진행한 워크숍, 안산시 도시문화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고잔동 주민들과 공간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순서대로).

'식물(Plant)'과 함께
식물을 '제작하는(Plant)' 청년들

안산이 경험을 많이 한 곳은 아닐 텐데, 활동하면서 어땠나요?

정 제일 좋았던 점은 참여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을 많이 제공하지만 활동 단체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죠. 어느 지역에 살든 서울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니 그럴 수밖에요. 안산은 청년 단체나 디자인 스튜디오 등이 적은 데 비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해서 참여 기회를 더 자주 가질 수 있어요. 아쉬운 점은 적은 예산 안에서 진행하려니 재료비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진행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아 조율이 힘들었어요.

졸업하고 첫 사업이었네요.

정 나는 복수전공과 대학원 공부로 졸업을 늦게 한 편이고 지연 씨도 휴학 등으로 졸업이 늦었죠. 그런데 우리 둘 다 학부 때부터 취직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싶었어요. 남들이 가려는 순차적인 길, 졸업이나 취업 등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일을 벌려 보고 싶었죠. 그래서 나도 여러 준비를 하고 지연 씨도 영상 공부를 병행하며 준비했어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실력을 닦으며 준비하면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경험해 보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수익 쪽에 어려움은 있어요. (웃음) 가족이나 주변의 잔소리는 없었나요? **김**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딱히 본인들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시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열심히 준비하면 오히려 사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고민하다가 현실에 맞게 살아 보기도 했는데, 별다르지 않았어요. 엄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엄청 슬픈 것도 아니고 엄청 비참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웃음) 주변을 봐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몇 년 지나면 기반이 잡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독자적 활동을 계속할 예정인가요?

김 이미 어른들이 생각하는 졸업, 취업, 승진 등의 시기는 지났죠. (웃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려 해요. 열 개를 바란다고 열 개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 미술 전공자의 장점은 복합적인 걸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하죠. 나는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 편이라 이 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일은 팀장이 되기 전까지는 한 파트만 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총괄적인 것을 다 하고 싶어요. 작지만 내가 다 총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언니랑 이름도 짓고, 장소도 구하고 하나하나 다 준비했어요. 의미 있고 좋았어요.

▲ 식물공방Plant×Plant가 꿈꾸는 '보통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가드닝 이미지

팀워크를 다져온 지는?

정 이제 8년 되었어요. 열아홉 살 때부터 뭉쳤으니. 안 싸우나요? **김** 친한데 예의에 관한 범위는 서로 넘지 않아요. **정**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요. 또 각자 독립적인 성격이 맞아서 딱히 한 가지만 주장하지 않아요. 팀을 늘리고 싶은 생각은? **정** 정말 늘리고 싶죠. 가드닝은 손이 많이 가요. '앙동 파티' 때 가드닝 전시도 우리 둘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었지만, 화분만 200개가 넘어서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죠. (웃음) 그럴 때 팀원이 더 많았다면 좋았을 거예요. 마음으로야 팀원을 늘리고 싶은데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아쉬울 뿐이죠. 기획하거나 디자인 제안하는 일은 우리 둘이 충분히 가능한데, 다른 활동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아요.

현황

제안안

▲▼ 식물공방Plant×Plant가 꿈꾸는 '보통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가드닝 이미지

왜 식물공방인가요?

김 원래는 '보통의 권리'로 하고 싶었어요. **정** 우리가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된 목적이 그것이죠. 공공의 사람들에게 녹지를 누릴, 각자의 가드닝을 하나씩 만들어 주자는 것. 사실 녹지를 누리고 커뮤니티 공간을 누리는 것은 보통의 권리인데, 도시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도시 사람들이 보통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런데 단체 이름이 그 단체의 활동을 명확히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보통의 권리'는 프로젝트명으로 활용하고, 팀 이름은 공예적인 것과 식물적인 것을 결합해 '식물공방Plant×Plant'로 지었어요. 팀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김** 'Plant'가 사실 공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공장까지는 아니지만 'Plant(식물)를 Plant(제작하는)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짓기도 했죠. **정** 서울에서는 녹지를 누리려면 여의도까지 가야 해요. 주변 볼거리나 경관이 삭막하고요. 최근에는 시에서도 '도시 정원'을 모토로 공간을 많이 제공하려 하죠. 하지만 서울시 고가도로도 일상 공간이 아니라 이벤트 공간의 성격이 강해요. 일상적인 공간에서 좀 더 녹지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산시에서도 기회가 되면 도시 공원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김** 청년들이 자취할 때 대부분 원룸에서 생활해요. 친구 집에 가도 작은 평에서 햇볕도 안 드는 집에서 생활하죠. 그러니 자연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행위들만 있게 돼요. 누구나 녹지를 즐기고 싶어 하니, 이 작업은 공공적인 동시에 결국은 개인 집 하나당 작은 정원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의 권리를 찾는 이 일이 나와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집에 가도 작은 평에서
햇볕도 안 드는 집에서 생활하죠.
그러니 자연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행위들만 있게 돼요.
이 작업은 공공적인 동시에
결국은 개인 집 하나당
작은 정원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식물공방PLANT+PLANT가 생각하는 문화 재생은 무엇인가요?

정 재생이라는 단어는 대개 실물적인 것 뒤에 붙죠. 그런데 문화는 추상적이에요. 문화를 재생한다는 건 문화 자체가 쇠퇴하거나 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재생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조성된 문화 자체가 안 좋으니까 재생을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시 문화도 문화의 일부분이고,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서 생활하고 즐기는 것 역시 도시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화를 즐기려면 일단 도시 자체가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은 부흥 정도가 아닐까요. 도시에서 문화는 예술적인 장소나 쇼핑센터 등에서 즐기는 정도 아닌가 싶어요. 일상적인 길에서는 문화를 즐기지 못하니까요. 그럴 때 조경적 영역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시 문화를 제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화재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경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 결국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누리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생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같은 시간을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친구에게, 지인에게,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참 밝다.

#S3-02 | 용인 아홉색깔농부 김봉기, 장정근

꾸러미에 담긴 파릇파릇한 '우리의 삶'

| **은정아** ebs 지식채널e 방송작가

▼ 꾸러미에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농산물을 담아 용인 시민들의 식탁까지 배달하는 아홉색깔농부 멤버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아홉색깔농부'를 찾아가는 길은 색달랐다. 큰 도로를 따라 달릴 때까지만 해도 평범했다. 차창 밖으로는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대로를 벗어난 순간 풍경이 달라졌다. 머릿속에서 '여기가 어디지?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8차선 도로가 2차선이 되고, 높은 빌딩 대신 겨울이 내린 들판이 펼쳐졌다. 시끄러운 차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거친 겨울 바람 소리가 대신했다. 같은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스쳐 지나온 용인과 아홉색깔농부가 위치한 용인은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용인 시민은 약 1백만 명이다. 그중 농부 비율은 2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용인은 지형도를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서부)과 넓게 펼쳐진 논밭 지역(동부)이 거의 반반인 도농복합도시다. 고즈넉한 풍경을 안고 있는 논밭 지역에 아홉색깔농부가 위치해 있다. 작은 도로변에 '아홉색깔농부'의 팻말이 보였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롯이 앉아 있던 정갈하고 깔끔한 농산품들이 보였다. 그곳에서 환한 미소를 지닌 아홉색깔농부들(김봉기 이사장, 장정근 조합원)을 만났다.

뱅글뱅글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농산물, 이상하지 않나요?

◀ 아홉색깔농부를 표현한 이미지

아홉색깔농부 이름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김봉기 아홉색깔농부 이사장, 토박이농장 운영, 이하 김) 2011년에 용인시농업기술센터 'e-비즈니스 대학'에 전문농업기술과 농업경영 역량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 열렸어요. 거기서는 농사짓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생활 법률이라든지 세무나 회계도 가르쳐 주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활용법 등도 가르쳐 주었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강의 끝나고 후속 모임을 가졌어요. 아홉 명이 모였는데 다 개성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홉색깔농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웃음)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실천해 보자. 새로운 유통을 직접 해보자.'라며 뜻이 모였어요. 왜 우리 농산물이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와야 하죠? 지역 농산물이 가락공판장, 도매업자, 마트를 거쳐 다시 이 지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사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농부들이잖아요. 아주 큰 걸 갑자기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통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의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이 '꾸러미 사업'이었다. 2014년 4월 협동조합도 설립했다. 농가들은 자신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꾸러미'에 싸서 용인 일대에 직접 배송한다. 2016년 2월 현재 출자 조합원은 모두 11명이고, 협력 농가는 20여 곳에 이른다. 협력 농가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다. 서로서로 추천하다 보니 하나둘 늘어났다. 같은 용인 지역이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만날 일이 없었던 농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협동조합이 되면서 서로 모여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면서 교류했고, 서로 도움받는 일이 많아졌다.

꾸러미는 일주일에 한 번, 당일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쌈 채소나 각종 계절 농산물인 제철 꾸러미를 기본으로 하고, 쌀, 오미자, 꿀, 된장처럼 상시로 판매되는 제품을 추가한다. 협력 농가 제품까지 모든 물품을 합치면 약 60~7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풍성하다. 또 지금 당장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객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농가를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 '아홉색깔농부' 그 말 그대로 각자 고유한 색을 지닌 농가들이 함께한다. (토박이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김봉기 이사장, 전 이사장이자 유기농 오미자 등을 재배하는 장정근 조합원)

꾸러미 상품 배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 화요일 오전 10시 정도까지 주문을 취합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조합원 농가에 공지를 하죠. 그러면 수요일 아침에 농가에서 수확해서 오전 11시 정도까지는 다 가지고 이곳으로 옵니다. 그러면 바로 포장해서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밭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네다섯 시간 안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받는 것, 정말 신선할 것 같은데요. 꾸러미를 받아든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장정근 아홉색깔농부조합원, 새달농원 운영, 이하, 장) 가격이나 상품의 질 면에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저희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일반 관행적 유통 과정에 비해서는 20~30퍼센트 정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야채는 아침에 바로 따서 당일 네다섯 시간 안에 고객에게 가져다드리거든요. 그래서인지 고객들이 체감하는 싱싱함의 정도가 시중 농산물과는 다르죠.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은 우리 채소들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면 20일이 가도 싱싱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마트에서 산 채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트는 아무리 유통 과정을 짧게 잡아도 48시간 이상은 걸리거든요. 게다가 유통 과정에서 내내 온도가 오락가락해요. 밭에서 수확해서 가락동에 갈 때는 시원한 냉장차로 가죠. 그렇게 가서는 실온에서 막 내놓고 도매상에 팔아요. 그리고 다시 냉장으로 갔다가 실온으로 갔다를 반복하죠. 야채들도 생명체인데 온도차가 심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우리 꾸러미 야채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싱싱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밭에서 바로 따서 가져가면 오히려 별로 안 싱싱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싱싱함이 훨씬 더 오래가는 거예요. 고객들도 그 부분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들의 신뢰를 이어가서 만족도를 높여 가는 것이 저희에게도 아주 중요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컬 푸드도 좋지만,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믿을 만한 어떤 공증 절차가 있나요?

장 저는 유기농 오미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홉색깔농부 전 조합이 유기 농사를 짓지는 않죠. 사실 유기농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농약이나 비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남용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 아홉색깔농부는 그냥 조합원 자격을 주진 않습니다. 준조합원으로 1년간 같이 생활해 보고 1년 후 조합원들이 모두 모여 결정해요. 저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첫째 원칙은 '정직'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조합원에 가입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죠. 소비자들도 우리 조합원의 '정직함'을 꾸러미를 통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까지도 밭에 있던
싱싱한 야채들을
당일 수확해 정성껏 포장한다.
제철 채소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들이
꾸러미에 담긴다.
반찬이나 삶은 나물, 묵 등도 추가된다.
아홉색깔농부는 밭에서 식탁까지
한나절 안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꾸러미를 싸고 배달한다.
생명력을 머금고 있는 싱싱한 농산물은
오늘 저녁, 누군가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 꾸러미 속에 들어가는 각종 농산물과 집하장그리고 꾸러미 소포장된 모습.

농산물을 통해 농부의 정직함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생소하면서도 감동적입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와 관계 맺을 기회도 거의 없는데요. 아홉색깔농부의 경우 꾸러미 사업을 하면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처음부터 함께해 주신 고객들이 있어요. 약 일곱 분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꾸준히 주문을 하세요. 거의 매주. 그분들한테 좋은 식품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이제는 가족이 먹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분들을 직접 뵙고 물품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적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걱정을 많이 하죠. '사업이 되겠어?' '이렇게 바쁜데 이 사업을 접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들 하지만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요. 남들이 안 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죠. 오랫동안 꾸러미를 이용해 주신 분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먹는 것' 같은 꾸러미가 가능했던 것은 짧아진 유통 과정 덕분이었다. 가격은 낮아지고, 신선도는 높아졌다. 아삭거리는 야채의 생명력을 직접 맛본 사람들 중 고정 고객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는 직접 만났고, 서로가 서로를 믿게 됐다. 아홉색깔농부가 꿈꾸는 것은 이런 선순환이다. 이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아홉색깔농부는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정직하고 신선한 농산물은 기본이다. 그 외에도 꾸러미 회원을 농장으로 초대해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팜파티(Farm party)와 번개팅도 수시로 열고 있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15년에는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의 공간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도 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전국에서 열리는 농산물 판매 및 홍보 부스도 빠뜨리지 않고 참가한다. 그렇게 아홉색깔농부들은 꾸준히 지역에서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로컬 푸드가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 왜 꼭 로컬 푸드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는 오히려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푸드 마일리지나 유통의 문제 등을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밭에서 바로 딴 농산물 드셔 보신 적 있나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걸 뜯어다가 집에 가져가면? 맛이 없어요. 농산물도 생명체입니다. 수확하는 순간, 자기 몸 안에 저축되어 있던 생명의 힘을 소비시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유통 과정이 길어질수록 맛과 영양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해요. 로컬 푸드는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것을 살아 있을 때 공급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의 삶도 살아납니다.

살아 있는 것을 살아 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 안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더 쉬운 것은 아니다. 인력, 예산, 노하우 그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문 접수부터 포장, 배송, 고객 응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생산자 조합원들의 몫이다. 농사만 지어 온 농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꾸러미 수도 많이 줄었다. 최대 60개까지도 받았던 꾸러미가 최근 반 이상 줄었다. 겨울이라는 계절의 영향이 크지만 농부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진다.

▲ 아홉색깔농부들이 지역민들과 함께한 다양한 행사들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김 주문 접수부터 포장, 배송까지 농가 조합원들이 다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농사를 못 짓지요. 기름값, 인건비 따지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기업들처럼 주문을 무작정 받을 수도 없어요. 용인 지역 안에서 당일 배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농산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고객 응대도 서툴죠. 카페에 고객이 가끔 '불편하다'는 글을 써 놓기도 하는데, 농사짓고 꾸러미 배달하느라 카페를 꼼꼼히 못 챙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면 힘 빠지고 속상합니다.

장 저는 힘들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유기농 오미자 농사를 짓는데요. 오미자로 푸딩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샘플을 만들어 시식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오미자 본연의 맛을 살린 맛보다는 향료, 색소, 구연산을 넣은 제품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고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오염된 음식에 길들여져 있구나. 우리나라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인공 향료나 색소를 쓰면 원가가 적게 들죠. 유기농 제품은 원가의 배 이상 들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색소 넣은 것이 좋다니 고민되지 않을 수 없죠. 사실 경제적인 것만 따진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저는 소비자들에게 오미자 원래의 맛을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맛을 잃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홉색깔농부는
단순히 싱싱한 지역 농산물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흙, 자연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생명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열고
지역민들과 만나고 있다

잃어버린 '맛'을 찾는 길? 잃어버린 '삶'을 찾는 길!

아홉색깔농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꾸러미를 만들고 배송하는 이유는 하나다. 자신들을 믿고 변함없이 꾸러미를 주문해 주는 고객들에게 직접 가꾸고 키운 농산물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전해 주는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꾸러미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실제로 로컬 푸드가 잘 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시에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 선순환의 고리 속에서 지역 경제는 물론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용인에서 생산합니다
그날 배송합니다
용인 시민의 건강은 내 가족처럼
환경을 생각합니다
나눔과 순환경제를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내 가족처럼 여깁니다
땀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생산합니다
아홉색깔농부가 신뢰하는
농산물을 드립니다
- 아홉색깔농부의 원칙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장 로컬 푸드라는 이상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 당연히 농민들의 노력과 역량을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그 뒷받침에는 반드시 정책적 지원이 있거든요. 새로운 유통 질서의 기초 그림을 그리고, 강력한 추진 체계로 사업의 역량을 끌고 나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천혜의 지역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농부들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유통 채널을 만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전문 인력이 이끌어 주는 가운데, 우리 농민들이 뒷받침하면 이상적인 로컬 푸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농민이 그 역할을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죠.

꾸러미를 통해 피어나는 지역 문화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아홉색깔농부 김봉기 이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꾸러미가 지역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인 토박이로 농사를 지어 온 김봉기 이사장은 동네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대보름 행사나 마을 제사 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취재를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지역 문화다. 그러나 '지역 문화'라는 것이 지역 자체에서 만들어지고 퍼져 나가는 '고유한 문화'라고 할 때,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제대로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지역 문화가 있을까?

땅의 정직함을 믿는 아홉색깔농부는 정성껏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키워 낸 생명들을 직접 담아 매주 꾸러미를 싸고, 전달하며, 지역민들과 호흡한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시간과 공간은 지역민들과 공명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이 만들고 순환시키는 '생명'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아홉색깔농부가 만들어 가는 원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렇게 꾸러미 속에 파릇파릇한 삶을 담아 전하는 아홉색깔농부는 오늘도 '용인'이라는 지역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아홉색깔농부

http://cafe.naver.com/9cf

015 Company)

▼ 마을의 작은 도서관과 함께 쉐어하는 일공일오 컴퍼니 작업장.

다시 젊어지려 하는, 생명의 약동을 지속하려는 이 사회에서 노령화와 함께 지적되는 걱정거리는 저출산일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을 말하는 여러 대안들은 여성을 타깃으로 삼는다. 작년 연말에 공개된 '대한민국 출산지도'* 에 여성을 임신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지도에서처럼 여성은 그저 '출산'이라는 재생 활동을 일임받은 이들일까? 여성은 사회의 재생을 위해 가족 안에 머무르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만 충실해야 하는 걸까? 그 여성들의 '임무 달성'으로 사회가 정말 재생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한편 사회는 그 일원에게 어떤 다른 임무를 부과하여 하루하루 재생하고 있을까? 성인이 되면 나인 투 식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임무로 당연시한다. 노동 사회의 지배력 속에서 우리는 노동에 대한 강박은 물론 취미나 여가를 즐기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 쓰이는 시간이라 여긴다. 그러면서 정작 노동 시간 자체에 대한 고민, 비판, 변화는 증발되었다. 그리고 달성하는 2113시간.** OECD 34개 국가의 연간 노동 시간에서 1, 2위를 다투는 한국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회복하는 대가로 (그나마) 받는 돈, 즉 임금 수준은 중하위(22위)에 머문다. 이렇게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노동 사회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노동 시간을 만드는 여성들이 있다. 텐 투 쓰리,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루 8시간이 아닌 그 절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는 만큼 일하자."는 뜻의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대표를 만났다.

일공일오컴퍼니는,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 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팝니다.
천연 발효빵을 만들며 발효·순환·이윤 남기지 않기·빵과 사람 키우기에 동참합니다.
느리고 정직한 베이커리와 빠르고 정확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협동과 공생, 호혜를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고
가족·이웃 공동체가 재건되기를 희망합니다.
- 일공일오컴퍼니 작업장 복도 벽에 붙은 다짐들에서

일공일오(1015)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다들 10-15를 잘 지키고 있나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빵 만드는 일과 접목했는지 궁금하네요.

(장예원, 이하 '장') 처음에는 제과제빵 교육장에서 만난 주부 세 명이 저의 제안으로 함께 시작했어요. 빵을 계속 만들어 볼 공간이 필요했는데, 마침 자동에서 마을 도서관을 꾸리던 하꿈작은도서관 하성식 선생님이 저의 페이스북을 보시고 '여기 오븐을 놓을 좋은 자리가 있는데 함께하지 않겠냐?'고 제안해서 오게 됐어요. 그분은 이 공간을 '학교 밖 청년, 마을 주민들의 직업 체험 공간, 아지트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주변에 유난히 지동이란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 줄곧 이야기만 들어오다 마침 오게 되었죠. 와 보니 제가 좋아하는 전통시장도 있고, 조용하고, 속정이 많은 아기자기한 동네예요. 아직은 납품량이 많지 않아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다 같이 나오고, 저는 매일 나와요. 일이 많아도 아이들을 하원시키러 가야 해서 3시까지는 안 돼도 5, 6시 정도로 마무리하긴 해요. 일 시작하고선 24시간 빵 생각하는 것 같은데, 빵 만드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저희 다 다른 전공을 가지고 일하다 결혼 등 여러 이유로 경력 단절이 된 이후에 빵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인 '하자센터'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그때 디자인보다는 기획 쪽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스물여섯 살 때 결혼도 하고 신랑 따라서 수원 왔어요. 결혼을 일찍 하셨네요? **장** 네, 졸업 후 2년 정도 일하다 바로 결혼했거든요. 막상 일을 안 하니 너무 일하고 싶어져서 둘째 9개월째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수원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어요. 근데 주말도 없고 살림은 살림대로 해야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 보셨죠? 5급 공무원 워킹맘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극단적이지만 이것이 정말 일하는 여성의 현실인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들이에요. 저는 일반 기업도 아니고 여성들이 많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했는데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여성의 일과 대안적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오전 8시경 정부 세종청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공무원 김○○ 씨의 사건을 말한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그녀가 사망한 이유로 '과로'가 지적됐다. 그 일주일 동안 평일에 저녁 9시 이전에는 퇴근한 적이 없고, 서울 출장을 가서 밤늦게 귀가한 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오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 새벽 5시에 출근해 밀린 업무를 봤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일요일은 산후휴가에서 복귀한 그녀가 쉬지 못하고 연속으로 일한 지 7일째 되는 날이었다. 곽상아, 「숨진 채 발견된 '워킹맘 공무원' 안타까운 사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 1. 17. 김상윤, 「정부세종청사에서 30대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조선일보, 2017. 1. 15.

▲ 일공일오컴퍼니 복도에서 볼 수 있는 다짐들.

▲ 일공일오컴퍼니를 함께 시작한 사람들.

▲ 10:00-15:00 이외의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는 일공일오의 오븐 주변이 정갈하다.

공익적 의미의, 대안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회사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기존 경제 구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점도 있겠어요.

장 그렇죠. 수익을 내고 성과를 내야 하니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제가 좀 무대뽀(?)기질이 있어서(웃음). 빵을 한다고 하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몸이 정말 힘든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매력 있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면 너무 행복하고 나름 실력도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강습 들으러 가서 자격증 따면 그나마 성과가 좋은 걸 텐데, 서로 잘 만났네요.

장 우연이었죠. 제가 인복이 좋은 것 같아요. 마침 저희끼리 그렇게 잘 맞았고. '어떤 일을 같이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획 아닌 기획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노동시간의 과부하, 여성의 경력 단절, 기혼 여성 일자리 부족 실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2011년부터 여성의 대안적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인 경력 단절 여성들과 함께 '소셜메이트 솜'이라는 협동조합의 멤버로 스터디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2016년 진행된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지원해 1년 정도 경영 멘토링과 사업 지원금을 받아 공간과 시설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정말 무턱대고 빵을 구워대기 시작했죠. 한여름이였는데 250도의 오븐 앞에서 땀을 범벅으로 흘리며……(흑흑) 그렇게 많은 빵은 누가 다 먹었대요?(웃음) **장** 그거요? 진짜 20L, 50L 쓰레기통 속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웃음) 저희가 만드는 빵이 계란, 버터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부피가 커요. 바게트도 이만하고 깜빠뉴도 되게 커요. 다 밥 되는 빵들이군요. **장** 네, 저희가 다들 건강한 빵들, 담백한 빵들,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자극적이지 않고 꾸준히 식사가 될 수 있는 빵을 좋아해요. 입맛이 비슷해요. 행궁동에 슬리핑 테이블이라는 카페에서 어떻게 먼저 알고 제안을 하셔서 치아바타랑 바게트를 납품해요. 저희는 슬리핑 테이블이 원하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고 미친 듯이 실패했죠. 그때가 여름쯤이었는데, 주문을 받고 첫 납품을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는데, 한 달 넘게 아무리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러 갔는데, 슬리핑 테이블에서 '괜찮으니 이때까지 만든 거라도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도 정말 사업적으로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상생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던 거 같아요. 얼떨결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구웠던 빵은 이미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갖다드리려고 마지막으로 구웠던 빵이 정말 원하는 대로 잘 나왔어요. 무슨 드라마처럼!(웃음) 우여곡절 끝에 빵을 갖다 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찾던 빵이다. 파리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다.'는 평가도 얻어서 그때부터 쭉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오븐 탓은 아니고 저희 탓이었더라고요. 지금은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안에 카페 '슬로비'에도 바게트를 납품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으라차'에도 납품하고 있어요.

▲ 일공일오컴퍼니에서 만든 빵. 표면에 갈라진 모습이 꽤 멋있다.

▲ 이렇게 멋지고 맛난 빵을 만들기까지 일공일오컴퍼니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포기하려던 순간 원하던 빵을 만드는 데 성공한 순간을 이렇게도 자축한다.

그렇게 파트너가 만들어지는군요. 고객이자, 거래처이자, 동료가!

장 그렇죠. 정말 저희를 뭘 보고 쓰셨겠어요. 상생하자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희가 더 열심히 했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참, 저희 노마드브레드(http://storefarm.naver.com/nomadbreads/)라고 매장 납품 외에도 온라인으로 판매도 해요. 혹시 보셨어요? 네.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아직까지 수익이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포장 재료나 공임이나 뭐가 많이 들 거 같은데요. **장** 전혀 안 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비싼 임대료를 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꾸준하게 주문이 있더라고요. 공간을 저렴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일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됐군요. **장** 다 네트워크로 사는 거 같아요.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웃음) 그런데 저희를 인터뷰이로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1015'라는 이름에서 '이분들은 노동 시간에 관해 고민하면서도 여성의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저도 장예원 대표님과 비슷한 삼십 대 중반쯤 됐는데, '청년'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인생에서 이렇게 버텨야 하는 이 나이와 공동체적 문화 활동을 연결해 보면 어떨까?' 싶었고요.

장 제가 수원 산 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예전 직장이 행궁동에 있어서 지역과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행궁동이 인구도 감소하고 점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구도심이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역 재생을 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저는 청년들이 뭔가를 도모하는 것에서 지역의 활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슬리핑 테이블, 공존공간, 카페7209, 도이창, 원모어 등처럼요. 청년들이 개성 있는 공간과 수익 모델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좋아 보여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동도 청년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청년 상인을 지원하는 '청년몰'과 '푸드 트럭'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역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 보이더라고요. 한 분은 상인 자녀인데 호주에서 9년 이상 유학하며 쉐프로도 활동했고 베이킹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또 제빵을 전공하고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다가 결혼하고 출산해서 그만둔, 굉장히 경력, 실력이 있는데도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가려고 계속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또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커피 하는 친구, 독립출판 하는 친구, 기획하는 친구들과도 계속 일을 벌일 예정이에요.

일공일오컴퍼니 첫 워크숍
… 파도 소리 들으며
신나게 수다 한 판.
내년 계획 조금.
새 식구 맞을 기대.
그대들과 함께라면
앞날이 두렵지 않소~~~
- 장예원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 리플릿에 싣기 위해 일공일오컴퍼니가 구운 빵들을 사진으로 남겼다. 친구들의 반재능기부로 멋진 사진이 나왔다.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온 이야기도 풍부하고요. 지금 이 인터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밖에서 일공일오컴퍼니를 바라보는 선입견에 반대 의견도 있을 텐데요?

장 저희가 사업에서 지양했던 게 엄마, 주부라는 타이틀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였어요. 현실이기도 하지만 여건이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더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가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고 판단받는 게 싫었거든요.

▲ 일공일오컴퍼니가 개인 후원을 받아 마무는 곳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세대 빌라 1층이다. 마을 주민들, 친구들, 고객들과 함께 건물 주차장에서 그집앞 프리마켓도 열었다. 아이들과 빵을 만드는 프로그램 또한 빠질 수 없었다. 2016. 6. 26.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왠지 모르게 늙어 버리고 삶이 어느 한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 같나요?

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제가 조금만 주춤하면 '간 보면서 일하지 마라.'고들 해요. 기존의 많은 사례들이 여성이나 엄마라는 이유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회식, 외부 대표님들 만나는 자리에는 웬만하면 가거든요. 노력은 하는데 아이들에게도 소홀할 수가 없어요. 엄마나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답답함이 밀려들어요. 그래도 많이 문제화, 공론화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점점 좋아지는 과정이겠죠. '작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정도도 저는 좋아요.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이게 가능해?' '안 될 거야.' 이렇게 짐작을 하든 말든, 물음표가 되는 역할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일을 하다니, 남편이 잘 버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야근이 잦고, 회식도 많고, 매일 정말 녹초가 돼서 퇴근하는 모습을 봐요. 남자든 여자든 노동의 문제가 잘못된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 남편은, 아니 일하는 사람은 전혀 육아에 참여할 수 없겠어요.** **장** 네. 그래서 제가 발악을 하는 거 같아요. **아이들도 작업장에 놀러 오나요?** **장** 안 추울 때는 어린이집 끝나고 와서 놀고 그랬어요. 전에 디자인 회사에서 일할 때도 야근이 많았는데, 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일했어요. 물론 일에 집중은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은 그때부터 엄마가 일한다는 개념이 섰던 것 같아요. 육아만 하는 엄마들도 대단하고요! **아이들은 엄마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장** 아직 어리긴 한데, 엄마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엄마가 빵 만들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더라고요. 얼마를 버는지는 애들이 모르니까. (웃음)

로고 디자인은 누가했나요?

장 제가 했어요. 모든 비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자입니다. (웃음) **정말 직업 재활의 시대이군요.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 기업 지원은 초반에 기자재 등 구입에 쓰이고, 다른 것도 있었나요?** **장** 공간 임대료, 교육비 쪽에서 초반에 많이 도움받았는데, 가장 큰 도움은 사실 멘토들, 같이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만난 거예요. 도움도 주고받으면서 어려움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이 가장 좋았어요. **외롭다고 느끼나요? 연대할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을 만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장** 육아로 만난 엄마들의 커뮤니티는 활발한데, 거기서 제가 '창업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엄마들이 굉장히 대단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거리감을 느끼면서 대화거리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혹은 이런 사업 문제에서는 다들 '선망하지만 나는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라는 약간의 틀이 엄마들에게 있어요. 맞벌이 중이어서, 아빠는 밤늦게 들어와서,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육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 건 저도 너무 잘 이해돼요. 그래도 엄마들 중에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만나요. **함께 일공일오컴퍼니를 만들어 가는 여성이자 엄마인 다른 구성원들과도 생각의 차이를 느끼나요?** **장** 셋 다 성격이 너무 달라요. 저는 깃발 꼽고 실력도 없으면서(웃음) '으쌰으쌰'하는 성격이라면, 같이 하는 언니는 굉장히 꼼꼼하고 뭔가 연구하는, 천천히 제대로 만들어야지 앞에 한 발 나갈 수 있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부족한 점은 제가, 저의 부족한 점은 그분이 채워 주면서 어렵지만 앞으로 조금씩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으면서 힘든 일이죠. 혼자서는 못하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과 상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 중요성과 방법을 깨우치는 작년이었어요. **빵 공부가 '함께'가 되는 원동력인가요?** **장** 어쨌든 공통 관심사가 빵이고, 일을 찾고 싶은 욕구가 다 같았으니까 함께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우리는 매장을 내야 해!' 이러면 옆에서 '아직 멀었어' 하고 신중하게 답하죠. 그럼 저는 또 '알겠어. 조금 천천히 할게.' 그래요.

▲ 일공일오컴퍼니 로고가 인쇄된 블라인드 뒤로 주방이 보인다. 이 조용한 주방에서, 스스로 정한 노동 시간 동안 만든 일들을 떠올려 본다. 지동 아이들과의 수업, 지동 창작센터 주민 프리마켓, 기업의 문화 활동, 〈포레포레〉 마켓, 화성행궁 행사, 사회적 기업가 온라인 판매, 드론 페스티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벌터 마을 문화마실' 수업, 크리스마스 때 경기청년문화창작소에서 아이들과의 워크숍… 이 시간들은 삶을 노동에 종속하려는 권력, 자본, 혹은 그 어떤 힘에 대항해 자기만의 노동의 의미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들이 아니었을까?

▲ 일공일오컴퍼니를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들.

▲ 경기청년문화창작소에서 열렸던 〈포레포레〉에서 빵을 판매했다. 장예원 대표는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고 "기운이 좀 없었는데 제일 먼저 완판하고 나니 다시 힘이 난다! 우린 잘 할 수 있다!"고 썼다.

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우선인 가치는 뭘까요? 공동체가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나요? **장** 공동체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함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 머리 아프게 여러 명이서 뭔가를 도모를 해? 그냥 개인사업자로 편하게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같이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고생과 희열을 함께 공유하고 추억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디자인도 혼자 해서 제가 그만뒀나 봐요. (웃음) 자꾸 기획을 하고 뭔가 새로운 디자인을 하라는데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와서 뭔가 보고 얘기해야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종일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걸 뽑아내라고 하는지. 저는 그게 제일 답답했고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 만나고 같이 의견 나누고 새로운 걸 듣는 생활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니까 좋아요. 제 시간 제가 계획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좋고요. 함께하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적어질 텐데요? **장** 혼자만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결혼과 출산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없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대가족 안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합의하는 걸 자연스럽게 경험하다 보니까, 일하는 공동체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이십대 중반 이른 나이에 결혼하면서 많이 바뀐 건가요? **장** 저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고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별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며 이때까지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렸죠. 아이는 내 맘대로 안 되고 나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자신감

#S3-04 | 의왕 담쟁이자연학교 이연숙, 이경선

자연의 재생력을 배우는 학교

| 김진주 시각 작가

▼ 이연숙, 이경선 생태환경 교육 활동가가 수업 자료로 활용할 다양한 새 세밀화를 그리고 있다.

'재생'은 '생명과 활기를 다시 얻음'을 뜻하는 생물적, 생태적 인식을 전제하는 단어다. 공동체의 변화를 모색하는 문화 활동에 '재생'이라는 단어를 덧붙인다면 어떻게 될까? 자연환경과 생명체로서의 공동체적 조건을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은 '문화'라는 인간의 법칙을 경작하는 활동에 에너지원이자 물질적 재료가 되어 주었으나, 역설적으로 '문화'가 발전하는 동안 그와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연'은 소모되고 파괴되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재생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되어 버렸다.

10여 년 전, 안양, 군포, 의왕, 세 도시의 사람들은 띠를 이뤄 '안양천 살리기'라는 단어가 적힌 천막을 들고 물속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오염 물질을 걷어 내며 자연을 해치는 행위를 감시했다. 자연을 재생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은 예술가들과 문화 기획자들을 움직였다. 물길을 재생하려는 공동체적 움직임을 주제 삼아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특정 장소에 침투하는 야외 설치, 퍼포먼스 등의 작품이 모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이전보다 맑아진 안양천에 인간, 새들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들이 돌아왔다. 이로써 재생은 끝난 것일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녹조는 여러 강에 번져 나가고, 미세먼지의 환경적 영향력은 알 수가 없다. 인간, 문화에 의해 재생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자연을 위한 활동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풀이 날까 싶은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담쟁이처럼, 의왕역 뒤편, 철도 차량기지와 공사 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비보호 신호등 아래로 지나가는 허허벌판을 지나면 보이는 왕송호수와 텃밭과 이웃해 살아가는 담쟁이자연학교의 이연숙, 이경선 두 생태환경 교육 활동가와의 대화에서 재생을 위한 공동체 문화 활동의 단서를 찾는다.

씨앗이었던 때,
새싹이 나던 때

담쟁이자연학교가 지금은 의왕에 있지만, 원래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의 소모임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경선, 이하 '경') 2000년에 환경운동연합에 꽃마리라는 생태 모임이 시작됐어요. 저는 2001년부터 참여했는데, 우리끼리 좋아서 산에 다니고 꽃 보러 다녔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하고도 뜻이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제안했고, 파트너 학교가 하나둘 생겼어요. 요즘은 생태 교육하면 다 개념화돼 있지만, 그때는 아이들하고 가벼우면서 진지하게 자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정도였어요. 차차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가 생기다 보니 저희들도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일 공간도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 무렵 꽃마리 모임이 해체됐어요. 쉬다 보니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싶어요. 한 6개월 쉬고, 다음 6개월 동안 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을 도와주던 중에 의왕 왕송호수를 모니터링하다가 보니까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시 의기투합해서 만난 선생님들끼리 '큰 욕심 내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맘껏 환경 교육하자!'고 2015년 1월에 담쟁이자연학교를 만들게 됐어요. **(이연숙, 이하 '연')** 저는 꽃마리 모임엔 2005년부터 참여했고요. 담쟁이자연학교는 2014년에 준비해서 그다음 해에 협동조합으로 등록했죠.

▲ 담쟁이자연학교로 찾아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환경들. 테두리만 그려진 새 그림 속을 채우며 아이들은 하나하나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자연을 깨우친다.

두 분은 원래부터 자연에 관심이 많았나요?

경 전혀 없었어요. 숲에만 들어가면 너무 간지러웠어요!(웃음) 그런 제 마음이 '감동이야!'로 변해서 환경 교육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애들 키우고 커피 마시던 아줌마였는데 TV 뉴스에서 피켓 들고 서 있는 환경 단체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간절할까?' 싶었어요. 마침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업이 있다기에 간 거예요. 농부 아저씨들은 싫어하는 한삼덩굴이 네발나비 섭식식초거든요. '한삼덩굴이 없으면 세상에서 네발나비를 볼 수 없다!' 약간 극단적으로 배우긴 했어요.(웃음) '이름이 있구나!'부터 시작해서, '스쳐 지나갔던 아무것도 아닌 풀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아는 순간 완전히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가렵고 잘 모르고 벌레 있을 거 같아서 풀을 멀리하고 그랬는데,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순간 벽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 이걸 아는 아이들은 나중에 생명 존중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겠구나!' 그때는 강의에서 듣는 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오래되다 보니까 안일한 생각도 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 같기도 해요. **연** 감동이 없죠. **경** 그래서 작년에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해! 개혁해야 해!' 그랬어요. **연** 저는 좀 달랐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연을 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친숙했어요. 결혼하고 도시에 살면서도 자연에 관해 알고 싶은 게 많았어요. 아이들은 익숙해야 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교육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의무감과 믿음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한 거죠. 의무감이 있어도 지속하긴 어려운데요. **연**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활동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한테 가장 맞는 활동인 거 같아요. 천직이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경 진짜 그런가?(웃음) 의심하면서 하고 있죠.

▲ 꽃마리 소모임 이후 재결성된 담쟁이자연학교에서도 꽃을 살피는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4월 의왕, 수원, 용인에 걸쳐 있는 백운산에서의 들꽃 모임 장면. 사진 하단 왼쪽에서 작게 보이는 하얀 꽃을 찾아보자. 이 꽃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사진 속 쪼그려 앉아 머리를 숙인 한 사람의 자세처럼, 자연 속에서 의미를 찾아 되새기는 일에는 작은 것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 가까운 곳에 논과 밭이 있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곤충과 많은 식물
그리고 새들이 날아오는 곳에
협동조합 담쟁이자연학교를
마련하였습니다.
덩굴손으로 타고 올라 삭막한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담쟁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 담쟁이자연학교 협동조합 웹커뮤니티 소개글에서

▲ 2015년 10월 담쟁이자연학교 사람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레일바이크 공사 중인 왕송호수 모니터링을 나가서 찍은 사진이다. 공사용 돌무더기 뒤로 보이는 호수 한가운데 모래톱에 큰기러기들이 모여 있다. 당시 모니터링 내용을 보고서로 남겼다.

도시들의 환경을 연결하고 지켜보기

의왕, 군포, 안양, 세 도시가 강과 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도시에는 '안양천 살리기' 같은 공통의 환경 문제도 있었고요. 지역 공동체와 환경 교육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경 여기는 정말 최적의 조건이에요. 산과 들과 하천이 훌륭해요. 환경 문제와 교육은 자연스럽게 접목돼요. 환경 운동을 하면서 교육을 배제할 수 없고, 또 환경 교육을 하면서 지킴이 활동이나 감시 활동을 배제할 수 없죠. 현장 활동 나가면 사진 찍는다고 자연을 막 대하는 분들도 걸리고, 고로쇠나무에 수액 채취한다고 막대를 꽂아 놓은 것도 눈에 밟히고요.

세 도시를 걸쳐 활동하다가 의왕에 오신 이유는 의왕이 왕송호수나 청계산 등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양이나 군포보다 좋아서인가요? 한 동네에 자리 잡으면서 활동의 범위나 연대가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 협동조합을 지역에서 설립하다 보니 의왕으로 장소가 한정되는 거지, 활동은 세 도시에서 여전히 같이 하죠. 수원이나 강화도도 가고요. 꽃이 좋아서 찾아다녔던 활동이 아이들 환경 교육이 되고, 감시 활동도 되고, 그러다 보면 워크숍도 가고, 막 퍼지듯이 펼쳐져요. 자연을 관찰하는 방식도 같아요. 전체 생태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의 나무, 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들의,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관해 수업하게 되죠. 지금은 새를 중점적으로 수업해요. 군포 '숲새소리 학교' 아이들하고 새 보러 수원 서호도 갔어요. 왕송호수도 철새 도래지였는데, 아시다시피 레일바이크가 들어오면서 논이 없어졌어요. 그럼 철새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순 있어도 먹이 활동이 안 돼요.

자연 속에서 배우고 놀며 생각이 바뀌는 학교

(사무실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사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연 환경 교육 활동 나갔던 사진이에요. 왕송 호수, 안양천, 강화도, 학교 옆 숲에 아이들하고 같이 나갔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교구들도 재미있어 보입니다. **경/연**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직접 손으로 만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매번 숲에 가서 땅 파고 곤충 잡는 것만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이런 교구들이 필요해요.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가면을 쓰고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나무판에 곤충 그림을 그려서 퍼즐이나 게임판도 만들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놀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프로그램은 3년 주기로 겹치지 않게 만들어요. 한 아이가 3년을 계속 와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게요. 한 가지 내용인데 체험을 달리하는 거죠.

교육이 환경 운동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놀면서 하는 작은 제스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경 아니에요. 의식화하는 중요한 경험이죠. 아이들이 그냥 숲을 찾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환경을 지키려면 무엇이 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면서 은근슬쩍 의식화하는 거죠. 저희는 질문만 던지고 아이들이 '도시에 논이 있으면 좋겠다. 호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사고 때문에 학교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교문 바로 밖에도 안 돼요. 나가서 해야 하는데 진짜 답답해요. 예전에는 현장에 나가는 환경 교육이 활발했어요. 그나마 학교 안이나 가까운 곳에 자연환경이 좋은 학교는 낫죠. 요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을 깨우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떠올려 보면 예전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연못도 있고 개구리 알도 볼 수 있었어요.

경/연 그 주변에 동산이라도 있었죠? 주변 환경이 다 연계가 된 거예요. 요즘은 그나마 있던 연못도 물을 다 말려 없애죠. 환경을 다 책으로, 글자로, 모니터로 배워요. 그나마 관심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가 있어야 생태 교육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학교, 밖에서 하는 또 하나의 학원으로 애들한테 수첩, 필기도구를 들려 보내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턱 막히죠. 아이들이 수업 후에 식물 이름 하나라도 더 알아서 엄마한테 알려줘야 하는 강박증을 보여요. 부모들을 설득해 내야 하는 게 또 우리 몫이긴 해요.

▲ 사무실 한쪽 벽면에 담쟁이자연학교의 활동을 간추려 볼 수 있는 사진들이 걸려 있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생태 환경 교육 도구들 중에는 곤충의 입 모양을 알기 쉽게 그린 퍼즐, 거미, 개미, 애벌레 등 다양한 땅속, 숲속 생물이 그려진 가면이 보인다.

공동체의 환경 교육 의지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지요. 담쟁이자연학교는 어떤 교육 공동체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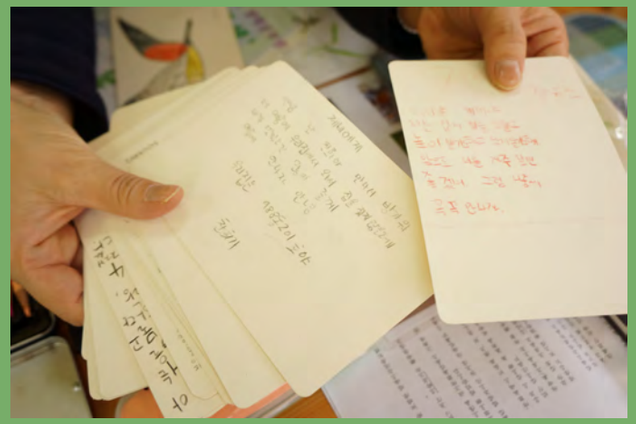
경 저희가 담쟁이자연학교를 만들고 활동한 지 3년 정도 됐으니까 학부모 사회나 교육 공동체는 아직 기반을 다지는 단계예요. 예전 활동 중에 학부모와 잘 연계했던 적이 있긴 해요. 2004년, 2005년쯤 의왕시 고촌초등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는 4학년만 되면 일 년 내내 생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학기 시작 전에 학부모들에게 수업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도우미 선생님 활동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들이 귀찮아 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3년쯤 됐을 때 환경 교육을 당연시하는 생각이 널리 퍼졌어요. 멀리 떨어진 산으로 아이들과 실습을 가는데 도우미 선생님 하는 엄마들이 서로 연락해서 자가용을 준비할 정도였죠. 엄마들이나 학교 선생님들과 답사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에 관해 사전 회의도 하고, 교장 선생님도 적극적인 후원을 하시고요. 저희는 계속 할 의지가 있었는데 3, 4년 뒤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수업을 못하게 됐죠. '우리 아이가 내년에 4학년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었대요. **연** 매주 토요일에 하는 '담쟁이자연학교'는 우리 의지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변 지역 사람들하고 바쁘더라도 정해 놓은 날 모여서 주변 숲이나 하천을 다녀요. 그런데 학교는 쉽지 않아요. 환경 교육 나가던 몇 개 학교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순식간에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해요.

활동하면서 불안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경 초등학교에서 저희 수업을 받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환경 동아리를 들기도 해요. 또 학교에서는 1등만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환경 교육 학교에서는 공부에 관심 없던 학생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커요. 저희가 진행하던 환경 동아리에 전교 1등과 공부에 정말 관심이 없던 아이가 같이 있었어요. 물속에 사는 생물 조사를 하는데 1등하는 애는 두려워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부에 관심 없던 애는 겁도 없고 정말 열심히 참여했어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 학생이었는데 칭찬을 받더니 아이가 팔을 걷어붙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서 느꼈거든요. '환경 교육이 보편화되면 아이들이 맘속에 쌓인 것을 푸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연으로 치유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도 아이들처럼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해요. 꽃마리 활동도 그렇고 지금 담쟁이자연학교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치유하고 감동도 많이 받아요. 회복하기 위한 다른 활동이 필요가 없겠어요. **경** 정말 그래요. 이 활동 자체가 원동력이에요.

▲ 자연의 회복력, 그 수혜자이며 수호자로 활동하는 담쟁이자연학교 사람들.

▲ 2016년 8월 한여름 담쟁이자연학교 교실에서 주민 참여자들과 함께 새 달력 세밀화를 그렸다. 이 그림들로 2017년 달력을 만들어 나눴다.



▲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에서는 새 세밀화 카드 뒷면에 새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기도 했다. 하나하나 모두 아이들이 자연에게 보내는 '우리집' 초대장이다.

▲ 새 달력 세밀화 모임의 참가자들이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다.

제도와 네트워크와 운영에 관한 고민

활동을 다른 단체와 연계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연 환경운동연합이나 생협, 지역 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 같은 건데, 아직은 그냥 만나서 생각을 공유하는 정도예요. **경** 양면의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단체들 보면서 '아, 우린 저렇게 하지 말자.' 생각하기도 해요. 작년에 아이들과 계곡에 갔는데 온갖 단체 사람들이 와서 땅속 생물 본다고 삽 들고 물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으로 좀 더 자제하고 조심해야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과천에 어른들 수업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가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요. 오지를 찾아다니는 게 취미인 분이 '제가 오지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나갔던 발길이 길이 돼서 그 길 따라서 사람들이 또 지나가고, 결국 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연을 파괴하는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했대요.

협동조합이라는 제도가 생태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요?

경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도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지 우리들, 소소한 단체들 지원한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수익 사업도 하시나요? **연** 어느 단체나 협동조합이라도 재정적으로 열악할 거예요. 우리야 월급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한가롭게 앉아 있는 거지, 상근직이 있는 곳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교육 활동이 없는 방학 때는 활동에서 파생되는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수익 사업 같은 걸 생각하는데, 환경 쪽에서는 한정적이에요. **경**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정해진 강사료가 있죠. 다른 수업에서 받는 비용은 회비 정도예요. 스터디는 거의 무료 활동이기도 하고, 협동조합 출자금도 처음에 공간 얻을 때 필요한 시설 비용 정도만 냈어요. 소박하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웃음)

숨은, 큰 꿈

꿈은 크게 갖는다?!

경 꿈은 커요. (웃음) 제 개인적인 꿈은 위험한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에 위험한 놀이터가 있대요. 입장료도 받고 사고 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서약을 하는데, 그래도 그 놀이터에서는 애들이 5미터에서도 줄을 들고 뛰어내려도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대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거든요. 다 자기 살 궁리를 해요. 그런데 너무 기성 세대들의 염려증 때문에 아이들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이 십몇 년 전에 했던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이 천지차이예요. 조바심 내지 않았던 그런 부모들 밑에서 좀 더 자유로웠던 그때 아이들이 창의력이 컸어요. 지금 아이들은 그때보다 훨씬 똑똑하긴 해도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요. 부모님들은 그게 경쟁력이라 보는 거고, 10년 전에도 학원은 보냈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서 불안해요. '생태 교육은 더 늘어났는데 왜 아이들이 저렇게 공격적이고 말도 험악할까? 애들이 마음을 풀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두려움도 훨씬 더 많이 느끼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자연은 두려운 게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면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연** 정책은 어디서 사고가 나면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애 버려요. 미끄럼틀에서 사고가 나면 놀이터를 없애 버리죠. 아이들이 위험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 자연학교를 운영하면서 엄마들의 염려증과 불안감을 어떻게 하긴 어려워요. 저희도 무섭죠. 그렇지만, 숲에 가는데 그렇게 위험 요소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소통하고 회복하는 자연의 힘

담쟁이자연학교에 찾아오는 분들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나요? 도시에서 단절된 세대 간의 소통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 스터디 그룹에 오는 젊은 엄마들이 다른 세대가 연결돼서 오히려 저희한테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세대 사람들끼린 상대적 빈곤도 많이 느끼고, 비교하면서 괜히 자기 아이만 괴롭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 이렇게 키우면서 환경 교육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죠. 저희 작은 애가 일곱 살 때 환경 교육을 시작했는데 지금 스물네 살이에요. 저는 그 17년의 과정이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요. '우리 삶에 이런 조그만 것도 한다!' 자부하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자존감은 자연에서 오는 힘인가요? **경** 6개월 정도 잠깐 쉬었을 때 환경 교육 활동을 하면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는 걸 알았어요. 새싹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365일을 보지 않고서 감히 한 나무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나무를 안아 보고 '아 이게 전부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마음도 많이 비워지고, 머리도 비우고, (웃음) 고민이 쌓일 이유가 없겠습니다. **경** 고민을 금방 털 수 있는 힘이 자연의 힘인 것 같아요. 털어 버리는 노하우를 세대별로 계속 이어가면 좋겠네요. **경/연** 저희 희망이에요.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와요. 후배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서 물려주고 싶어요. 언제든 힘들 때 다시 오세요!

공동체에 개입하는 여러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언제나 의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로 불렸던 여러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문화를 재생하려는 그 어떤 새로운 시도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관료들이 흔히 하는 대민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와 부대끼며 활동가 본인이 재생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 재생이 실패한다면 원인은 무엇일까? 재생을 말하면서도 재생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담쟁이자연학교의 사람들은 자연을 무작정 보호하거나 재생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여기에서 재생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이들은 자연의 품 안에서 자신들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 가며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힐링'의 태도는 너무 낭만적으로만 자연을 대하는 것이라 지적할 수도 있다. 자연 속에서는 분명 이 사회만큼이나 치열한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개체 변이가 발생한다. 한편, P. A. 크로포트킨의 『만물은 서로 돕는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벌집 입구를 지키는 보초들은 벌통으로 침입하려는 도둑 꿀벌들을 가차 없이 죽여 버린다. 하지만 실수로 벌집에 들어온 낯선 꿀벌들, 특히 꽃가루를 묻혀 왔다거나 곧잘 길을 잃는 어린 꿀벌들은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둔다. 극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오만한 시선 바깥에서, 이렇게 자연은 재생의 동력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 시선을 걷어낸 자연 속에서 만물이 서로 돕는 관계를 발견하고 배워 가는 생태 환경 교육을 문화 재생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일은,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다.

담쟁이자연학교

경기도 의왕시 초평로 20, 1층
http://cafe.daum.net/damjang-e

| Section |

04

다른 색들

저마다 다른 색으로 예술을 하는
우리 동네 예술가들

성남 분당구 수내동 | 우당탕탕 예술놀이단 이지은 - **덩더쿵이 꿈꾸는 목적 없는 놀이**
부천 심곡본동 | 카페·독립출판 서점 '오키로미터' 김병철 - **독립출판에는 '엉뚱한 날것'의 매력이 있다**
부천 소사본동 | 도예그룹 토인즈 - **흙과 불로 빚어낸 일상의 꿈**

이지은

▼ 그림책 서점, 도서관, 카페가 있는 그림책 문화공간 노리(N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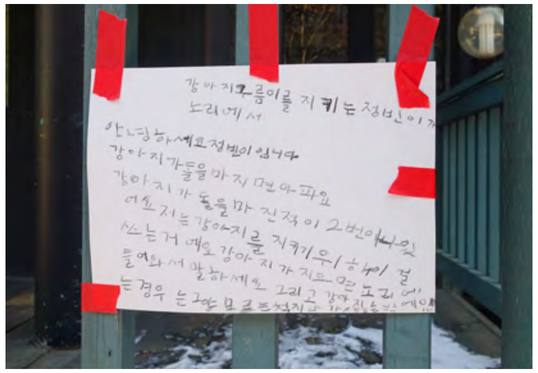
분당구 수내동은 크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단독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다. 사전에서 수내동을 찾아보면, 이곳은 "분당 시가지의 중심부를 이루는 지역으로 (……) 주민들은 대부분 중산층이다."라고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곡산 등산로에 녹지가 많고 내정동 중앙공원과 접해 있어 주거지로서 좋은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수내동이 서울의 대치동과 목동에 버금가는 사교육 중심지인 점도 한몫 거든다. 씁쓸하지만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현실에서 '좋은' 사교육 환경을 마다할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분당에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근래 들어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을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선행 학습'보다 '적기 교육'에 중점을 두는 용감한 엄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교육이 활황을 이룰수록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에 접근하려는 열망 또한 커지고 있음을 넌지시 드러낸다. 이미 삼삼오오 뜻이 맞는 엄마들이 모여 새로운 교육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향은 대안학교나 공동육아, 문화 공간이라는 모양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흥미로웠던 점은 이런 문화가 사교육의 중심지인 분당 수내동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내동에 위치한 '그림책 문화공간 노리(NORI)'와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의 이지은 대표를 만나 보았다.

덩더쿵,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끼리상가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115번을 타고 돌고래상가 정류장을 지나면, 한적한 골목길에 다다른다. 눈 쌓인 골목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나지막한 산자락에 '그림책 문화공간 노리(NORI)'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흰 종이에 삐뚤빼뚤 정성스레 쓴 손편지였다. 이 편지에는 "강아지 구름이를 지키는 정빈이"의 당부로, 동네 주민들에게 노리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와 친구들과 어울리는 공간이라니,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 한 편이 따뜻해졌다.

3층짜리 단독 주택의 1층으로 들어서면 작은 그림책 도서관이 펼쳐진다. 3천여 권 가까운 그림책들은 작가별로 정리되어 있고, 각각의 책들은 맞춤형 비닐 커버에 끼워져 있다. 책 크기에 맞게 제작된 커버가 인상적이어서 일하시는 분께 살짝 여쭤 봤더니, 노리를 사랑하는 한 작가분이 산자락의 습기에 책이 젖지 말라고 손수 만들어 준 작품이라고 했다. 공간 곳곳을 둘러보니 '덩더쿵'이 전하는 메시지들이 눈에 띈다. 덩더쿵이 누굴까? 바로 그림책을 사랑하는 이지은 대표다. 그녀는 이곳에서 덩더쿵으로 불린다. 정겨운 책들과 함께 이지은 대표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 강아지 구름이를 지키는 정빈이의 편지

수내 3동에서
우리 한번 놀아 볼까?!

분당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점이 의아하면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지은 이하 이) '문화공간 노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오랫동안 바라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예요. 오래전부터 기존의 인식으로 정의 내려지지 않는 독특한 공간을 꿈꿔 왔거든요. 그림책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적인 매개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사부작사부작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요. 자비를 투자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을 거점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다양한 놀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공간이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인프라와는 별개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계획적이거나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우당탕탕 한바탕 노는 느낌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요.

이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사바사바 오셔서 사부작사부작 '덩더쿵, 이런 거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돼요."라고 답하죠. (웃음) 이곳은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요. 정해진 원칙 앞에서 틀을 지키며 망설이기보다, 순간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포착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공간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잡담을 나누다 만들어지거나 그림책을 읽다가 곁다리로 샌 이야기들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노리라는 공간에서 주로 '판을 벌이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 노리는 산을 마주하고 있어 풍경이 좋고 공기가 맑다. 이 때문에 노리로 향하는 나지막한 비탈길마저 즐겁다.

공간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정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요.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서 하는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월세와 유지비가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공간을 함께 운영할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버티며 공간을 운영해 왔어요. 우선 이 공간은 저의 자비로 마련했고요, 제가 영화 관련 강의를 통해 얻는 수입과 후원금, 수업료, 가끔은 재단의 공모 사업이나 신랑의 월급으로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웃음) 공간을 운영해 나가는 한 재정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매 순간 마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 스스로 어떻게든 꾸려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덩더쿵이 손수 만든 서점의 간판. 서점에 있는 책들은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 노리에서는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진다. 덩더쿵의 친절한 매뉴얼에 따라 커피를 내려 마신 뒤 요금은 직접 저금통에 넣으면 된다.(순서대로)

재정적인 문제 외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이 그럼요.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던 건 바로 노리의 가치관, 교육 방식,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었어요. 가까운 수지구 동천동에는 누구나 시인이 되고 농부가 되는 인문학 공간 '문탁'과 '느티나무 도서관', 이 공간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수내동에는 '문화 공간'에 대한 인식조차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기까지 꼬박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떠나갔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가 가진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열띤 응원도 보내 주고 계세요. 학부모님들 스스로도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재단하기보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 노력하시고요. 어른들 스스로가 변화할 때 어른들의 불안과 조급증이 아이들에게 전염되지 않고,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의 놀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 저는 아이들에게 기존의 수업 방식이나 고정관념, 사유 방식 등을 뒤집어 생각해 보게 해요. 어떤 활동이라도 저는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죠.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이 예상하는 그 이상을 해내거든요. 아이들을 믿어 주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주로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들, 엄마들, 직장인들과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시켜 보는 놀이를 해요. 예를 들면 그림책을 함께 읽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새롭게 연극을 기획해서 직접 주인공으로 연극 공연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어 영화를 만들고 영화 상영회를 하는 식으로요. 노리를 시작하고 1~2년 동안은 분당이 아닌 외부 참여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근래에는 수내동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교육이 활황을 이루는 만큼 주입식 교육과는 다른 방식의 수업들, 예를 들면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르고,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수내 3동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군요. 이 공간을 거점으로 하나의 '심리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을'이나 '공동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동네라는 것이 물리적인 개념이었고, 이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만 마을 문화나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었잖아요. 노리를 운영해 온 시간 동안 저는 '마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해 왔어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내가 즐겁게 놀다 보면 주변이 같이 흥겨워지는 공동체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죠. 공간에 얽매이기보다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또 그 가치를 기반으로 재미있는 작당 모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예술의 다양성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삶의 다양성과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심리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간 만들기 놀이,
▶ 아이들이 직접 각색한 '거미 아난시' 연극 공연

▲ 노리의 그림책 읽기

그림책에 대한 고정관념과 다양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

1층에 그림책이 몇천 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그림책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그림책은 보통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를 빽빽하게 채우는 글자들 대신 큼직한 글씨와 그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지와 텍스트가 한 공간에 놓여 있을 뿐, 어린이들만 읽어야 하는 그림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그림책이라도 읽는 이의 경험이나 연령에 따라 감흥이 달라지니까요. 각자가 지닌 경험의 독특성이 같은 그림책을 다르게 읽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에서는 어린이들이 모여 그림책을 읽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엄마들의 그림책 모임도 있고, 직장인들의 그림책 모임도 있어요. 제가 꿈꿔 온 대로 사람들은 그림책을 통해 만나고 흩어지고 또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면서 특색 있는 모임들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정형화되지 않은 모임이 좋은 것은 다양한 수다 속에서 철학책을 함께 읽는 모임이 생기기도 하고, 그림책을 직접 만드는 엄마들의 모임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그림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매개입니다.

최근 들어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아이들의 교육에 접근하는 부모들의 인식과 방법론이 이전에 비해 굉장히 담백해졌다는 거예요. 담백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뜻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엄마와 아빠가 주체가 되어 틀 자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우선 공동육아나 대안학교가 대표적이고요. 마음 맞는 엄마들이 모여 공간을 대여하고 그 공간에서 품앗이 교육을 하는 경우를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죠. 이렇게 다양화된 교육 방식은 다양한 가치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함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맥락과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태도는 교육뿐 아니라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생각과 가치를 지닌 사람들 간의 '연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맞아요. 한 개인이 아무리 기존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사회적인 시선이나 잣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상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다수의 교육 방식을 거스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 이러다 내 아이만 사회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게 되니까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기존의 틀에 다시 순응하게 되는 사이클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체제만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들과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 또 이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못 말리는 영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

지속적으로 기존의 틀을 넘어서려는 이지은 대표.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궁금하다. 그녀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한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영화가 너무 좋아서 학부 졸업 논문을 쓰면서 대학원 지원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대학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정성일 영화평론가와 함께 임권택 감독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편집해 책으로 발간했던 작업이라고 했다. 『임권택이 임권택을 말하다』가 그 결과물이다. 오랜 시간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연구하고 그에 관한 글을 써 왔던 정성일 평론가, 그리고 평생 영화를 만들어 온 임권택 감독 사이의 대화는 한국 영화사의 한 챕터였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 과정이 그녀가 삶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가 영화를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다.

어떻게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나요?

이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셨어요. 약국은 공장 근처에 있었고, 약국의 주된 손님들은 공장 노동자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그분들을 위해 새벽 일찍 약국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으셨고요. 그 와중에도 영화를 무척이나 즐기셨어요.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 시절에 이미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얼리 어답터'죠. (웃음) 작은 빔 프로젝트로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고, 밤새도록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좁은 방에 누워서 깔깔거리며 긴긴 밤을 지새우면서요. 아버지는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영화라는 걸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시간의 흔적들이 대표님을 '따뜻한 이야기꾼'으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다른 일이나 지금의 대표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건들이 있을까요?

이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작은 약국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어요. 오며 가며 동네 어르신들이 들르고 박카스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공간, 사람 사는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던 작지만 따뜻했던 공간이었죠. 그 공간이 바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 노리와 닮아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노리라는 공간이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따듯한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중심이 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저 없이도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또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단체라 해도 공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함께 콘텐츠를 만들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바라죠.

▲ 그림책 문화공간 노리 이지은 대표

인터뷰 후기 :
아이들이 아이들로서
자랄 수 있는 사회를 기다리며

이지은 대표와 필자는 인터뷰 내내 삶의 가치가 다양해지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획일화된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되며, 모두가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말이다. 어린아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직장인, 학부모 할 것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대신, 최소한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이 부정적으로 폄하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변화의 시작은 아마도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아이들로 지낼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요할 것이고, 이 능력들은 목적 없는 놀이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친하게 지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상상해 보건대, 앞으로 필자가 살게 될 미래의 동네는 이러한 문화를 지녔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그리고 음악, 미술, 공연이라는 매개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경험들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갈 때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 줄 것이고, 거친 세상과 대면할 때 면역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래 들어 대안학교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나 지역 사회의 작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 그림책 읽기가 만들기 놀이로, 만들기가 또다시 연극으로 변신하는 요상한 공간, 노리. 이 공간은 언제나 우당탕탕 예술 놀이들로 풍성하다.

그림책 그림책 문화공간 노리(NORI)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남로 29번길
010-4283-8440
http://blog.naver.com/urirevo

#S4-02 부천 심곡본동 카페·독립출판 서점 '오키로미터' 김병철

독립출판에는 '엉뚱한 날것'의 매력이 있다

| 안태호 문화비평가

오키로미터는 부천남부역 자유시장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부천은 인구 87만의 대도시다. 그러나 청년 활동은 상대적으로 많이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인천과 서울이라는 강력한 도시들 사이에 위치한 까닭이다. 서울에는 활기와 에너지, 자본과 시스템, 사람과 인프라 등 모든 것이 있다. 어떤 도시도 서울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그러나 부천에도 젊고 다양한 빛깔의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다. 사람들의 만남과 사건을 조직하는 곳. 오키로미터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다. 카페와 독립출판 서점을 겸하고 있는 이곳은 수상한 모임들을 꾸리고, 사람들의 감수성이 만나 새로운 작업들을 만들어 내는 장소다. 카페와 서점을 드나드는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워크숍을 만들며 책을 펴내는, '책방 해서 부자 됐단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는 김병철 대표를 만났다.

공간이 감각적이면서도 아늑합니다. 카페와 독립서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 볼까요?

(김병철, 이하 김) 카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카페가 일의 중심은 아닙니다. 활동의 중심은 서점이에요. 출판사와 서점이 같은 공간에 있고, 그 서점에서 운영하는 곳이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점에서는 머무는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카페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모임을 만드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독립출판 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작업을 잘하도록 말이죠. 가장 주된 작업은 독립출판 유통입니다. 이삼십 대 젊은이들의 작업을 유통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김 시작한 지 4년이 약간 못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1년 좀 넘었습니다. 이곳을 열기 전에는 카페를 했어요. 운이 좋아서 망해 가는 카페를 헐값에 인수했는데,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를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바리스타를 고용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뭐랄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벤트를 계속 벌이고 이야기가 있는 카페 형태로 운영했더니 한마디로 대박이 났습니다. 자리가 워낙 좋았어요. 코엑스에 있었는데, 마침 코엑스가 리모델링을 해서 문 닫는 주변 가게가 많아지면서 반사 이익도 봤죠. 한동안 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월 천만 원의 수입을 버리고 새로 창업을 했군요. 와, 심상치 않은 이야긴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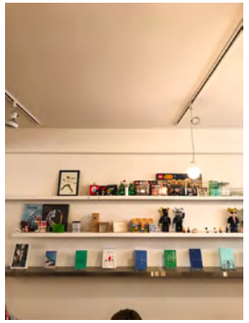
김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만 엄청 팔았죠. 저는 지금도 카페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테이크아웃을 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런데 종일 카페에 묶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자는 생각에 찾은 곳이 이곳이죠. 2층은 카페, 3층은 서점 겸 도서관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서점과 카페가 같은 공간에 있는 곳을 찾았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굳이 모델을 찾자면, 태국 방콕에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카페가 롤모델이었어요. 평일에는 카페만 열고, 주말에는 서점과 라이브러리를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독립출판에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김 전에 한 출판사와 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인세가 7퍼센트더라고요. 1만 원짜리 책 한 권을 팔면 저한테 700원이 떨어지는 구조죠. 인세가 너무 적은 것 같았어요. 나는 이거 만드느라 1년 동안 힘들게 준비했는데, 너무하단 생각이 들었죠. 지인에게 물었더니 독립출판을 하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독립출판?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스스로 책을 만들어서 팔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출판으로 만들어진 책들을 좀 훑어 보는데, 뭐랄까 이건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보이더라고요. 하다못해 교보문고에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 싶었죠.

맞아요. 독립출판을 처음 접하면 거칠고, 기성 출판의 매끄러움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볼륨감도 없고.

김 그러니까요. 그래서 독립서점 몇 군데를 가 봤죠. 다니다 보니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책 같지도 않은 책들이라고 생각했죠. 두께도 너무 얇고. 그런데 두세 번 가다 보니 그 엉뚱함이 주는 매력이 있었어요. 기성 출판에서 나올 수 없는 책이 주는 재미, 날것의 재미가요. 교정교열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것의 즐거움이랄까. 출판사의 상업적인 고려와 방향이 들어가지 않은 것, 기획자 맘대로 만든 것의 매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물론 출판사를 통해서는 낼 수 없는 것이었죠. 왠지 모르게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큰 서점들은 유통해 주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들을 누군가 유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 독립출판의 매력은 사소해 보이지만 공감할 수 있는 정서들을 포착해 담아 내는 특별함에 있다. 상업적으로는 시도해 보기 어려운 특수한 공감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이다.

처음에 출판사와 준비했던 책은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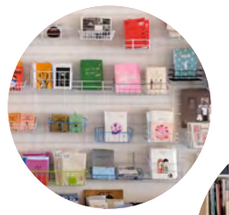
김 결국 내지 못했습니다. 독립출판으로 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했어요. 그때 준비했던 책은 가이드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이었죠. 당시엔 방콕에 살았는데, 서울에 오면서 못 하게 됐어요. 방콕에서 살았다고요?

김 네, 4년 반 정도 살았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뭘 했나요?

김 거기서 뭘 했냐면, 음…… 놀았다고밖에 못 하겠네요. 저는 체육을 전공했어요. 처음엔 운동을 하러 갔죠. 태국이 골프 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기도 좋거든요. 물론 날씨도 좋고 놀기에도 좋지요. 놀고도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세미골프 자격증을 따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물론 운동을 계속하긴 했지만, 초반 1년 정도였고 이후에는 놀았습니다. 초반 2년은 부모님 지원을 받고 이후 2년은 받지 않았어요.

그때 생활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김 당연하죠! 120퍼센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엔 운동하는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술을 좋아해서 소주를 마시거나 체육계 특유의 학교 규율도 있고 해서 경험의 폭이 좁았어요. 혼자 가는 여행도 태국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태국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영화를 제작하는 친구, 사진 찍는 친구들이었죠.



수상한
모임의 공동체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십 대들에게는 최대한 두루두루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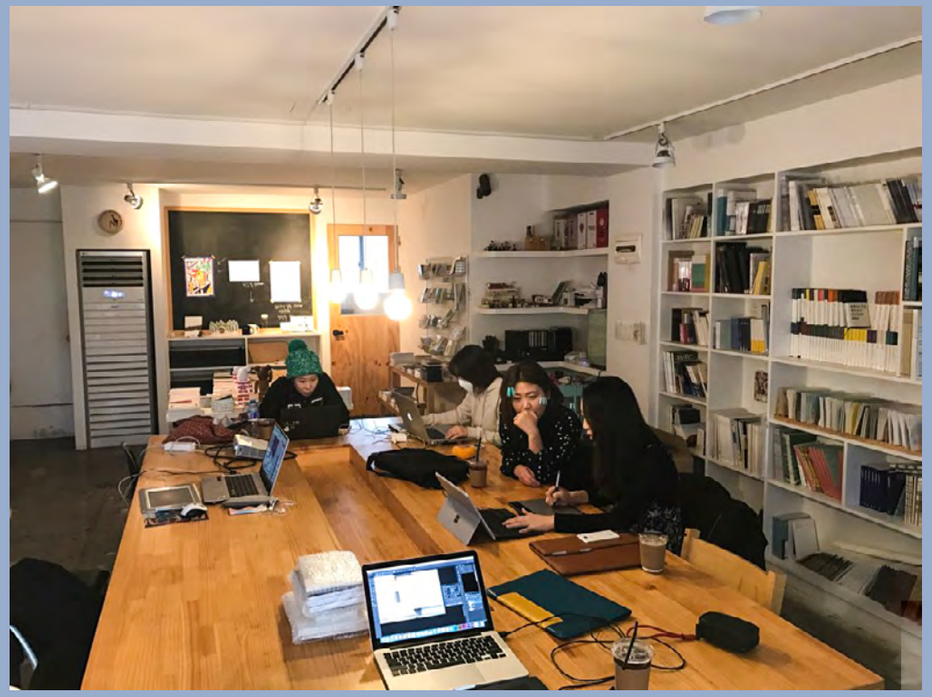
카페보다 서점이 일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독립출판의 매력도 있지만, 확실히 다양한 모임들이 이 공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다른 모임들도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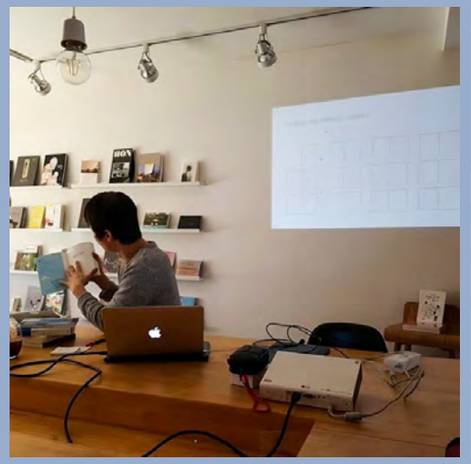
김 기록하기 모임이 있어요. 뭐냐면 와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상한 기록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과자에 대해 기록해요. 저는 과자를 싫어하거든요. 홈런볼, 새우깡 같은 과자에 대한 기억들을 남기는 거죠. 이상하죠. 과자를 싫어하는데 왜 기록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다들 그런 종류의 기록들을 남기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걸 스스로 정상이라고 여기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분이 있어요. 이성애-동성애의 분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든가. 정상-비정상 범주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 생각할 거리와 쓸 거리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많아진대요. 글도 써 보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좋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읽기와 쓰기는 한 몸이란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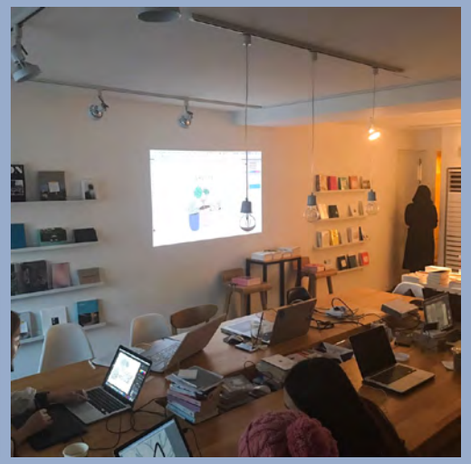
그 밖에도 다양한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합니다. 방콕에 있을 때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것을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디자인 수업을 통해 해소하고 있어요. 책을 만드니까 책 디자인하는 수업을 열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재능이 없어서 그림 그리는 수업도 자주 열고요. 글쓰기도 하고 싶어서 원데이클래스로 열기도 했어요. 가능하면 폭넓은 워크숍을 열려고 해요. 저는 음악에 대해 큰 관심이 없지만, 음악 수업도 열고 미니 콘서트도 열어요.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태국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대표님처럼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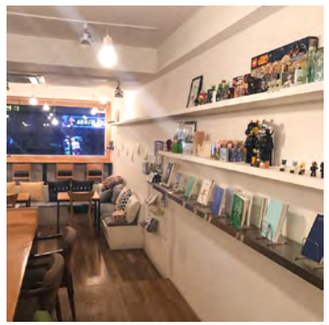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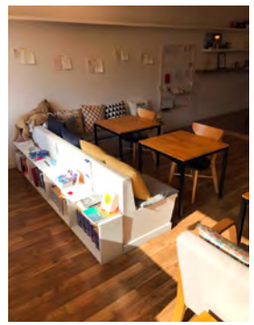
김 그런 거죠. 특히 이십 대들에게는 최대한 두루두루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싶어요. 나는 이십 대에 운동만 했지만, 다른 걸 배웠으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십 대들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식견을 넓히면 자신의 취향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 오키로미터에서는 수시로 '수상한' 모임들이 열린다. 기록하기 모임부터 원데이클래스, 워크숍, 미니 콘서트까지 모임의 종류도 다양하다.

▲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은 오키로미터의 장점이다.

『지하철 히어로』를 조금 봤는데,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독립출판의 매력이 역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볼 데도 없고 원하는 만큼 내용을 뽑을 수 있는 자유랄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들도 소개해 주세요.

김 『지하철 히어로』가 좀 파격적이긴 하죠. 약간 엽기적으로 볼 소지도 있고. 책을 세 권 만들었고 네 번째 책을 만들고 있어요. 제목은 『나빛나 일기장』입니다. 『세렝게티 주민들』 만든 분이 쓰고 제가 각주를 달았어요. 작가가 그림일기를 쓰고 있다기에 1년 후에 출간하기로 약속했는데, 정말 가져왔어요. 읽어 보지도 않고 작업을 시작했죠. 다섯 번째 책은 『상어사전』이에요. 상어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생물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상어 12마리 일러스트가 들어가는 책이에요. 홀수는 동물에 관련한 책, 짝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극곰에 관련한 책도 준비하고 있고요. 눈치 채셨겠지만, 주로 만드는 책이 동물책이에요. 사실 원래 세 번째 책도 『팬더팬더』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 대학생 작업자가 압박을 느꼈는지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다섯 달 정도 미뤄지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활동 지역으로 부천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역 활동에 대한 생각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김 사실 지역 연고도 없고 공간을 구하다 보니 자리 잡게 된 곳이었어요. 거의 마지막 선택지였죠. 처음에는 부천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특히 중장년층들이 카페 입구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려서 힘들었거든요. 드나드는 분들도 인천 사람들이 절반, 서울 사람들이 절반 정도예요. 부천 사람들은 10명도 안 됩니다. 워크숍에 10명이 참석하면 부천 사람들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 인스타그램 팔로어도 부천은 거의 없어요. 올해 목표가 부천 지역민들의 방문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애정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카페 뒤쪽에 자유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매일 이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됐죠. 맛있는 곳, 사장님이 친절한 곳, 그들의 사정, 카드를 안 받는 이유 등을 알게 되고, 가고 싶은 가게와 가기 싫은 가게 등도 생겼어요. 예를 들면, 영진기름집은 참기름이 너무 맛있어서 아주머니들이 줄을 서거든요. 우리도 그 집 미숫가루를 사다가 파는데 너무 맛있어요.

시장과 뭘 함께 도모해 볼 수도 있겠네요?

김 자유시장 지도를 만들어 보고 싶단 생각을 했어요. 부천문화재단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했는데, 재단이 만든 네트워크 모임을 가니 다른 단체들에서 지원에 따르는 서류 작업을 줄여 달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작비 정도만 겨우 나오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고 생각하니 자유시장 작업을 하더라도 자비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소책자와 도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여권 같은 거죠. 펼치면 지도가 되고 모으면 여권이 되는. 여권에 여러 나라 도장이 찍혀 있으면 괜히 뿌듯하잖아요? 시장 여권에 여러 상점의 도장이 찍히는 구조를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활동 방향은 어떻게 가져갈 건가요? 목표나 지향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김 서점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쓰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쓰고 싶은 욕구가 많다는 말은 서점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쓰기와 읽기는 한 몸이니까요.

나한테는 이 공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처음 오픈할 때는 서울로 가야지 했는데, 요즘에는 여기서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3년이 넘어가니 이 자리에 추억이 많이 쌓였습니다. 같이 왔던 남자, 여자 친구, 제대하고 돌아온 사람, 해외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와도 여기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의미 있어요. 막 뜨는 장소, '힙'한 장소는 아니지만 기쁜 일 나누고, 우울할 때 들를 수 있고, 꾸준히 사람들의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점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쓰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쓰고 싶은 욕구가 많다는 말은
서점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쓰기와 읽기는 한 몸이니까요**

서점의 미래에서 오키로북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김 독립출판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최대한 사람들이 책을 많이 구입하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는 사람이 많아야 만드는 사람도 많아지거든요. 독립출판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즐거운 건 스스로 출판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면 독립출판물을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책 팔아서 충분히 먹고사는 것을 넘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책방 해서 부자 됐네.'라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좋은 책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산다고 생각해요. 좋은 책들을 많이 알리는 게 서점 주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아무리 안 읽어도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책을 자꾸 소개해 줘야죠.

오키로미터를 만나며 지역 활동에 대한 강박이 굳이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을 강조하며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명분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행위들을 일궈 내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더 흥미롭게 느껴진다. 김병철 대표가 '마지막 선택지'이자 애정이 없던 부천을 떠나고 싶지 않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이 자신의 지역이자 현장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동시대의 감수성을 깊게 호흡하는 독립출판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부천 사람들을 오키로미터의 '주민'으로 포섭하고 싶다는 올해 목표가 현실로 바짝 다가서기를, 부천의 청년들과 수상쩍은 발자국으로 유유자적 시장을 누비는 오키로미터의 가까운 미래를 즐겁게 기대해 본다.

카페·독립출판 서점 '오키로미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11-1, 2층
http://www.5kmproject.com

#S4-03 부천 소사본동 도예그룹 토인즈
이상철, 이용재, 김근향, 김민지

흙과 불로 빚어낸 일상의 꿈

| 안태호 문화비평가

▼ 흙을 다루는 사람들의 모임인 토인즈의 네 멤버들.

부천시 소사본동. 중·상동 신도시가 생겨나기 전에는 부천의 중심으로 기능하다 구도심으로 쇠락한 지역이다. 마을의 지명인 '소사(素砂)'는 한자로 '본디 소(素)'와 '모래 사(砂)' 자를 쓴다. 지금이야 자취를 찾을 길 없지만, 모래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한때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으며, 소사역 개통 이후 부천의 중심을 유지해 오다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에 밀려 원도심으로 불린다. 인프라는 부족하고, 오래된 건물들이 다수에, 노령 인구도 많다. 그러나 원도심이어서 오히려 가능성의 씨앗이 돋아나기도 한다. 임대료가 낮다는 장점 덕에 새로운 활동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깃들기 때문이다.

부천과는 연고가 없던 토인즈가 소사본동에 둥지를 튼 것도 그 때문이다. 토인즈는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졸업한 네 사람의 멤버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도예 그룹이다. 대장, 부대장, 대원, 막내라는 독특한 직함을 쓰는 이 단체는 흙(土)을 다루는 사람(人)들의 모임이다. 흙으로 아기자기한 모양을 빚어 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컵, 그릇, 화분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소품들에 디자인과 상상력을 불어넣어 예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학창 시절 시작된 창업 동아리가 어엿한 단체로 성장하고 활동하기까지의 사연, 낯선 동네 부천에서 지역의 관계를 서서히 확장하는 과정, 흙과 불로 만들어 낸 도자기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꿈을 나누는 토인즈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우선 토인즈 결성 계기부터 들어 볼까요?

토인즈는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졸업했어요. 강릉원주대학교 공예조형디자인과 졸업 동기들입니다! 2010년 5월에 이상철 작가가 교내 창업센터에서 주최하는 '창업경진대회'에 나가려고 사람을 모은 게 시작이었어요. 경진대회에 나가려면 동아리원 5명을 모아야 했고, 당시 눈여겨보았던 동기 4명을 섭외해 '오렌지스타'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저희 공방 간판은 아직도 오렌지스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토인즈란 이름을 사용한 건 언제부터예요?

토인즈로 활동을 시작한 건 2014년 3월부터입니다. 본격적인 활동도 이 시기쯤 시작했어요. 오렌지스타의 경우 오렌지 맛스타라는 놀림을 받는다든가, 도자기 작업하는 팀 같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오렌지스타는 상큼하단 느낌은 있지만,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름인 것 같아요. 토인즈는 흙과 사람이라는 인상을 바로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을 잘 찾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토인즈'는 '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토인들'인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작품 중 '토인'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병, 매병, 항아리, 잔을 모티브로 팔다리가 달린 캐릭터들인데 졸업전시 때 이용재 작가가 주인공인 '주'를 디자인했고, 당시 졸업 작품 제목이 '토인'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이어져 저희 캐릭터들 이름도 '토인'들이 되었죠.

대장과 부대장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멤버 전체 소개를 해주세요.

토인즈는 이상철(대장), 이용재(부대장), 김근향(대원), 김민지(막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엔 대표, 실장, 디자이너 등의 직함을 사용했는데 저희 팀 분위기에 비해 딱딱한 느낌이라 몇 번 수정해서 지금의 직함을 쓰게 되었죠.

재밌는 직함이네요.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장은 작업적으로는 토인즈를 구성하는 가장 큰 세계관과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을 만듭니다. 캐릭터 초안 디자인, 전시 디자인 등도 대장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대장이 초안을 만들어 오면 나머지 팀원들이 뺄 건 빼고, 서로 의견을 더해서 최대한 만장일치에 가까워질 때까지 다듬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인즈에서 나오는 2D 작업들(만화, 카드, 일러스트 등)도 대장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작업 외적으로는 외부와의 계약, 거래 등 다른 회사들에서 대표가 하는 일들을 맡고 있어요.

만들고 싶은 캐릭터가 불, 요정, 바람, 별 등이라면 그것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생김새라든지 느낌에 관해서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릭터들이 탄생되죠

부대장은 저희 팀의 조형사라 할 수 있겠네요. 디테일하고 세밀한 작업,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작업, 생산 전 작업의 모델링, 생산용 틀 만들기 등 디자인이 끝난 후 부대장이 맡아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외주, 전시 작업 등은 부대장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대원은 토인즈의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보다 손이 훨씬 빨라서, 부대장이 모델링하고 틀을 만들면 대원이 이어받아 생산에 들어갑니다. 저희끼리는 공장장이라고도 불러요. 생산되는 상품 대부분을 대원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 중 가장 대중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토인즈의 작업이 난해한 예술 쪽으로 가는 걸 막는 역할도 해요.

막내는 작업적으로는 물레와 시유(유약 입히기) 계획을 주로 합니다. 물레로 몸체를 만들어서 부대장이나 대원에게 넘겨 조형을 마무리하는 식이에요. 그 외 세무 회계, 온라인 마케팅, 사진 편집 및 홍보물 편집, 정보 수집 등을 하고 있습니다.

▲ 토인즈 사무실의 전경, 멤버들이 모여 작업 회의를 하고 있다.(순서대로)

취업보다 좋았던 작업

사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과 직접 창업을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많이 다른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딱 부러지는 동기 같은 게 있었나요?

처음엔 경험 삼아, 재미 삼아 해보자 했던 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되고, 졸업 이후 각자 돈을 모아 부천에 공방을 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따로 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같이하게 된 것 같아요. 4명 모두 캐릭터를 좋아하고 도자 조형에 관심이 있다는 점, 취업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에 관심이 많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취업보다 하고 싶은 작업에 관심이 많았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보통 어떤 활동이든 다양한 인프라와 풍부한 시장을 보고서 울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향하기 쉬운데, 상대적으로 구조가 열악해 보이는 부천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서울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4명이 모은 자금이 서울에서 작업실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진 않았어요. 곧 다른 지역들을 둘러보게 되었죠. 도자기는 가마(불)를 다루는 만큼 가까이서 지켜볼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최소한 한 명이라도 공방에 가까운 게 낫겠다 싶어 각자 집에서 가까운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천은 대장의 집에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마침 부천에서 만화, 캐릭터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밀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도자기로 캐릭터 작업을 하고 싶었던 참이라, 우리 작업과 잘 맞물린다고 판단하고 부천에 자리 잡기로 했습니다.

▲ 토인즈 대표 캐릭터 중 하나인 '척'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요인과 캐릭터 산업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고려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부천의 다른 단체나 예술가, 기관 등과 어떤 관계들을 맺고 활동하고 있나요? 부천에서 도예 작업을 하는 통합예술나눔터(통예나)라는 단체와 함께 전시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업을 함께 하셨나요.

종종 지역의 작가님들과 연락을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함께 작업을 진행한 것은 없어요. 통예나가 넥슨, 서울대공원 등에서 진행한 체험 행사를 도와드렸어요. 그곳 선생님의 소개로 부천부흥초등학교 문화예술집중학교의 수업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노리 어린이집, 꾸러기 유치원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들과 매년 수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 네트워크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중이군요. 공방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마을축제에도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축제 참여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동네 축제에는 소사본동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건 판매보다는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참여하고 있어요. 도자기 컵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뒷면에 자석이 붙어 있는 도자기 위에 색연필 등으로 색칠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체험을 해요. 아이들도 많이 놀러 오고 주민들도 뵐 수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단체를 만들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진행해 오셨나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활동들이 구성되기까지의 과정도 알려주세요.

데뷔라고 할까, 본격적인 활동은 2014년부터였죠. 그해 토인즈로 이름을 바꾸고 5월 '아트토이 컬처'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때 처음으로 토인즈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도자기로 캐릭터를 만들어 작업한다는 걸 알리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도 만들고, 블로그도 단장하고. 당시 레진 복제 위주였던 아트 토이 쪽에서 도자기라는 소재가 신선하게 느껴졌나 봐요. 이후로 많은 아트 토이 작가님들께 컬래버레이션 제의를 받아 전시를 진행했어요.

그해 8월에는 첫 단독 전시도 있었어요. 토인즈의 세계관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 살아 움직이는 도자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스토리를 풀어서 보여 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이 전시를 계기로 다음 전시 제안도 들어오고, 스토어 입점 제안도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도자기로 만든 캐릭터 작업이 꾸준히 이어져서 많은 캐릭터와 스토리들이 쌓였습니다. 드디어 기반이 닦인 느낌이 든달까요.

▼ 토인즈 공방 진열대 구석에서 와글거리는 캐릭터들.

작업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품 구상과 제작 이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 과정을 구축하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프로모션하나요?

기본적으로 누군가 상품 초안을 만들어 오면 대장이 스토리와 디자인 초안을 해 옵니다. 초안을 토대로 팀원들 간의 회의를 거쳐 디자인을 완성하고요. 부대장의 샘플링, 틀 만들기를 거쳐 대원이 상품을 제작하고 이후 막내가 사진 편집 및 SNS 등에 게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작 공개는 주로 행사와 함께합니다. 페어나 전시 등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행사에서 신작을 공개해요. 거기서 오는 반응들을 모아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더해서 작업을 완성해 나가죠. 완성되면 SNS를 통한 이벤트로 몇 개를 홍보용으로 배포하기도 하고요. 상품 중 제일 메인으로 작업하고 있는 '티요와 친구들' 시리즈의 경우 계절별로 나누어서 프로모션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변하는 환경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서 온라인에 업데이트합니다.

페어들을 다녀오면 메일로 입점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매장의 분위기가 저희와 맞는지, 추정 수익은 어느 정도 될지 등을 점검하고 응답을 드려요. 아무래도 생산량 자체가 적다 보니 많은 매장에 납품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꼼꼼하게 따져 보는 편입니다.

토인즈의 캐릭터들은 아기자기하고 앙증맞은 것이 특징인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나요?

만들고 싶은 캐릭터가 불, 요정, 바람, 별 등이라면 그것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생김새라든지 느낌에 관해서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릭터들이 탄생되죠.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은 중요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순간순간 지나가는 이미지를 잡아낸다는 느낌으로 작업합니다. 우리 팀이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은사님이 모든 작업물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토인즈가 만들어 낸 캐릭터에는 항상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토인즈의 캐릭터가 다들 자기 사연을 갖고 있는 것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군요.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건 자금 운용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장제 생산이 아니라 공방에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 생산력이 낮은 편이에요. 소량 생산이라고 단가를 올리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고, 그렇다고 단가를 내리면 인건비에 비해 수익이 낮아지게 되죠. 교육 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도 있지만, 일단은 작품 판매와 캐릭터 콘텐츠 위주로 진행하고 싶어서 당분간 운영 방침은 그대로 고수할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곤 모든 문화예술 단체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활동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보람을 느꼈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작업물이 팔리는 순간, 그리고 작업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가 올라왔을 때, 페어나 전시 등에서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큰 힘이 되는 거 같아요. 특히 '귀여워!'라는 반응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아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 나가도 되겠구나,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을 얻어요.

▲ 다양한 표정의 작품들. 당장에라도 친근하고 장난기 어린 말을 건네 올 것 같다.

치유, 공감, 위로-
삶에 친숙한 작업이
주는 힘

자신의 활동이나 작업이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은 어느 영역에서나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느낌이 없다면 활동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는데 토인즈 활동의 지향점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삶에 친숙한, 그리고 개개인에게 친근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저희는 치유, 공감, 위로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저희 작업을 보고 '귀여워! 나랑 닮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 줄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예술보다는 한층 사람들에게 가깝고 나아가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면에서 도자기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밥그릇이며 머그컵, 화분 등 이미 사람들 삶 속에 녹아든 물건들이고, 이 물건들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스토리를 부여하면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사람들에게 가깝고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예술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친근함을 일굴 수 있는 활동으로 도자기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어렵지 않게 사람들과 친숙해질 수 있다는 것 외에 도자기 작업이 주는 매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캐릭터나 이미지를 만질 수 있는 3D 조형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손으로 만들다 보니 중간에 느낌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때도 있어요. 그런 자연스러움도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흙 본연이 가진 물성, 불에 의해 일어나는 우연한 색의 변화, 유약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색채와 마감의 느낌도 도자기의 매력이죠. 아,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다양한 작가들과 협업해 왔는데, 함께 작업해 보고 싶은 예술가나 단체가 있나요?

해외 작가 중에 아만다 비쉘, 나라 요시토모 작가를 좋아해요. 특색 있는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라 조형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관은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만화영상 진흥원 쪽에서 진행할 일이 있다면 같이 해보고 싶네요.

▲ 흙을 만지는 사람(토인)답게
모든 작업은 흙에서 시작된다.

우리 팀이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토인즈가 만들어 낸 캐릭터에는
항상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함께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재단이나 지원 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신진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주변의 작가들을 보면 지원 사업이나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그런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아,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이 활동 연한 3년 이내의 신진작가를 지원하거나 아예 중견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운데에서 버텨 내기가 더 힘든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쉬워요. 3년차 이후 작가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10년 후 토인즈는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는 해외에서 전시도 하고, 캐릭터 콘텐츠 사업도 더 확장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10년이나 쌓였으니 캐릭터들도 이야기들도 다양해졌을 것 같아요! 아마 작업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커졌겠죠? 되도록 마당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팀원들 모두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도 키우고 있을 것 같아요.

토인즈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풋~ 하고 웃음이 나온다. 물론 그것은 헛웃음이 아니라 작품이 뿜어내는 앙증맞은 기운 때문이다. 흐뭇한 미소와 함께 배어 나오는 웃음에는 정서적인 울림이 묻어 있다. 10년 후 이들은 마당이 딸린 '조금 더 큰 작업실'과 고양이, 해외 전시와 다양한 캐릭터들이라는 소박한 바람을 이룰 수 있을까? 청년들의 도전이 가지를 뻗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에너지와 생기발랄함을 꾸준히 유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토인즈

http://www.toinz.com

사람들이 저희 작업을 보고
'귀여워! 나랑 닮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 줄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예술보다는
한층 사람들에게 가깝고
나아가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척'

이정화(필자, 책임편집)

겨울의 끄트머리, 자신이 몸담은 지역에서 문화와 삶을 주변 분들과 나누고 새로이 길 닦으려 애쓰는 분들을 뵙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뵙는 분들은 하나같이 겸손하고 당당했으며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다. 일과 삶을 삭막하게 분리하기보다 그 가치 안에서 품고 새로이 꿈꾸고 궁리하고 긍정하며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기에 응원하고 그분들의 결실에 박수쳐 주고 싶었다. 내가 인터뷰한 안산, 오산 외에도 이번 일을 함께한 필자님들께서 부천, 수원, 안양, 용인, 성남 등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 인터뷰 글로 엮었고, 그 알차고 소담스러운 글들이 모여 펍(PUB)이라는 잡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잡지가 완성될 즈음 고개를 드니, 계절은 어느새 벚꽃 흐드러지고 목련 아련한 봄날이었다.
삶을 공상하는 아름다운 분들의 이야기를 이 멋진 봄날 독자님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지난해 우리의 겨울은 유독 춥고 시리고 안타까웠으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을 긍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산책하러 바깥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지면에 소개하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런 힘, 온기를 전달해 줄 것이다. 사실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의 멋진 공유 공간, 색채 뽐내는 예술가, 대화 나누고 싶은 분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 그래서 돌아오는 여름, 가을, 겨울마다 새로이 글로 엮어서 계속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삶을 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싶다.

문예창작, 철학, 미학을 공부했으며, 2011년부터 내적자신감 회복을 위한 독립출판프로젝트 『냄비받침』 에디터로 활동했다. 2012년부터 대구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비평전문 웹진 등에 시각/ 다원 미술비평을 게재했으며, 2016년에 대안적 삶을 사는 청년 열한 명을 인터뷰하여 『낭만자립청년-남다르게 먹고사는 청춘 11인을 만나다』(페이퍼십미디어, 2016)를 출간했다. 현재 철학자와 그들의 도플갱어와 같은 뮤즈를 이야기로 엮은 단행본을 쓰고 있다.

김진주(필자)

김진주(1981년 서울에서 출생, 수원과 서울에서 활동)는 오늘날 확장하는 시각 예술/문화 분야에서 미술작가/큐레이터/연구자라는 여러 역할을 넘나든다. 그녀의 관심사는 주변부와 중심 사이에서 수행하는 양극성의 역학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합창과 독백〉(2014), 단체전으로는 Home Works Forum 7(2015), 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16)가 있다. 현재는 서수원을 배경으로 '공장, 먼지, 제스처'에 관한 영상 작품을 준비 중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진행자로서 동료들과 함께 만드는 팟캐스트 '말하는 미술'(2015-), 연구자로서 수집하고 기록하는 수원의 옛 서울대 농생대 캠퍼스에 관한 '경기상상캠퍼스 아카이브'(2015-)가 있다.

은정아(필자)

용인에 사는 글 쓰는 사람.
방송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잡지나 책에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 대학에서 사회학,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다. 그동안 만든 프로그램은 〈시네마 천국〉, 〈지식채널e〉 등이 있다. 지역골목잡지 『사이다』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에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글, 삶, 육아의 조화다.

안태호(필자)

대학에서 국문학을, 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했다. 예술가가 못 되면 근처에서라도 놀아야겠단 생각으로 문화정책과 기획, 연구와 글쓰기 등을 병행해 왔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활동가, 컬처뉴스 편집장, 부천문화재단 팀장,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이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드는 일을 맡고 있다. 함께 쓴 책으로 『나의 아름다운 철공소』, 『노년예술수업』 등이 있다.

민하늬(필자)

학부에서 디자인·회화·미술사를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미학을 전공했다. 학부 졸업 후 뉴욕에서 큐레이터 인턴으로 일했고, 국내에서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근무했으며, K본부에서 다큐멘터리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현재는 석사논문 주제인 데리다의 '틀-짓기'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구상하며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소개

펍에 실린 12팀의 인터뷰이는 2016년 9월부터 조사한 문화재생 활동단체 중에 선별 추천되었다. 문화재생 활동단체 조사는 문화재생팀 신설 이후, 도내 문화재생 활동에 대한 모집단 규모와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원은 각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청년 중심으로 구성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심층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공동체 철학이 반영된 문화재생 기획과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와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을 거점 삼아 활동하게 된 계기와 계획, 지역 관계 정도, 재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는 재단 문화재생 사업에 반영하여 활용하게 된다.

조사명 문화재생 활동단체 조사

조사기간 2016. 9 ~ 2016. 12

공간적 범위 경기도 남부권역 중심(수원, 부천, 성남, 안양, 안산, 용인)

내용적 범위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재생 및 메이킹 활동 조사

조사방법 인접검색, 공공기관 데이터, 현장 조사, 인터뷰
1단계 : 규모 조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1차 모집단을 조사하여 DB 구축,
활성화 단체 중심으로 추출하여 수요 조사
2단계 : 인터뷰 조사 총 12팀
심층 수요 조사를 토대로 개별 심층 인터뷰 대상 추출하여 인터뷰

추진과정

1단계 규모 및 수요 조사
- 오리엔테이션 : 조사 과업 논의(9.12 / 재단 2층)
- 1차 워크숍 : 조사 방향 및 조사 대상 적정 여부 논의(10.19 살롱드공공 / 10.21 공존공간)
- 2차 워크숍 : 조사 과정, 출처 검증 및 지역 분석(11.16 / 공존공간)
- 규모 조사 총 521팀 / 수요 조사 총 110팀

2단계 인터뷰 조사 총12팀
- 결과 공유 워크숍
- 2017. 1.5 / 재단 6층 회의실
- 문화재생 활동 규모 조사 및 수요 조사 결과 공유
- 인터뷰 대상 논의

조사원

주조양(공유공간 플랫폼 00)
"만물은 서로 돕는다." 이웃과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민.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창업, NGO 현장을 종횡무진하는 사회혁신가. 오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현석(공동주거 모두들)
사람들이 서로 잘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는 부천 사람. 전통주를 만들어 파티를 열기도 하고 공동주거 협동조합도 운영 중.

장미나, 전율(문화숨 재미)
성남에서 지역재생, 커뮤니티 디자인 활동 중.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다.

박승현(공존공간)
'어떻게 살 것인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며 수원에서 '공존공간'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삶을 여행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송용남, 정혜림(알텍)
서울, 경기 지역에서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 안양에서 출발한 테크니컬 아티스트 그룹 운영.

신성은, 백지원(문화광부)
다사리문화기획학교 2기 출신으로 포스트웨딩, 이런개판(애견놀이터), 슬로우 여행 프로젝트를 통해 대안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를 꿈꾸는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 중.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박희주
지역문화팀장 서정문
문화사업팀장 김종길
지역문화팀 조지연
북부문화사업단 장희주

조사원
수원 박승현(공존공간 대표), 부천 김현석(공동주거 모두들), 성남 장미나, 전율(문화숨 재미),
안양 송용남, 정혜림(알텍), 안산·오산 신성은, 백지원(문화광부), 용인 주조양(공유공간 플랫폼 00)

인터뷰어
김진주(시각예술가), 안태호(문화비평가), 은정아(ebs방송작가), 민하늬(미술평론가), 이정화(독립 에디터)

펍(PUB)

출판기획 조지연
책임편집 이정화
디자인 김경년(북디자인 경놈)
인쇄 비전프린트

발행인 설원기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17. 5. 1
ISBN 978-89-999-0080-8 03600

본 자료집은 2016 문화재생 활동단체 조사 및 인터뷰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00
홈페이지 www.ggcf.or.kr에서 pdf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의 발견자

리드어스 안용재- 책으로 꿈을 읽는 청년들

스펑키엘 디자인랩 윤경숙, 차주협- 생활의 문화를 짓는 건축가들

피큐알(PQR) 천인우- 생활권을 재생하는 디자인

나의 애정 공간

커먼뮤직+커먼키친 황규석- 판교에 흐르는 맛있는 음악

그냥.. 가게,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 따뜻하고 이상한 이 동네의 '법칙'

살롱드공공 주조양- 공유는 삶을 잘 '살아내는' 비결

보통의 권리

식물공방PLANT+PLANT 정성희, 김지연- 식물과 함께 사는 '보통의 권리'를 위해

아홉색깔농부 김봉기, 장정근- 꾸러미에 담긴 파릇파릇한 '우리의 삶'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재생할 수 있는 노동, 그리고 여성의 시간

담쟁이자연학교 이연숙, 이경선- 자연의 재생력을 배우는 학교

다른 색들

우당탕탕 예술놀이단 이지은- 덩더쿵이 꿈꾸는 목적 없는 놀이

카페·독립출판 서점 '오키로미터' 김병철- 독립출판에는 '엉뚱한 날것'의 매력이 있다

도예그룹 토인즈- 흙과 불로 빚어낸 일상의 꿈

펍(PUB)은 퍼블릭(Public)의 약자이자
커뮤니티 펍에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오픈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ISBN 978-89-999-0080-8
9 788999 900808
03600
비매품